교육취약계층 가정 유아의
교육 및 생활 실태조사를 통한 체계적 지원 방안 연구

책임연구자: 장명림 (육아정책개발센터)

교육과학기술부

연구용역과제

교육취약계층 가정 유아의 교육 및 생활 실태조사를 통한 체계적 지원 방안 연구

책임연구자: 장명림 (육아정책개발센터)
공동연구자: 김은영 (육아정책개발센터)
이정림 (육아정책개발센터)
박수연 (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협력관: 신광수, 안정은 (유아교육지원과)

교육과학기술부

제 출 문

교육부총리 귀하

본 보고서를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취약계층 가정 유아의 교육 및 생활 실태조사를 통한 체계적 지원방안 연구」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9년 11월

육아정책개발센터
소 장 **조 복 희**

차 례

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3
3. 연구 방법 ····· 5

Ⅱ. 연구의 배경 및 이론적 기초 ····· 8

1. 교육취약계층의 정의 및 범주 ····· 8
2. 교육취약계층의 유형별 특성 ····· 10
3. 우리나라 교육취약계층 유아교육비 지원 현황 ····· 18
4. 국내 취약계층 영유아 지원 사업 현황 ····· 20
5. 국외 취약계층 영유아 지원 사업 ····· 35

Ⅲ. 교육취약계층 가정 유아의 교육 및 생활 실태 분석 ····· 50

1. 조사 대상 유아 및 부모 특성 ····· 50
2. 유아의 양육 및 생활 실태 ····· 55
3. 자녀의 유치원 교육 ····· 69
4. 요약 및 시사점 ····· 79

Ⅳ. 교육취약계층 학부모의 육아지원정책 수혜 현황 및 요구 ····· 84

1. 육아지원정책 ····· 84
2. 아동지원서비스 ····· 89
3. 요약 및 시사점 ····· 99

Ⅴ. 교육취약계층 가정 유아를 위한 체계적 지원 방안 ····· 102

1. 교육취약계층 가정 유아를 위한 지원 방향 ····· 102
2. 교육취약계층 가정 유형별 지원 방안 ····· 105

참고문헌 ····· 111

부록 ····· 113

표 차례

〈표 Ⅰ-3- 1〉 조사 대상자 수 ····· 6
〈표 Ⅰ-3- 2〉 조사 내용 ····· 6
〈표 Ⅱ-3- 1〉 영유아 교육비·보육료 지원 예산(2007~2009) ····· 18
〈표 Ⅱ-3- 2〉 연도별 교육비·보육료 지원 단가 ····· 19
〈표 Ⅱ-3- 3〉 농어업인 자녀 교육비·보육료 지원 단가 ····· 20
〈표 Ⅱ-4- 1〉 영유아 언어, 인지, 사회·정서 발달 평가도구 ····· 23
〈표 Ⅱ-4- 2〉 언어, 인지, 사회, 정서 발달 지원 프로그램 ····· 23
〈표 Ⅱ-4- 3〉 자녀양육 역량 강화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 24
〈표 Ⅱ-4- 4〉 다문화가정 부모자녀 통합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 24
〈표 Ⅱ-4- 5〉 드림스타트 사업의 연령별 서비스 예시 ····· 26
〈표 Ⅱ-4- 6〉 위스타트 프로그램 ····· 29
〈표 Ⅱ-4- 7〉 삼성포괄보육서비스 아동지원 프로그램 사례 ····· 31
〈표 Ⅱ-4- 8〉 삼성포괄보육서비스 부모지원 프로그램 사례 ····· 33
〈표 Ⅱ-4- 9〉 삼성포괄보육서비스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사례 ····· 34
〈표 Ⅲ-1- 1〉 조사 대상 유아의 특성 ····· 50
〈표 Ⅲ-1- 2〉 유아의 발달 수준 ····· 51
〈표 Ⅲ-1- 3〉 자녀의 발달에 있어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 ····· 52
〈표 Ⅲ-1- 4〉 부모의 연령 및 건강상태 ····· 53
〈표 Ⅲ-1- 5〉 자녀와의 동거 여부 및 비동거 이유 ····· 54
〈표 Ⅲ-1- 6〉 부모 취업 여부 및 종사상 지위 ····· 54
〈표 Ⅲ-1- 7〉 부모 음주횟수 및 하루 흡연량 ····· 55
〈표 Ⅲ-2- 1〉 유치원 하원 후 유아를 주로 돌보아 주는 사람(곳) ····· 56
〈표 Ⅲ-2- 2〉 부모 이외에 유치원 하원 후 유아를 주로 돌보는 사람의 특성 ·· 56
〈표 Ⅲ-2- 3〉 부모 이외에 돌보는 사람에게 지불하는 비용 관련 ····· 57
〈표 Ⅲ-2- 4〉 유아가 어른 없이 보내는 시간 ····· 58
〈표 Ⅲ-2- 5〉 하원 후 자녀의 활동 시간 ····· 59
〈표 Ⅲ-2- 6〉 지역규모 및 소득계층별 하원 후 자녀의 활동 시간 ····· 60
〈표 Ⅲ-2- 7〉 자녀의 규칙적인 식사 정도 ····· 61

〈표 Ⅲ-2- 8〉 자녀의 건강, 청결·위생, 영양, 생활습관 지도 ····· 62
〈표 Ⅲ-2- 9〉 지역규모 및 소득수준별 자녀의 건강, 청결·위생, 영양 및 생활습관 지도 ····· 63
〈표 Ⅲ-2-10〉 자녀와의 놀이 시간 ····· 64
〈표 Ⅲ-2-11〉 자녀와 함께하는 활동 ····· 65
〈표 Ⅲ-2-12〉 지역규모 및 가구소득수준별 자녀와 함께하는 활동 유무 ····· 67
〈표 Ⅲ-2-13〉 자녀를 양육 시 어려운 점 ····· 68
〈표 Ⅲ-3- 1〉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 유형 ····· 69
〈표 Ⅲ-3- 2〉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는 가장 큰 이유 ····· 70
〈표 Ⅲ-3- 3〉 현재 다니고 있는 유치원을 선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 ····· 70
〈표 Ⅲ-3- 4〉 유치원에서 더욱 강화되기를 희망하는 교육내용 ····· 71
〈표 Ⅲ-3- 5〉 가정통신문이나 부모교육 자료 등이 자녀 교육에 도움되는 정도 ···· 72
〈표 Ⅲ-3- 6〉 부모교육・부모참여 프로그램 참여 여부 ····· 72
〈표 Ⅲ-3- 7〉 부모교육·부모참여 프로그램 미참여 이유 ····· 73
〈표 Ⅲ-3- 8〉 가정에서 실제 납부하는 자녀의 월 평균 유치원 교육비 ····· 74
〈표 Ⅲ-3- 9〉 자녀의 유치원 종일반 이용 여부 ····· 75
〈표 Ⅲ-3-10〉 유치원 종일반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 75
〈표 Ⅲ-3-11〉 현재 다니는 유치원을 그만두고 다른 기관으로 옮길 의향 ····· 76
〈표 Ⅲ-3-12〉 옮길 의향이 있는 경우 이유 ····· 76
〈표 Ⅲ-3-13〉 옮길 의향이 있는 경우 희망하는 기관 ····· 77
〈표 Ⅲ-3-14〉 유치원 외에 이용하는 기관교육 프로그램 개수 ····· 78
〈표 Ⅲ-3-15〉 유치원 외에 이용하는 기관교육 프로그램 비용 ····· 79
〈표 Ⅲ-4- 1〉 소득수준별(기초생활보장/차상위층/3층이상) 유아의 교육 및 생활 특성 ····· 80
〈표 Ⅲ-4- 2〉 지역별(읍·면지역/중소도시/대도시) 유아의 교육 및 생활 특성 ····· 80
〈표 Ⅳ-1- 1〉 정부지원 유치원 교육비 수혜 여부 ····· 84
〈표 Ⅳ-1- 2〉 정부지원 유치원 교육비의 도움 정도 ····· 85
〈표 Ⅳ-1- 3〉 정부지원 유치원 교육비 금액에 대한 만족도 ····· 86
〈표 Ⅳ-1- 4〉 다문화가정의 정부지원 유아교육비의 도움 정도 및 금액에 대한 만족도 ····· 86
〈표 Ⅳ-1- 5〉 유아교육비 지원정책의 필요 정도 및 교육비 부담 정도 ····· 87

〈표 Ⅳ-1- 6〉 가장 바라는 육아지원정책 ····· 88
〈표 Ⅳ-1- 7〉 가족유형에 따라 가장 바라는 육아지원정책 ····· 88
〈표 Ⅳ-1- 8〉 다문화가정이 가장 바라는 육아지원정책 ····· 89
〈표 Ⅳ-2- 1〉 지역규모 및 소득수준별 아동지원서비스 수혜 여부 ····· 90
〈표 Ⅳ-2- 2〉 아동지원서비스에 대한 가족유형별 수혜 여부 ····· 90
〈표 Ⅳ-2- 3〉 수혜 아동지원서비스의 종류 ····· 91
〈표 Ⅳ-2- 4〉 가족유형별 수혜 아동지원서비스의 종류 ····· 91
〈표 Ⅳ-2- 5〉 다문화가정의 수혜 아동지원서비스 종류 ····· 92
〈표 Ⅳ-2- 6〉 아동지원서비스에 대한 지역규모 및 소득수준별 만족도 ····· 93
〈표 Ⅳ-2- 7〉 아동지원서비스에 대한 가족유형별 만족도 ····· 93
〈표 Ⅳ-2- 8〉 다문화가정의 아동지원서비스 만족도 ····· 94
〈표 Ⅳ-2- 9〉 아동지원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이유 ····· 94
〈표 Ⅳ-2-10〉 아동지원서비스에 대한 가족유형별 불만족 이유 ····· 95
〈표 Ⅳ-2-11〉 다문화가정의 아동지원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이유 ····· 95
〈표 Ⅳ-2-12〉 아동지원서비스 비수혜 이유 ····· 96
〈표 Ⅳ-2-13〉 아동지원서비스에 대한 가족유형별 비수혜 이유 ····· 96
〈표 Ⅳ-2-14〉 다문화가정의 아동지원서비스 비수혜 이유 ····· 97
〈표 Ⅳ-2-15〉 유치원 정규 교육 외 추가 이용 희망 서비스 ····· 97
〈표 Ⅳ-2-16〉 가족유형별 유치원 정규 교육 외 추가 이용 희망 서비스 ····· 98
〈표 Ⅳ-2-17〉 다문화가정의 유치원 정규 교육 외 추가 이용 희망 서비스 ····· 98
〈표 Ⅳ-3- 1〉 소득수준별(기초생활보장/차상위층/3층이상) 특성 ····· 99
〈표 Ⅳ-3- 2〉 지역별지역별(읍·면지역/중소도시/대도시) 특성 ····· 99
〈표 Ⅴ-2- 1〉 교육취약계층 가정 유형별 맞춤형 지원 방안 ····· 110

그림 차례

〔그림 Ⅲ-2-1〕 하원 후 자녀의 활동 시간 ····· 59
〔그림 Ⅲ-2-2〕 자녀와 함께하는 활동 ····· 65

부록 표 차례

〈부표 Ⅲ-1- 1〉 대상 자녀의 신체 발달 수준 ····· 115
〈부표 Ⅲ-1- 2〉 대상 자녀의 인지 발달 수준 ····· 115
〈부표 Ⅲ-1- 3〉 대상 자녀의 언어 발달 수준 ····· 116
〈부표 Ⅲ-1- 4〉 대상 자녀의 사회성 발달 수준 ····· 116
〈부표 Ⅲ-1- 5〉 대상 자녀의 정서 발달 수준 ····· 117
〈부표 Ⅲ-1- 6〉 다문화가정 자녀의 발달 수준 ····· 117
〈부표 Ⅲ-1- 7〉 자녀의 발달에 있어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 ····· 117
〈부표 Ⅲ-1- 8〉 다문화가정 자녀의 발달에 있어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 ····· 118
〈부표 Ⅲ-2- 1〉 유치원 하원 후 유아를 주로 돌보아 주는 사람(곳) ····· 118
〈부표 Ⅲ-2- 2〉 다문화가정에서 유치원 하원 후 유아를 주로 돌보아 주는 사람(곳) ·· 119
〈부표 Ⅲ-2- 3〉 부모 이외에 유치원 하원 후 유아를 주로 돌보는 사람 ····· 119
〈부표 Ⅲ-2- 4〉 다문화가정에서 부모 이외에 유치원 하원 후 유아를 주로 돌보는 사람 ····· 120
〈부표 Ⅲ-2- 5〉 자녀가 하루 중 어른 없이 혼자(아이들끼리) 보내는 시간 ····· 120
〈부표 Ⅲ-2- 6〉 다문화가정 자녀가 하루 중 어른 없이 혼자(아이들끼리) 보내는 시간 ····· 120
〈부표 Ⅲ-2- 7〉 자녀의 주당 규칙적 식사 일수 ····· 121
〈부표 Ⅲ-2- 8〉 다문화가정 자녀 규칙적 식사 일수 ····· 121
〈부표 Ⅲ-2- 9〉 자녀의 예방접종 지도 ····· 122
〈부표 Ⅲ-2-10〉 자녀의 정기검진 지도 ····· 122
〈부표 Ⅲ-2-11〉 자녀의 신체청결 지도 ····· 122
〈부표 Ⅲ-2-12〉 집안 청결 상태 ····· 123
〈부표 Ⅲ-2-13〉 자녀에게 영양적으로 균형 있는 식사 제공 ····· 123
〈부표 Ⅲ-2-14〉 자녀의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의 제한 ····· 124
〈부표 Ⅲ-2-15〉 자녀의 기본생활습관 지도 ····· 124
〈부표 Ⅲ-2-16〉 자녀의 TV 및 비디오 프로그램이나 시청시간 제한 ····· 124
〈부표 Ⅲ-2-17〉 다문화가정 자녀의 건강, 청결/위생, 영양, 생활습관 지도 ····· 125
〈부표 Ⅲ-2-18〉 자녀와 놀아주는 시간 ····· 125

〈부표 Ⅲ-2-19〉 다문화가정에서 자녀와 놀아주는 시간 ····· 126
〈부표 Ⅲ-2-20〉 자녀와 함께 책 읽어주는 활동 ····· 126
〈부표 Ⅲ-2-21〉 자녀와 함께 노래 불러주는 활동 ····· 127
〈부표 Ⅲ-2-22〉 자녀와 함께하는 만들기나 그리기 활동 ····· 127
〈부표 Ⅲ-2-23〉 자녀에게 글자, 낱말, 혹은 수를 가르치는 활동 ····· 127
〈부표 Ⅲ-2-24〉 자녀와 함께 게임을 하거나 놀잇감을 가지고 함께 노는 활동 ··· 128
〈부표 Ⅲ-2-25〉 자녀와 놀이터에 가거나 함께 하는 신체운동 ····· 128
〈부표 Ⅲ-2-26〉 자녀와 함께 우체국, 은행, 상점 등을 가는 활동 ····· 128
〈부표 Ⅲ-2-27〉 자녀와 함께 하는 요리, 청소, 식사준비 등 집안일 ····· 129
〈부표 Ⅲ-2-28〉 다문화가정에서 자녀와 함께하는 활동 ····· 129
〈부표 Ⅲ-2-29〉 최근 6개월간 자녀와 함께 도서관에 간 적이 있는지 유무 ···· 129
〈부표 Ⅲ-2-30〉 최근 6개월간 자녀와 함께 인형극, 뮤지컬, 미술관, 박물관 등에 간 적이 있는지 유무 ····· 130
〈부표 Ⅲ-2-31〉 최근 6개월간 자녀와 함께 놀이공원, 동물원, 수족관 방문 여부 ····· 130
〈부표 Ⅲ-2-32〉 다문화가정에서 자녀와 함께하는 문화 활동 유무 ····· 130
〈부표 Ⅲ-2-33〉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가장 어려운 점 ····· 131
〈부표 Ⅲ-2-34〉 다문화가정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가장 어려운 점 ····· 131
〈부표 Ⅲ-3- 1〉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는 가장 큰 이유 ····· 132
〈부표 Ⅲ-3- 2〉 다문화가정에서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는 가장 큰 이유 ····· 132
〈부표 Ⅲ-3- 3〉 현재 다니고 있는 유치원을 선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 ····· 133
〈부표 Ⅲ-3- 4〉 다문화가정 부모가 현재 다니고 있는 유치원을 선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 ····· 133
〈부표 Ⅲ-3- 5〉 유치원에서 더욱 강화되기를 희망하는 교육내용 ····· 134
〈부표 Ⅲ-3- 6〉 다문화가정 부모가 유치원에서 더욱 강화되기를 희망하는 교육 내용 ····· 134
〈부표 Ⅲ-3- 7〉 가정에서 실제 납부하는 자녀의 월 평균 유치원 교육비 ····· 135
〈부표 Ⅲ-3- 8〉 다문화가정에서 실제 납부하는 자녀의 월 평균 유치원 교육비 ····· 135
〈부표 Ⅲ-3- 9〉 다문화가정 유아가 유치원 외에 이용하는 기관교육 프로그램 개수 ····· 136
〈부표 Ⅲ-3-10〉 유치원 외에 이용하는 기관 교육프로그램 비용 ····· 136
〈부표 Ⅲ-3-11〉 다문화가정 부모가 유치원 외에 이용하는 기관 교육프로그램 비용 ····· 137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전 세계적으로 유아교육 투자의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유아기 교육이 다른 유형의 교육이나 직업훈련 등에 비해 기회비용 효과, 즉, 경제적 효율성이 가장 높으며, 고급 노동력 확보를 위한 인재 양성에서 유아교육 수혜자는 비수혜자 대비 3배의 효과가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Chunha, 2005).

또한 생애 단계별 교육에 동일한 금액을 투자할 경우, 영유아기에 투자하는 것이 회수율이 가장 높으며(OECD, 2006), 출생부터 아동과 가정을 지원하는 양질의 유아교육프로그램에 1달러를 투자하는 경우, 이후 특수교육서비스 감소, 높은 졸업율과 취업률, 범죄율 및 공적복지시스템 이용 비율 감소 등으로 인해 7-10달러가 사회로 환원된다. 특히, 취학 전 유아기에 경험하는 양질의 프로그램이 이후의 학교준비도, 기본학습 성취, 고등학교 졸업률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으로는 성인기의 경제적 성공, 범죄로 인한 형사 처벌 감소 등에 효과가 있다는 지적이다(Schweinhart, 2003).

이에 선진국들은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국민의 지적 역량이나 학습 역량이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고,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는 자녀 교육보장과 우수한 미래 인재 육성 담보가 가장 효율적인 저출산 대책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국가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생애 초기 기본학습 능력 보장 필요하며, 부모의 교육적, 문화적 지원이 빈약한 빈곤계층이나 소외계층 자녀를 위한 학교 교육의 역할과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국가와 사회는 사회경제적인 배경에 의한 교육격차를 감소시켜야 할 당위성이 있다. 교육격차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학생이 타고난 능력, 지능, 성취동기 등의 개인적 요소도 있으나 가정의 사회 계층 차이로 인한 사회 및 학교의 구조적 요소가 존재한다. 교육격차는 학생 개인 변인보다는 학생이 선택 불가능한 가정 변인, 즉,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능력(소득, 학력, 직업, 계층) 및 지역 변인(문화적 환경)에 의한 영향력이 크다.

이와 함께 학습능력 격차 예방을 위한 조기 개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선진국들은 취학 전에 조기 개입하여 초등학교에서의 출발선을 동등하게 보장하자는 의미에서 국가적 차원의 정책을 수립·실천(미국의 헤드스타트, 영국의 슈어스타드, 호주의 베스트스타드 등)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저소득층 영유아를 위한 지원사업 프로그램인 헤드스타트에서는 이러한 아동들을 위한 조기중재로 언어와 인지발달에 효과가 있었고 문제행동 예방과 사회적 비용절감에도 효과가 있었다는 종단적 연구결과들이 발표되었으며 최근에는 중재의 시기가 어릴수록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된 바 있다.

한편, 우리나라 유아교육 지원 정책은 유아학비지원 등 금전적 보조에 치우쳐, 사회·문화적, 통합적 지원 정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유아교육분야에 대한 정부재정은 급격히 확대 되었으나, 이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는 아직도 낮은 편이다. 특히, 지원 내역 또한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및 3-4세 차등교육비 지원으로 금전적 보조에 치우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접적인 유아교육비 지원 외에 2003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이하 교복투 사업)은 2009년 현재 전국으로 확대되었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300여개원이 지원을 받고 있다. 교복투 사업은 학습결손 치유·예방 프로그램 지원, 정서발달을 위한 문화활동 프로그램 지원, 정신건강을 위한 심리·심성계발 프로그램 지원, 지역 네트워크 지원체제 구축을 통한 복지 프로그램 지원, 출발점 평등을 위한 영·유아 교육 및 보육 프로그램 지원을 하고 있다.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된 생애초기 교육격차 해소 지원 정책으로는 2007년도 국가인적자원위원회에서 발의하여 2008년도 추진된 <영유아 기본학습능력발달 지원사업>이 대표적이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도에는 기관 미이용 유아 및 유치원에 재원하고 있는 발달지연 유아를 개별지도 하기 위한 <희망유아교육사>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은 수요에 충분히 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볼 때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취약계층 영유아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의 다양화 및 내실화가 매우 필요하다. 저소득층 아동의 교육, 문화, 보건 측면의 결핍은 이후의 삶에 복합적·장기적· 누적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취학 전 저소득층 영·유아를 위한 프로그램은 교육과 보육의 통합은 물론 문화 및 복지까지도 반영된 통합적인 프로그램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즉, 금전적인 보조 외에 교육취약계층의 가정 유아 특성 및 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매우 필요하다. 즉,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유아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대상 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적실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상 유아의 교육 및 생활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요구를 분석해야 한다.

본 연구는 교육취약계층 가정 유아의 정의 및 범위를 탐색하고, 교육취약계층 가정 유아의 교육 및 생활 실태를 전국 규모로 조사·분석함으로써, 교육취약계층의 가정 특성 및 요구별로 지원 대상을 유형화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가. 교육취약계층 가정 유아 지원의 의미와 필요성 탐색

○ 교육취약계층 가정 유아의 정의 및 범위 설정
○ 교육취약계층 가정 유아 지원의 의미 탐색
○ 교육취약계층 가정 유아 지원의 필요성

나. 교육취약계층 가정 유아의 일반적인 특성 분석

○ 일반적인 교육취약계층 가정 유아의 특성
○ 교육취약계층 가정 유형별 특성
- 저소득가정 유아의 특성
- 한부모가정 유아의 특성
- 농어촌가정 유아의 특성
- 다문화가정 유아의 특성

다. 우리나라 교육취약계층 유아교육 지원 정책 분석

○ 교육비 지원 현황
- 만 5세 무상교육비 지원 정책
- 만 3-4세 차등교육비 지원 정책

라. 국내외 저소득층 지원 사업 및 연구 분석

○ 국내외 취약계층 가정 지원사업의 특성을 분석하여 연구에 주는 시사점을 추출함.

- 국내 사례: 중앙정부 사업, 지방정부 사업, 민간주도 사업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드림스타트사업', '위스타트(We Start) 마을사업', '삼성 포괄 보육서비스' 등
- 국외 사례: 미국의 헤드스타트(Head Start), 영국의 슈어스타트(Sure Start), 호주의 베스트스타트(Best Start)

마. 교육취약계층 가정 유아의 교육 및 생활 실태 조사·분석

○ 유아 및 부모의 특성

○ 양육 및 생활 실태

- 주양육자, 유치원 하원 후 생활, 자녀 관리 및 지도, 자녀와의 활동, 양육의 어려운 점

○ 유치원 교육 및 기타 사교육

바. 교육취약계층 국가 지원정책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 및 요구 분석

○ 유치원 교육비 지원 수혜 여부

○ 국가 지원 정책에 대한 만족도

○ 희망하는 육아지원 정책

사. 교육취약계층 가정 유아를 위한 체계적 지원 방안 모색

○ 교육취약계층 가정 유아를 위한 일반적 지원 방향 모색

○ 교육취약계층 가정 유형별 지원 방안 모색

- 대별되는 취약계층 가정 유형별: 저소득가정, 농어촌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및 지역내 자원 활용 방안

3. 연구 방법

가. 문헌 연구

○ 교육취약계층 가정 유아 지원의 의미와 필요성
- 교육취약계층 가정 유아의 정의 및 범위 설정
- 교육취약계층 가정 유아 지원의 의미 탐색
- 교육취약계층 가정 유아 지원의 필요성

○ 교육취약계층 가정의 유형별 특성 분석
- 저소득가정의 특성
- 농어촌가정의 특성
- 한부모가정의 특성
- 조손가정의 특성
- 다문화가정의 특성

나. 국가 유아교육 지원정책 자료 수집 및 분석

○ 유아교육비 지원 현황
- 만 5세 무상교육비 지원 정책
- 만 3-4세 차등교육비 지원 정책

○ 농어민 자녀 지원 현황

다. 국내외 저소득층 지원 사업 자료 수집·분석

○ 국내 지원 사례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 '드림스타트 사업'
- '위스타트 마을사업'
- '삼성 포괄 보육서비스'

○ 외국의 지원 사례

- 미국의 헤드스타트(Head Start)
- 영국의 슈어스타트(Sure Start)
- 호주의 베스트스타트(Best Start)

라. 교육취약계층 가정 유아 교육 및 생활 실태조사

○ 조사 제목: 교육취약계층 가정 유아의 교육 및 생활 실태조사

○ 조사 시기: 2009년 7월

○ 조사 대상: 유치원 재원 아동 중 정부지원 대상 유아 부모 3,693명

〈표 Ⅰ-3-1〉 조사 대상자 수

대상자	대상자 수 내역	
부모	3,693명	- 180개 지역교육청별로 공립 2개원, 사립 2개원 선정 - 4개 유치원별로 학부모 5명씩 선정 - 총 3,600여명(180개 지역교육청 × 4개 유치원 × 5명 학부모)

○ 조사방법: 우편조사(180개 지역교육청을 통해 지역교육청별 4개원에 질문지 발송 후 지역교육청을 통해 회수)

○ 조사 내용

〈표 Ⅰ-3-2〉 조사 내용

주제	하위 주제	문항 내용
가정 생활	가구 특성	- 거주지역, 가족구성, 가구원수, 주택형태 - 가구 소득수준, 월평균 지출, 부담되는 지출항목, 취학전 자녀교육비 지출 - 다문화가정 여부
	부모 특성	- 연령 - 자녀와의 동거 여부 및 비동거 이유 - 종사상 지위, 근무형태 - 건강상태, 음주, 흡연량

(표 계속)

주제	하위 주제	문항 내용
	자녀 특성	- 성별, 연령, 출생순위, 건강상태 - 전반적인 발달 상태(신체, 인지, 언어, 사회성, 정서 발달)
	자녀 양육 및 생활	- 주양육자(유형, 연령, 학력, 건강상태, 비용지불 여부, 금액, 부담정도, 자녀를 돌보아주는 총 시간) - 유치원 하원 후 생활(하원 후 돌아오는 시각, 하원 후 생활 장소, 하원 후 활동내용 및 시간, 자녀혼자 보내는 시간,) - 자녀 관리 및 지도(의식주, 건강, 기본생활습관 관리 및 지도) - 자녀와의 활동(활동시간, 활동유형별 횟수) - 양육의 어려움(일반, 다문화가정)
유치원 교육		- 유치원 유형, 유치원에 보내는 이유, 현 기관 선택 이유, 희망하는 교육내용 - 부모교육·참여프로그램(참여 여부, 미참여 이유) - 월평균 유치원 교육비 - 종일반 이용(이용여부 및 미이용 이유) - 다른기관으로 옮길 의향(여부 및 이유, 옮기고자 하는 기관)
유치원 이외 기타 교육		- 유형, 내용, 개수, 금액, 정부지원 여부
육아지원 정책		- 유치원 교육비(수혜 여부, 도움 정도, 만족도) - 희망하는 육아지원정책 - 정부, 민간 운영 아동지원서비스(수혜 여부, 종류, 만족도, 불만족 이유, 미수혜 이유)

마.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관련 전문가, 교육청 유아담당전문직, 현장 교원이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개최함.

- 연구 추진 방향 및 범위 설정 자문회의 개최
- 교육취약계층 가정의 유아 교육 및 생활 실태 조사 질문지 항목 검토 자문회의 개최
- 조사 결과에 근거한 교육취약계층 유형 설정 및 지원 방향 모색
- 교육취약계층 가정 유형별 맞춤형 지원 방안 검토

Ⅱ. 연구의 배경 및 이론적 기초

제2장에서는 선행연구에서 규정한 취약계층의 정의와 범주를 살펴보고, 교육취약계층의 의미와 특성을 탐색하였다. 또한 교육취약계층을 저소득 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농어촌가정, 다문화가정으로 분류하고 이들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1. 교육취약계층의 정의 및 범주

성, 계급, 연령, 장애 등 다양한 종류의 사회적 소외가 존재하지만, 지식기반경제사회로 진입한 지금, 가장 기본적인 소외는 교육소외이고 이 집단에 속한 이들은 교육취약계층으로 분류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새로운 경제체제 아래에서 지식 고용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한 집단이기 때문이다(한숭희, 2003). 교육취약계층이란 인간의 기본권인 사회권 즉,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중 교육에 대한 충분한 기회를 가지지 못한 계층으로 국민의 학습권을 영위하지 못하는 집단을 말한다. 그러나 교육취약계층은 앞서 밝힌 취약계층과 같은 의미로는 통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교육적인 수준은 상당하나 사회적 편견에 의해, 혹은 문화적 향유의 결핍으로 인해 나타나는 취약계층도 있기 때문이다. 즉, 취약계층 속에 교육취약계층이 속해 있지만 모든 취약계층이 교육에의 결핍을 호소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전히 취약계층 중에서 교육취약계층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이유는 여기에 있다. 지식기반사회로 진입하기 전 즉, 교육취약계층이 가질 수 있었던 다양한 사회적 기회와 접근성이 지식·정보화 사회로 진행됨에 따라 점점 줄어들게 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적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교육 부문에서도 학생 간, 학교 간,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나는 데에서 기인한다. 즉,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그 개인이 속한 집단, 작게는 가족부터 크게는 개인, 나아가 사회 전체가 가지게 되는 모든 주변 환경이라는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현 사회에서는 교육격차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학생의 타고난 능력, 지능, 성취동기 등의 개인 변인보다는 학생이 선택 불가능한 가정 변인, 즉,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능력 및 지역 변인에 의한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

격차를 방치할 경우 교육이 경제사회적 양극화를 해소·완화하는 데 기여하기보다 오히려 확대시킴으로써 사회적 양극화의 악순환이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 이에 현 상황에서 근본적인 사회적 지원 체제가 교육취약계층에게 체계성을 갖추고 공고히 제공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결국 교육취약 집단을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영역으로부터 소외시켜 형식적인 면에서나 내용적인 면 모두에서 한 사회의 취약계층 집단으로 구조적으로 고착된다. 이것은 결국 악순환의 고리를 가지고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로 되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교육취약계층이 그 분류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나뉘고, 또 그 분류 또한 점점 더 다양화 되고 있는 현 상황을 바라볼 때,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지원 체계가 절실하다. 이에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세분화된 지원 현황 및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교육취약계층이 당면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공유되고 있다. 빈곤의 문제가 그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부모들의 소득수준은 그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자녀가 그 시기에 받을 수 있는 적절한 보호와 영양, 교육 등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가난한 부모를 둔 아동은 부모가 지닌 사회경제적 지위의 한계를 고스란히 물려받고, 계속해서 취약계층을 벗어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아동기에 충분히 누려야 할 적절한 보호와 교육 등의 복지가 결핍될 때에는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여러 면에서 많은 격차로 나타나, 인생 전체에 계속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아동발달의 결정적 시기에 필요한 자극과 관심의 결여, 문화 결손 및 박탈을 초래할 수 있으며, 빈곤아동이 가정에서 방치되면, 이는 지능의 저하와 학습곤란으로 이어지고, 빈곤가정 아동의 우울, 산만, 불안 등의 정서장애 발생률은 일반 가정 아동보다 높게 나타나게 된다.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은 집단에 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성공에 대한 낮은 기대감, 지나친 의존성 등 무력감을 나타낸다. 아동이 어리고 빈곤기간이 길수록 그 영향은 증폭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모두 국가와 사회의 문제가 되므로, 이에 대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필요로 한다(서문희·나정·최혜선, 2006). 이처럼 교육취약계층은 대부분 빈곤의 문제와 이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문제를 경험한다. 따라서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입체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으로 아동을 위한, 아동에 의한, 아동을 향한 정책이 요구된다.

한편, 교육취약계층 유형에 대한 국제적인 분류로는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아동권리협약을 들 수 있다.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 등 아

동인권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규정해 놓고 있다. 아동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한 가정에 속하여 있는 소극적인 보호의 대상이 아닌, 아동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해 제시한다. 우리나라 또한 이 협약에 비준하여 명시된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다. 즉, 우리 정부는 모든 아동의 어떠한 예외도 없이 자기나 가정의 누구에게서도 그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국가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문벌 및 기타의 지위로 인하여 차별받는 일 없이 이들의 권리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무차별의 원칙인 아동권리 보장의 핵심이념을 지켜야 한다. 또한 국내적으로 볼 때에도 헌법에 제시되어 있는 인간의 기본권에서 사회권을 들 수 있다. 국민이 생존을 유지하거나 생활을 향상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협 위하여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인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사회권 속에는 교육권도 포함되어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교육기본법 제 4조에 제시되어 있는,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것은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이 반드시 제공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2. 교육취약계층의 유형별 특성

본 보고서에서는 소득수준과 교육기회를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을 기준으로 교육취약계층을 분류하였다. 계층은 한 개인보다는 개인이 소속되어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으로 대표될 수 있으므로 가정을 계층의 가장 작은 단위로 하여 분류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근거하여 제2절에서는 교육취약계층의 유형을 저소득 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농어촌가정, 다문화가정으로 나누어 각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았다.

가. 저소득가정

최근 우리나라는 개별 가구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빈곤층의 비율이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탈리아나 스페인보다 더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재인용, 이은해 외, 2008). 특히 1997년 IMF 이후 사회 내 소득 간 격차가 점차 벌어지므로 인해 소득 양극화 현상이 깊어지는 사회문제를 안고 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2001년 10월부터 공공부조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절대 빈곤가구에 대해서는 근로능력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생계비 제공의 기초보장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이유에 의해 이러한 기초생계비조차 수급 받지 못하는 빈곤 인구가 무려 약 200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들은 빈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재인용, 이은해 외, 2008). 차상위계층이라고 불리우는 이들은 비슷한 경제적 여건 속에 있으나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수급권자보다 더 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아동빈곤률 역시 최근 들어 세계 경제위기와 맞물려 경제적 불안과 실업 등으로 가구에 소득이 낮아지면서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다. 빈곤 아동 수는 기초생활 수급 가정 아동과 차상위계층가정 아동, 그리고 실직과 가정해체로 양육을 포기한 기아나 미혼모 아동 등까지 합하면 약 10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보건복지부, 2006). 이는 전체 아동의 약 9%에 해당된다. 이 수는 취학 전 유아 4명 중 한명이 사회문화적으로 낙후된 저소득 가정에서 지내고 있다는 미국의 보고(The State of America's Children, 2004)에 비하면 적은 수치이기는 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저소득 가정의 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기초자료가 추정치에 불과하고 이들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이은해 외, 2008).

저소득 가정의 경제적, 물질적 결핍은 성장하는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년기 보다 아동기, 특히 아동초기에 경험하는 가정의 빈곤은 발육부진, 발달지체 등과 같은 신체발달의 문제에서부터 학업부진, 학교중퇴 등과 같은 인지발달의 문제, 우울과 불안 등과 같은 내면화된 문제뿐만 아니라 공격성,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반사회적 행동 등과 같은 외형화된 문제 등을 포함한 사회·정서적 발달의 문제, 뇌 또는 신경계 능력에 이르기까지 아동발달의 여러 영역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이다. 저소득 가정의 이러한 내적, 외적 어려움은 단독 혹은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여 성장하는 아동의 발달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어 저소득가정의 아동, 특히 취학 전 아동에 대한 교육적 서비스가 광범위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저소득층 교육취약계층 아동을 위해서 여러 부처가 지원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농림수산식품부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가족부,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협조체제 구축으로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의 선정 기준과 지원 단가를 통일하고, 보육료 지원과의 중복지원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 행정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 아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드림스타트사업 등 부처 차원의 아동지원 정책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나.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정이란 부모 중 한 쪽이 사망, 이혼, 유기, 별거 등과 입양, 사생아 출산으로 인하여 발생한 편부, 편모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

한부모가정의 특성을 부 또는 모, 자녀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노은영, 2009). 첫째, 한부모가정의 특성은 양육자가 현재 가족을 책임지고 있으므로 가계의 책임자이며, 자녀양육의 담당자이며, 가사일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일반가정의 특성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 한부모가정은 배우자의 상실로 인한 충격 및 가장으로서의 역할 부담, 직장생활의 불안정 등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특성을 지니게 된다. 첫 번째로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사일의 부담감이 있다. 대다수가 저학력과 저소득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다. 부 또는 모의 부재로 인한 가정생활의 변화와 함께 직장생활과 가사생활 양쪽을 모두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직업을 선택하는데서 어려움이 있다.

둘째, 자녀양육의 부담감이 있다. 한부모가정의 자녀양육은 부 또는 모가 생계유지를 위해 직장활동과 동시에 가사일 까지 해야 하므로 자녀에 대한 보호, 감독 등이 소홀해지는 것으로 인해 자녀를 유해한 환경에 방치해 두어 신체적 및 정서적 해를 입히게 될 수도 있다. 그로인해 아동의 사회적응문제, 정서적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아버지는 자녀를 잘 돌보지 못한다는 부담감과 죄책감으로 감정적인 어려움도 겪게 될 수 있다.

셋째, 사회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이다. 한부모가정은 한쪽 부모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온전치 못한 가족,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가정으로 사회에서 낙인과 차별 속에 살아가고 있다. 최근 한부모가정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은 피해갈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이혼한 자는 인생의 실패자, 낙오자, 부도덕한 사람, 부모자격도 없는 사람이라는 낙인을 찍고 있고 이에 대해 아동들은 문제아, 비행아 라는 꼬리표를 달아주어 경계하는 경우가 많다.

다음으로 한부모가정 자녀의 특성, 특히 한부모가정이 형성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서적 불안정문제이다. 한부모가정의 자녀들은 갑작스러운 부 또는 모의 부재로 인해 안정감결여, 정서적 긴장, 역할혼란의 시기를 맞게 된다. 이러한 현상으

로 자녀는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관계 유지에 문제를 갖게 된다. 또한 위축과 우울·불안을 겪게 되면서 부 또는 모의 부재로 인해 심리·사회적 문제와 정서적인 문제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이혼율이 높아짐으로 인하여 이러한 영향을 받는 자녀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두 번째로 사회적응문제이다. 한부모가정의 자녀들이 이혼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이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신에게 부 또는 모가 없다는 사실을 숨기기를 원하므로 자신의 어려움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이나 전문가로부터의 도움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사회의 부정적 시각과 편견을 인식하고 이 사실을 숨기려 하는 아동들은 교우관계 및 이웃과의 관계도 원만치 못하게 된다. 부자가정의 경우 여아는 남아의 경우보다 사회적으로 적응하는 데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되며, 자존감도 낮게 나타난다. 이는 모의 부재로 인해 역할모델로 삼을 수 있는 대상이 없다는 것과 가사처리 등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 및 부에 대한 원망과 자고에 대한 수치심 등이 아들보다 더 많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모자가정의 아동 또한 아버지로서의 역할까지도 해야 한다는 긴장과 스트레스를 받으며 역할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이들의 지원을 위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아동양육비 지원은, 최저생계비 130%이하의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999년 1.1일 이후 출생한 만 10세미만의 아동이다. 월별 1인당 50,000원이 매월 20일에 지급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 산하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한부모가정의 정서적 지원과 부모자녀 관계 증진, 가족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상담, 문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다. 조손가정

조손가정은 부부의 사별, 이혼, 가출 등으로 인해 가정이 해체되는 상황에서 조부모는 성인자녀를 대신하여 부모역할을 수행하게 되면서 형성된다.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통계청, 2005)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조손가구는 총 58,101가구로 전체 가구의 0.36%에 불과하나, 1995년 35,194가구, 2000년 45,224가구로 10년 동안 65.1%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조손가정의 증가는 가족해체 산물이라는 점과 노년의 준비를 하지 못한 채 노년을 맞이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더욱 늘어난다는 점,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전 준비 없이 여러 가지 가족 문제를 떠맡고 형성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여성가족부, 2007).

조손가정의 조부모는 손자녀와 동거하면서 가족해체 전과 후의 경험으로 인해 나타나는 손자녀의 행동과 정서의 부적응을 대처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나 손자녀들은 조부모를 통해서 안정감을 찾고자 하며 항상 있어주기를 바라고(김혜선, 2004), 이러한 상황에서 조부모는 손자녀 양육에 대한 심리적, 경제적 부담감을 갖게 된다.

2007년 여성가족부는 조손가정에 대한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결과에 나타난 조손가정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조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보면, 조부모의 연령은 70세 이상이 47.6%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43.2%를 차지하였으며, 조부모의 최종학력은 국졸 이하인 경우가 79.5%가 가장 많았고, 중졸인 경우는 13.8%로 비교적 학력 수준이 낮았다. 소득 수준을 보면,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조손가정의 각종 지원금과 소득을 합한 조손가정의 평균 소득이 월 평균 70만원 수준으로 매우 낮았다.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주된 이유로는 친부모의 이혼과 재 경우따득을가족해체인 경우가 45%로 가장 많았으며, 조부모들은 손가들이 양육하고 있는 손자녀 양육에 대해 비교적 긍조부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응답자들은 손가들이 양육하고 있는 손자녀들이 소중한 존재이며, 그 아이로 인해 열심히 살아야할 목표가 생겼고, 그 아이를 보면 손랑스러우며, 손자녀가 붙임성이 있어 즐거 평가주며, 아이의 장래가 기대되고, 그 아이 응와 이야기하는 것을 즐거워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손자녀 양육으로 인해 일이 늘었이로 응답이 51.8%로 반을 넘어 손자녀 양육에 따득을가사 부담이 70만원점의 하나로 밝혀졌고, 손자녀 양육 이후 양육비할 목표가경제적 부담과 고령야할 목표가양육의부으로 평가크게 느끼고 있는 것야할 나타재들은 따라서 이들이 으로워하는 봐으로 지적표가양육비와 양육에 따득을노동의 증가, 그리고 손가이 양육할한 존없을 경우에 대한 우려를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더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통해 조손가정이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이혼율의 증가로 인한 가족해체라는 사회문제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의 하나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여성가족부, 2007)고 지적하고 있다.

라. 농어촌가정

사회가 새롭게 변화함에 따라 농어촌 지역은 도시지역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변화해왔다. 인구가 적고 지역이 넓으며 아동인구 밀도가 낮으며 육아지원기관이 모든 면지역에 균일하게 설치되어 있지 않아 수요자에게 적절한 육아지원서비스가 제

공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도시지역과는 다른 지원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농어촌지역의 인구 특성을 보면 0~9세 아동인구는 1975년~1985년 사이에 13.3%포인트가 감소되고, 1995년~2005년 사이의 10년 동안에는 1.4%포인트가 감소하였다. 아동수의 폭이 줄어든 이유는 더 이상 줄어들기 힘들 정도의 최저수준에 도달, 그 감소의 폭이 둔화되었다고 추측된다(재인용, 김은설·이정원·지성애·이세원, 2007).

김은설 등(2007)의 농어촌지역 육아지원 방안 연구를 보면, 농어촌지역의 가구의 특성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높은 조부모 동거율이다. 긍정적인 면으로 보면, 확대가족의 형태로 아동의 사회화를 돕는다고 할 수 있겠으나, 이러한 가정의 아동은 이혼이나, 별거 등 가족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둘째,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인 경우가 많다. 농어촌 지역을 포함한 읍·면 지역은 아동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도시지역보다 평균적으로 낮다. 또한 읍면지역 취업모의 근로시간이 도시지역보다 높다는 것은 육아지원을 필요로 하는 요구가 타 지역에 비해 높음을 짐작케 하는 부분이다. 또, 읍면지역의 가구는 배우자부재비율과 부모의 유병율도 도시지역보다 높은데, 가구 내 어떤 인력보다도 부모가 아동 양육에 있어 중요한 자원임을 감안한다면 농어촌을 포함한 읍면지역의 아동이 처해있는 양육환경의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다문화가정의 증가이다. 이미 다문화가정에서 밝혔듯, 농어촌에서 결혼 이민자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1990년19반 이후의 급격한 현상이다. 따라서 현재 농어촌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들은 영유아부터 최고 중학교 정도까지의 연령분포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결혼 이민자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은 농어촌 지역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이들의 자녀가 가진 특별한 요구들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을 쏟게 한다(김은설 외, 2007).

마. 다문화가정

최근 90일 초과 국내거주 외국인주민(국적취득자, 불법체류자 포함)은 891,341명으로 전체 인구의 1.8%에 해당하고 있다. 이 중 주요 지원 대상인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국제결혼이주자 및 혼인귀화자) 및 자녀 등은 2008년 5월, 640,119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의 7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007년 59.6%에 비해 빠르게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국제결혼은 1990년대부터 급증하기 시작하였으며, 실제적으로 지

난 10여 년 동안 한국 농촌 사회 변화 중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다인종 다문화사회로의 급속한 진전이다. 비단 농촌 사회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체적으로 볼 때에도 국제결혼 건수는 4,3122건으로 전체 결혼 신고 건수의 13.6%를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2005). 행정안전부의 외국주민 실태조사(2008)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2008년도 기준, 58,007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의 6.5%이며, 2006년 25천명에서 2007년 44천명, 2008년에는 58천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6세 이하 아동비율은 57.1%를 차지하고, 12세 이하가 32.2%로 전체의 89.3%를 차지하여, 이런 추세라면 2020년에는 20대 한국인 5명 중 1명, 신생아 중 3분의 1이 국제결혼가정의 자녀일 것으로 추정된다(김혜숙, 2008). 이는 결정적 시기인 아동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교육적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추이를 볼 때,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교 아동에 대한 관련된 시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만 6세 이하 다문화가정 아동의 부모 출신국별 분포는 조선족, 베트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전체 국제결혼가정 자녀 중 어머니가 외국인인 경우가 83.7%(6,695명)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행정안전부, 2008). 이에 한국어가 미숙한 외국인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는 자녀들은 언어 발달 지연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코시안 아동 사례 연구(오성배, 2005)에 따르면, 일상적인 의사소통에는 큰 무리가 없으나 독해, 어휘력, 쓰기, 작문 능력이 일반 가정 아동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언어 발달 지연 및 문화 부적응으로 인해 학교 수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며, 지나치게 소극적이거나 반대로 폭력성 또는 과잉행동장애(ADHD)를 보이는 등 정서장애도 나타나고 있다.

행정안전부(2008)의 조사에 따르면 2008년 전체 외국인주민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65.9%가 거주하고 있어 수도권 집중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국제결혼이주자의 거주지는 경기 27%(27,770명), 서울 23.4%(24,048명), 인천 5.9%(6,068명) 등 56.3%로 역시 수도권의 비중이 높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전국 교육청 단위 조사에 의하면, 유치원에 다니는 다문화가정 유아는 2007년 5월 기준으로 총 2,929명으로 파악되고 있고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 현황은 현재 이용 가능한 통계자료가 없으며 2009년도 보건복지가족부의 다문화가정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될 예정이다(문무경·조혜주, 2007).

이러한 다문화교육취학아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주무부처는 보건복지가족부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통해

아동양육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다문화가족 밀집지역에 다문화 특성화 보육시설 지정 및 특별활동 프로그램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다.

정책연구들의 주요 결과 중 취학 전 아동의 육아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정의 영유아가 일반가정 영유아에 비하여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육아지원기관 이용률이 상당히 낮고, 주양육자는 양부모 모두이며 육아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설동훈, 2005; 2006). 다문화가정 영유아는 전반적으로 인지, 언어, 사회발달 수준에 있어서 일반가정의 영유아보다 다소 낮은 편이며, 부모들은 자녀의 학습 및 생활지도에 있어서 지원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은 가정방문 형태의 지원서비스를 가장 선호하며, 한국어와 자국어 공용의 정보를 제공받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전혜정 외, 2008). 무엇보다도 다문화가정 영유아가 기관에 잘 적응하는 경우는 교사의 도움이 큰 역할을 한다는 공통된 연구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바. 요약 및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저소득 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농어촌가정, 다문화가정의 특성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시사한다.

첫째, 가정의 저소득은 교육취약계층의 가장 대표적인 특성으로 경제적, 물질적 결핍은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며, 특히 아동 초기의 빈곤은 신체발달을 비롯하여, 인지, 사회, 정서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본 보고서에서 취약계층의 유형으로 분류한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농어촌가정, 다문화가정도 대부분 저소득 가정에 속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소득 가정에 대한 교육적 지원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함께 가족기능의 약화로 인해 비롯되는 자녀양육의 어려움, 차별적인 시선으로 정신적인 고통 등의 문제가 수반된다. 또한 취약한 환경에서 오는 정서발달의 문제, 사회 부적응의 문제 등이 발생된다. 따라서 경제적 지원과 함께 가족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서비스 지원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 농어촌 지역에는 저소득 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 뿐 아니라 가족유형의 특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본 절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교육취약계층 유형을 저소득, 한부모, 조손, 농어촌, 다문화가정으로 구분하였으나, 각각의 유형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몇 가지 특성들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인 경제적 지원과 함께 각 유형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우리나라 교육취약계층 유아교육비 지원 현황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가족부, 농림수산식품부는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영유아의 교육비 및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의 유아교육비 지원 예산은 총 5,350억원이며, 보건복지가족부의 영유아보육료 지원 예산은 1조 2,822억원이며, 농림수산식품부의 영유아양육비 지원 예산은 813억원이다. 각 항목별 세부 예산은 다음의 표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II-3-1〉 영유아 교육비·보육료 지원 예산(2007~2009)

단위: 백만원(천명)

부처	구분	2007	2008	2009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비지원	국고 207,800 지방비 207,800	국비 26 지방비 400,000	국비 26 지방비 535,000
	3-4세아 차등교육비	128,200(168)	139,457(130)	176,660(125)
	무상교육비	75,100(152)	205,288(133)	269,462(140)
	두자녀 이상 교육비	4,500(10)	11,483(17)	10,468(10)
	종일반비	-	-	78,413(133)
보건복지가족부	보육료지원	593,605	807,851	1,282,168
	차등보육료	409,004(564)	603,132(621)	1,013,586(739)
	5세아무상보육료	130,307(152)	125,512(130)	135,600(136)
	장애아 무상보육료	32,403(17)	31,281(15)	49,040(16)
	두자녀이상 보육료	21,891(40)	47,926(70)	83,942(100)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업인 영유아양육비지원	101,488	82,216	81,296
	시설이용아동	국비 26,783 지방비 26,783	41,108	국비 27,797 지방비 27,797
	시설미이용아동	국비 23,961 지방비 23,961	41,108	국비 12,851 지방비 12,851

주: 1) 2009년 차등보육료에 기본보조금 229,800백만원 포함
2) 2007년 유아교육비 항목별 지원액은 국고와 지방비의 각 금액임.
3) 농림수산식품부는 '06년부터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을 도입하여 추진하였으며, '08년부터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사업(시설이용)과 통합하여 시설미이용으로 구분 운영

자료: 1) 교육인적자원부(각년도), 유아학비(교육비) 지원계획.
2) 여성가족부(2007, 2008)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가족부(2008). 2009년 예산 관련 내부자료.

〈표 II-3-2〉 연도별 교육비·보육료 지원 단가

단위: 원

<table>
<tr><th>구분</th><th colspan="3">2007</th><th colspan="3">2008</th><th colspan="3">2009</th></tr>
<tr><td rowspan="3">3-4세아
차등교육비</td><td></td><td>국공립</td><td>사립</td><td></td><td>국공립</td><td>사립</td><td></td><td>국공립</td><td>사립</td></tr>
<tr><td>3세</td><td rowspan="2">53,000</td><td>180,000</td><td>3세</td><td rowspan="2">55,000</td><td>185,000</td><td>3세</td><td rowspan="2">57,000</td><td>191,000</td></tr>
<tr><td>4세</td><td>162,000</td><td>4세</td><td>167,000</td><td>4세</td><td>172,000</td></tr>
<tr><td rowspan="2">5세아
무상교육비</td><td></td><td>국공립</td><td>사립</td><td></td><td>국공립</td><td>사립</td><td></td><td>국공립</td><td>사립</td></tr>
<tr><td>5세</td><td>53,000</td><td>162,000</td><td>5세</td><td>55,000</td><td>167,000</td><td>5세</td><td>57,000</td><td>172,000</td></tr>
<tr><td rowspan="3">두자녀 이상
교육비</td><td></td><td>국공립</td><td>사립</td><td></td><td>국공립</td><td>사립</td><td></td><td>국공립</td><td>사립</td></tr>
<tr><td>3세</td><td rowspan="2">53,000</td><td>90,000</td><td>3세</td><td rowspan="2">55,000</td><td>93,000</td><td>3세</td><td rowspan="2">57,000</td><td>95,500</td></tr>
<tr><td>4세</td><td>81,000</td><td>4세</td><td>84,000</td><td>4세</td><td>86,000</td></tr>
<tr><td rowspan="2">종일반비</td><td colspan="3" rowspan="2">-</td><td colspan="3" rowspan="2">-</td><td></td><td>국공립</td><td>사립</td></tr>
<tr><td>3,4세</td><td>30,000
이내</td><td>50,000
이내</td></tr>
<tr><td rowspan="6">차등보육료</td><td colspan="2"></td><td colspan="2">지원시설</td><td>미지원시설</td><td colspan="2"></td><td>지원시설</td><td>미지원시설</td></tr>
<tr><td>0세</td><td colspan="2">361,000</td><td>0세</td><td colspan="2">372,000</td><td>0세</td><td>383,000</td><td>733,000</td></tr>
<tr><td>1세</td><td colspan="2">317,000</td><td>1세</td><td colspan="2">327,000</td><td>1세</td><td>337,000</td><td>506,000</td></tr>
<tr><td>2세</td><td colspan="2">262,000</td><td>2세</td><td colspan="2">270,000</td><td>2세</td><td>278,000</td><td>390,000</td></tr>
<tr><td>3세</td><td colspan="2">180,000</td><td>3세</td><td colspan="2">185,000</td><td>3세</td><td>191,000</td><td>191,000</td></tr>
<tr><td>4세</td><td colspan="2">162,000</td><td>4세</td><td colspan="2">167,000</td><td>4세</td><td>172,000</td><td>172,000</td></tr>
<tr><td>5세아
무상보육료</td><td colspan="3">162,000</td><td colspan="3">167,000</td><td colspan="3">173,000</td></tr>
<tr><td rowspan="3">장애아
무상보육료</td><td colspan="2">교사대아동비율</td><td colspan="2">전담, 통합 교사 별도 배치, 교사대 아동비율</td><td colspan="2">지원시설</td><td colspan="2">미지원시설</td></tr>
<tr><td>준수</td><td>미준수</td><td>준수</td><td>미준수</td><td colspan="2" rowspan="2">386,000</td><td colspan="2" rowspan="2">739,000</td></tr>
<tr><td>361,000</td><td>해당반별 보육료 (2세: 지원단가, 3세이상: 시도지사 고지액)</td><td>372,000</td><td>해당반별 보육료 상한액</td></tr>
<tr><td rowspan="5">두자녀이상
보육료</td><td>0세</td><td colspan="2">181,000</td><td>0세</td><td colspan="2">186,000</td><td>0세</td><td colspan="2">193,000</td></tr>
<tr><td>1세</td><td colspan="2">159,000</td><td>1세</td><td colspan="2">164,000</td><td>1세</td><td colspan="2">169,500</td></tr>
<tr><td>2세</td><td colspan="2">131,000</td><td>2세</td><td colspan="2">135,000</td><td>2세</td><td colspan="2">139,000</td></tr>
<tr><td>3세</td><td colspan="2">90,000</td><td>3세</td><td colspan="2">93,000</td><td>3세</td><td colspan="2">95,500</td></tr>
<tr><td>4세</td><td colspan="2">81,000</td><td>4세</td><td colspan="2">84,000</td><td>4세</td><td colspan="2">86,000</td></tr>
</table>

주: 1) 차등교육비·보육료, 두자녀교육비·보육료는 상한액임.
2) 유치원 종일반비는 지원금액 이내에서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경비가 지원됨.

자료: 1) 교육인적자원부(각년도), 유아학비(교육비) 지원계획.
2) 여성가족부(2007, 2008).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가족부(2008). 2009년 예산 관련 내부자료.

〈표 Ⅱ-3-3〉 농어업인 자녀 교육비·보육료 지원 단가

단위: 원

구분	2007		2008		2009	
시설이용아동	0세	253,000	0세	260,000	0세	268,000
	1세	222,000	1세	229,000	1세	236,000
	2세	183,000	2세	189,000	2세	195,000
	3세	126,000	3세	130,000	3세	134,000
	4세	113,000	4세	117,000	4세	120,000
	5세	162,000	5세	167,000	5세	172,000
					6세	172,000
시설미이용아동	0세	126,000	0세	130,000	0세	134,000
	1세	111,000	1세	115,000	1세	118,000
	2세	92,000	2세	95,000	2세	97,000
	3세	63,000	3세	65,000	3세	67,000
	4세	57,000	4세	59,000	4세	60,000
	5세	81,000	5세	84,000	5세	86,000

주: 1) 2009년 월지급한도액은 2009.3.1~2010.2.28 적용하여 집행
2) 2009년 시행지침은 동일연령을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변경 (매년 3월 1일에서 익년 2월 28일까지로 동일연령으로 하던 것을 초중등교육법 개정('08.5.27)에 따라 변경

4. 국내 취약계층 영유아 지원 사업 현황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중앙정부 사업과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주도 사업으로 나누어, 중앙정부의 사업으로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과 영유아기본학습능력발달지원사업, 보건복지가족부의 드림스타트 사업을 살펴보았고,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주도 사업으로 경기도 위스타트 사업과 삼성 포괄 보육서비스를 사업내용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가. 중앙정부 사업

1)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가) 개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은 교육취약 아동·청소년의 교육 기회, 과정, 결과에서 나타나는 주요 취약성을 최대한 보완하기 위한 교육, 문화, 복지 등의 통합지

원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학교가 중심이 되는 지역교육 공동체 구축을 통해 학습, 문화, 심리, 정서, 보건 등 삶 전반에 대해 지원함으로써 교육취약 아동·청소년의 교육적 취약성을 해소해 나가고자 하는 데 주요 특징이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09).

교육복지투저우선지역 지원사업은 계층 간 소득격차의 심화, 가정의 기능 약화, 급격한 도시화 등이 초래하는 사회통합 위기를 맞아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시작되었다. 지역의 경제적 여건 차이로 인해 교육의 여건 격차 또한 확대되고 있고, 교육 문화적 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교육 및 문화적 기회불평등 완화정책 추진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사업의 필요성으로 제시되었다(김정원·최영태·박인심·김영애, 2007).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교육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저소득층 아동지원으로서, 2003년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출발하였다. 당시 주무 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보건복지부(보건복지가족부), 문화관광부 등 7개 부처가 참여하여 사업기본방향을 합의하는 등 초기 단계에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른 기본적 욕구 해결과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학력향상, 정서발달, 심성계발, 건강증진, 방과 후 보육서비스 등 다양하고 통합적인 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국가의 조기 개입을 통해 저소득층 자녀의 취약한 환경에 대한 국가의 조기 개입을 통해 출발점 평등을 구현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장명림, 2006).

나) 사업 내용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내용은 학습증진, 문화·체험활동, 정신건강을 위한 심리·정서 발달지원, 복지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 활성화의 영역으로 구분된다. 기초 문해력 수준,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학습결손 치유·예방, 학습동기 유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방과 후 수업, 주말·방학 학습지원, 학습 준비물 지원, 유명인사 초청강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문화활동 및 체험 학습 지원 등 문화, 체험활동을 지원한다. 심리·정서발달을 위해 교육과정과 연계된 문화활동, 심리·정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멘토링, 상담, 가족기능 강화 프로그램, 민간기업 연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역 네트워크와 연계된 보건(목욕서비스, 안경 제공 등)·의료 서비스(치과 치료) 지원하고, 지역 내 운영 중인 지역아동센터, 민간 공부방과의 연계 협력을 통해 부모와 학교의 보호 없이 학교 밖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한다. 또한 영유아 교육·보육 프로그램에 대한 실질적 접근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을 한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특징 중 하나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내 영유아 교육·보육지원 활성화를 위해 '유아교육기관과 보육기관 간의 협의체제 구축'을 사업초기부터 계획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앞서 지적했던 것처럼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가 사업설계 단계부터 공동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교육여건 개선지원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교육청)가, 보육활성화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적극 지원할 것 등의 내용이 문건에 담겨 있다. 또한, '지역별 영유아 교육·보육기관 협의체제'를 마련하여 교육·보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질 관리, 연령별·프로그램별 기관간 역할분담, 외부 기관(대학, 사회복지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체제 공동 구축을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 간의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 기구는 학부모, 외부 전문가, 교육청·구청 담당자, 유치원, 보육시설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다.

2) 영유아 기본학습능력발달 지원사업

가) 개요

영유아 기본학습능력발달 지원사업은 유아기에 갖추어야 하는 기본

능력이 부모의 경제력 및 다문화 등 가정 배경에 따라 소홀히 되는 현실을 개선하고 발달 지연 유아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지원 서비스이다. 생애초기에 인적자원개발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생애초기 기본학습능력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생애에 걸쳐 가장 핵심적 능력인 언어·인지·사회·정서 발달 진단 및 결손에 대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교육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들의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거의 방치 되었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희망유아교육사가 직접 집으로 찾아가 부족한 분야에 대한 맞춤교육을 실시하여 뒤처진 발달 수준을 정상발달 수준으로 끌어 올리게 된다.

영유아 기본학습능력발달 지원사업의 사업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관 미이용 유아 및 유치원 유아 중 발달 지연 유아의 발달 격차 및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기본학습능력발달 교육을 지원하고 둘째, 발달지연 유아의 부족한 부분을 정상 유아와 같이 향상시켜 주어 유아에게는 자긍심, 학부모에게는 유아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며, 셋째, 희망유아교육사를 활용하여 발달이 지연된 유아의 발달격차 및 학습격차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둔다.

나) 사업내용

영유아 기본학습능력발달지원사업에서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기본학습능력 발달 결혼의 조기발견 및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한다. 이미 영유아 언어, 인지, 사회·정서 발달 평가도구, 언어, 인지, 사회·정서 발달 지원 프로그램, 자녀양육 역량 강화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다문화가정 부모자녀 통합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은 보급되어 있다. 또한, 기본학습능력 발달 지원을 위한 핵심 정책 전달 주체인 원장, 원감, 교사 등을 대상으로 전문 연수를 실시한다.

각 프로그램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4-1〉 영유아 언어, 인지, 사회·정서 발달 평가도구

평가도구 목적	- 언어·인지·사회·정서 발달 영역의 연계성 있는 통합 평가가 가능하고, 교사가 일과 중 용이하게 관찰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된 영유아발달 평가 도구 개발
평가도구 특징	- 언어·인지·사회·정서 발달 관련 일상적인 유아의 말고 행동을 중심으로 교사가 체계적인 관찰을 할 수 있도록 구성 - 놀이 및 활동 중심 문항으로 구성 - 일상에서 나타나는 유아의 발달을 다각적·역동적으로 평가
구성	- 교사용 지침서1권 - 발달평가도구 기록지(연령별3장: 관찰형, 단서제시형, 과제제시형) - 과제 자료 11종

자료: 교육과학기술부·육아정책개발센터(2009). 희망유아교육사 연수 자료집.

〈표 II-4-2〉 언어, 인지, 사회, 정서 발달 지원 프로그램

프로그램 목적	- 언어·인지·사회·정서 발달 영역의 연계성 있는 통합	- 유아기 자녀의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부모의 지식, 태도, 기술 함양
프로그램 특징	- 부모와 0~만5세 자녀 대상 - 각 가정에서 실시 - 부모와 자녀, 그 외 가족참여 - 유아교육기관에서 부모와 자녀에게 적절한 활동 제공 및 활용 격려	- 0~만5세 자녀를 둔 부모대상 - 기관(유치원, 어린이집, 사회기관)에서 실시 - 부모교육자, 부모 참여 - 유아교육기관에서 부모가 원하는 주제로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구성	- 전체 프로그램 매뉴얼 - 영역별 활동집(언어, 인지, 사회, 정서발달 지원 활동 120개)	- 전체 프로그램 매뉴얼 - 부모교육자 강의지침서(20개 주제) - 부모용 소책자(20개 주제)

자료: 교육과학기술부·육아정책개발센터(2009). 희망유아교육사 연수 자료집.

〈표 Ⅱ-4-3〉 자녀양육 역량 강화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구분	영역별 활동 프로그램	일반적인 부모역할 지원 프로그램
프로그램 목적	- 가정에서 영유아기 자녀의 언어, 인지, 사회, 정서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활동 개발	- 유아기 자녀의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부모의 지식, 태도, 기술 함양
프로그램 특징	- 부모와 0~만5세 자녀 대상 - 각 가정에서 실시 - 부모와 자녀, 그 외 가족 참여 - 유아교육기관에서 부모와 자녀에게 적절한 활동 제공 및 활용 격려	- 0~만5세 자녀를 둔 부모 대상 - 기관(유치원, 어린이집, 사회기관)에서 실시 - 부모교육자, 부모 참여 - 유아교육기관에서 부모가 원하는 주제로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구성	- 전체 프로그램 매뉴얼 - 영역별 활동집(언어, 인지, 사회, 정서 발달 지원 활동 120개)	- 전체 프로그램 매뉴얼 - 부모교육자 강의지침서(20개 주제) - 부모용 소책자(20개 주제)

자료: 교육과학기술부·육아정책개발센터(2009). 희망유아교육사 연수 자료.

〈표 Ⅱ-4-4〉 다문화가정 부모자녀 통합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평가도구 목적	-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자녀의 언어(한국어)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부모-자녀-교사 상호작용을 통해 다문화가정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언어적 자극 및 경험 보충, 유치원생활 및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
평가도구 특징	- 부모와 유아를 대상으로 한 통합교육 - 한국어 구성 원리 교육 - 한국문화 및 생활문화를 포함 - 한국어 수준 측정을 통한 수준별 학습 - 놀이, 챈트 및 노래를 통한 한국어 교육
구성	- 한국어교육 활동집 9권 ※유아용, 어머니용, 유아-어머니 상호작용별로 1,2,3,수준 각 1권씩 - 교사용 지침서 9권 ※유아용, 어머니용, 유아-어머니 상호작용별로 1,2,3수준 각 1권씩

자료: 교육과학기술부·육아정책개발센터(2009). 희망유아교육사 연수 자료집.

3) 드림스타트 사업

가) 개요

빈곤아동을 대상으로 한 집중적이고 예방적인 인적자본 개발을 통해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해 나가는 아동정책으로 시작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은 빈곤 아동들의 신

체적·정서적·사회적 능력 등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는 사전 예방적·통합적 아동보호 서비스로 능동적 복지를 구현하고 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임산부와 12세 이하 아동가구를 중심으로 아동들에게 건강·복지·보육 등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고 부모들에게는 직업훈련·고용촉진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기능을 회복시켜 공평한 양육여건을 보장하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다.

나) 사업내용

드림스타트 사업의 내용을 보면, 빈곤아동 및 그 가족에게 보건·복지·보육 등 세 영역을 맞춤형 통합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역별 서비스 목적과 추진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건강영역의 주된 목적은 저소득 가정 임산부의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고 모성 건강을 강화하며, 아동의 신체·정서적 건강 발달 증진에 있다. 건강서비스의 기본방향은 임신 단계에서부터 출산 후 성장할 때까지 필요한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추진 전략으로는 임산부, 영유아, 아동 등 대상자의 요구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되 직접서비스[1], 연계서비스[2], 혼합서비스[3] 방식으로 구분해서 지역사회 자원 유무에 따라 탄력적으론 운영한다는 것이다. 서비스 내용으로는 가정방문 보건서비스, 정신건강 및 발달 스크리닝,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프로그램이 있다.

복지서비스의 주된 목적은 저소득층 아동과 가족의 생활안정, 삶의 질 개선, 빈곤 대물림 차단을 위한 종합적이고 능동적인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영역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직접서비스, 연계서비스, 혼합서비스 등의 방식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 서비스 내용으로는 학교 내 교육복지프로그램 제공, 방과 후 프로그램을 지원 및 관리가 포함된다.

보육·교육서비스의 주된 목적은 저소득 가정 아동의 보육 및 교육에 대한 보충적 서비스 측면에서 아동의 개인적인 발달 차이를 충분히 고려한 개별적 접근을 통해 아동의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건강하고 조화로운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전인적 성장 발달을 지원하는 것이다. 서비스 내용으로는 영유아 교육

---

1) 대상자에게 센터에서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로 건강상담, 보건 교육 등이 있음.
2) 대상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지역사회의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민간병의원, 각종 관련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서비스를 말함.
3) 직접서비스와 연계서비스를 혼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함.

중재 프로그램, 가정방문/시설 내 부가적 서비스 제공, 책읽어주기, 북스타트 등 발달지원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연령별 해당 프로그램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4-5〉 드림스타트 사업의 연령별 서비스 예시

구분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분야
출산전 임산부	건강한 부모되기(부모교육)	- 영양관리, 알코올 섭취, 건강관리에 대한 교육 실시	건강
	Mom Care	- 임산부와 의사를 연결하여 필요한 의학정보 제공	건강
	위대한 탄생교실	- 임산 중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정보제공(6회)	건강
	의료비 감면 연계	- 차상위층 가정 대상 의료비 감면 연계	복지
	행복한 산모, 건강한 출산	- 매주 2시간씩 산모8-10명이 그룹을 이루어 간호사와 만나 정보 교류 및 지지, 격려	건강
출산후 임산부	신생아 건강체크	- 신생아 건강 스크리닝: 병원연계	건강
	신생아 부모교실	- 신생아 부모대상 부모교육	건강
	빌려드려요	- 모유착기등 신생아용품 대여	건강
	면역검사	- 아동면역검사 및 지속적인 면역체계 관리	건강
	보건소 모자보건사업연계	- 미숙아의료비지원, 선천성대상이상 검사 및 특수조제분유 지원, 선천성 난청 조기검진,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모유수유 클리닉	건강
	모유수유장려	- 모유수유 교육 및 용품지원	건강
	임산부 멘토링	- 출산경험이 있는 멘토와의 정보교환 및 심리적 지지	건강
영아기	영유아 건강검진 연계	- 성장 및 발달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급사증후군, 청각 및 시각이상, 치아우식증 등 고위험군 선별: 의료기관 연계	건강
	예방접종실시 연계	- 보건소 연계로 무산 예방접종 실시	건강
	올바른 이유식 부모교육	- 성장단계별 유아식이의 도입방법 및 편식예방을 위한 식이지도	건강
	영아기 부모교육	- 영아발달 및 육아정보제공	건강
	그림책 이용활동	- 그림책을 활용한 아동의 신체, 사회, 정서, 인지, 언어발달 증진 활동 프로그램	보육/교육
	일상생활훈련	- 아동의 건강한 생활습관을 위한 프로그램	보육/교육
	애착증진	- 모자간의 애착증진 프로그램	보육/교육

(표 계속)

구분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분야
유아기	찾아가는 이동식 도서관 및 장난감 대여	- 접근의 용이성을 위한 책, 장난감 대여	보육/교육
	아동권리 및 문화체험	- 아동 권리 인지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복지
	아동안전교육	- 유아아동 안전의식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 프로그램	복지
	전문상담 및 치료	- 아동문제 조기발견 및 놀이치료, 언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 전문상담 및 치료센터 연계	복지
	동화책을 이용한 활동	- 동화를 이용한 인지능력 향상 프로그램	보육/교육
	기초학습 지도 및 입학준비	- 한글, 수 중심의 학습지도 및 학교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보육/교육
	문화공간체험 활동	-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등의 체험활동	복지
	경제교육: 시장놀이	- 경제개념 확립 및 향상 프로그램	복지
	사회성증진 프로그램: 나누기	- '나눔'의식 확립 및 향상 프로그램	복지
	다중지능검사	- 아동의 강점 및 잠재력에 대한 파악: 기관연계	보육/교육
	대그룹 경험활동	- 그룹 속에서 놀이몰입 경험 프로그램	복지
	방과 후 및 야간보육	- 정규보육시간 이외 아동 보육: 기관연계	보육/교육
	장애아 통합교육	- 장애아통합교육 및 반편견: 권리교육	보육/교육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9). 2008 드림스타트 사업지원단 운영결과 보고서.

나.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주도 사업

1) 위스타트 사업

가) 개요

과거의 한국사회에서의 아동기의 빈곤이 단순히 경제적 결핍으로 인하여 일정 기간 동안 생활의 불편을 겪는 것을 의미하였다면, 이제 한국사회에서도 빈곤한 가정에 태어난 아동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마저 제공받지 못하여 빈곤으로부터 탈출할 가능성이 점점 작아지는 빈곤의 대물림 현상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아동의 빈곤은 단순한 경제적 결핍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으로 미래의 희망을 잃게 만드는 빈곤문화로 재생산될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특히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는 아동 하나하나의 사회적 가치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빈곤한 가정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인적자본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기회마저 제공받지 못한다면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사회의 미래는 아동에 대한 적절한 양육과 교육의 제공을 할 수 없는 가정에 태어난 아동일지라도 건강하고 건전하게 발달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사회적 투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종래의 한국의 아동복지 정책과 서비스는 문제가 심화된 후에 단편적으로 개입하는 사후대처적이고 범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여 빈곤한 아동이 우리사회의 건강하고 건전한 성인으로 발달 할 수 있도록 건강·복지·교육의 통합적인 측면에서 평등한 출발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이 절실히 요구되는 가운데 위스타트 사업이 시작되었다.

나) 사업내용

위스타트 사업은 복지, 보건, 보육·교육으로 나누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복지서비스에는 통합적 사례관리, 학교사회복지, 방과 후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포괄적 욕구를 가진 빈곤아동과 가족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의 보호프로그램을 구성하고, 분야별 서비스, 기관별 서비스의 연계·조정을 위한 협력체계 구성, 운영한다. 또한 지역 내 빈곤아동과 가족을 위한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민관통합의 팀 접근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실무자 대상 사례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보건서비스에는 가정방문간호 사업이 있는데, 이는 빈곤아동과 건강하게 태어나고 성장하여 타고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아동보건 관리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신혼부부와 임산부의 자가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을 통하여 성장발달에 문제가 있는 대상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전문기관에 의뢰 및 관리한다. 또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실재적, 잠재적 합병증을 최소화하며, 영유아 사망원인 1순위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환경 조성하고자 한다.

보육 및 교육 서비스는 만18개월부터 36개월까지의 영아와 영아의 양육자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저소득층 부모와 영아를 위해서 교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영아의 발달을 촉진하는 활동을 소개하고, 부모에게 어떻게 영아 자녀와 활동을 해야 하는가를 모델로 보여주어 교사가 다녀간 후에 부모가 직접 한 주간 영아와 놀이하는

법을 해보도록 격려하는 프로그램 시행한다. 교육 활동은 총 53회와 1년여의 기간에 걸쳐 실시하며, 활동의 내용은 인지활동, 언어 활동, 신체 활동, 음악·미술 활동, 기본생활습관, 실외 활동의 6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부모지원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유아용 기관방문 소집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만 3, 4, 5세의 취학 전 유아의 혼합연령 집단을 대상으로 위스타트의 기관 방문교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유아가 다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그림책을 활용하여 3-7명의 소집단으로 활동을 진행한다. 활동에 사용된 그림책은 유아1명당 1권씩 가정에 제공함으로써 가정의 교육환경을 증진하고 가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책을 읽도록 격려하며 부모가 함께 유아의 교육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교육활동은 총 52회로 1년여의 기간에 실시된다.

〈표 II-4-6〉 위스타트 프로그램

구분	지원사업	해당 프로그램
보건: 건강지킴이 만들기	정신보건사업	- 아동행동발달척도검사 - 임상심리검사(부모교육) - 정서학습장애아동 치료
	건강검진사업	- 아동 이동종합검진 - 예방접종(간염, 독감 등) - 응급의료비 지원
	구강검진사업	- 치아 홈 메우기 - 불소 겔 도포 등
	방문보건사업	- 조기 발달 검사 - 영양보충사업 - 허약아동 한약 제공 등
보육·교육: 공정한 교육출발선 만들기	기초학력증진사업	- 공부방 운영 및 연계지원 - 야간방임 공부방 지원 - 학습지 후원 및 지원 - 소그룹 학습지도 등
	학교사회복지사업	- 개별 및 집단상담 - 학교적응력향상 - 1대1 학습지도(멘토) - 성교육 학교폭력예방
	지역보육사업	- 취학전 학습준비 - 영아 가정방문 교육 - 유아 기관방문 교육 - 주말프로그램

(표 계속)

구분	지원사업	해당 프로그램
	햇빛모둠	- 수영, 태권도, 영어, 아동미술, 피아노, 컴퓨터, 오카리나 등
복지: 행복한 세상 만들기	통합적 사례관리	- 아동 및 가족의 문제파악 - 보건·교육·복지 분야 맞춤형 사례관리 회의(월 2회)
	가족기능 회복	- 희망의 집 미기 - 부모교육, 기술교육 - 가족 나들이 및 캠프 등
	문화체험	- 신나는 토요일 운영 - 가족 및 아동 공연 관람
	We 천사되기	- 러브 러브 멘토멘티 - 후원사업 -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

자료: 경기도 군포시청(2008). 내부자료.

2) 삼성 포괄 보육서비스

가) 개요

삼성 포괄 보육서비스는 빈곤아동 문제와 예방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던 삼성복지재단이 "달동네 저소득 빈곤탈출"이라는 삼성보육사업의 근본취지를 위해 저소득 가정 어린이를 위한 포괄적 보육 프로그램 개발과 필요성에 의해 추진되었다. 1999년부터 2004년까지 6년에 걸쳐 아동학, 유아교육학, 사회복지학, 사회학, 여성학 전공자로 연구진을 구성하여 다각적인 관점에서의 '삼성 포괄적 보육 서비스'를 개발하게 되었다. 삼성 포괄 보육서비스는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축으로 하되, 부모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을 통해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즉, 저소득 가정의 어린이를 위한 보육 서비스는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지원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포함하는 것이다(김명순·이미화, 2005).

삼성 포괄 보육서비스의 주목표는 사회경제적 또는 가족의 문제로 인해 총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정의 유아에게 우수한 보육환경에서 현재 필요로 하는 경험을 집중적,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발달 및 학습의 뒤쳐짐 현상을 사전에 예방하고 성장과 발달의 최적화를 꾀하고자 함이다. 또한 부모나 가족에 대한 서비스를 통해 부모의 역할을 향상시키고 가족이나 부모가 유아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

치는 중요한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한다. 유아나 가족의 건강 및 영양, 지역사회 연계서비스를 발굴, 연계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아동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이은해 외, 2008).

나) 사업내용

삼성 포괄 보육서비스는 아동지원 서비스, 가족지원 서비스, 지역사회 서비스, 교사 서비스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아동지원 서비스

아동지원 서비스는 저소득 아동의 행동이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들에게 미흡한 학습영역의 경험을 집중적으로 또는 일반 보육활동에 추가하여 제공한다. 즉 저소득 아동의 정서적 안정감, 놀이몰입, 기본생활습관 증진, 언어 및 인지발달 증진, 친사회성 및 학습에 대한 능동적 참여 등을 촉진하는 보육활동이 교사용 매뉴얼(김명순·이미화, 2005)로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이외에 아동지원 서비스로는 책읽기 멘토링 프로그램, 이미용 서비스, 특기지원 등 각 가정이나 유아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교사나 사회복지사들이 서비스를 개발하여 실시한다. 한편 저소득 아동의 이해와 흥미에 적합한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교사를 위한 교육훈련 및 장학이 원내외에서 이루어진다. 구체적인 아동지원 프로그램의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4-7〉 삼성포괄보육서비스 아동지원 프로그램 사례

목표	내용	교수방법
정서적인 안정감이 있으며 적절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자기를 통제할 수 있다.	- 자기 감정을 조절한다. - 자신감을 갖고 성공하고자 노력한다. - 자기자신을 스스럼없이 표현한다. - 끝까지 과제를 완수한다. - 어려움이 있을 대 적절한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한다.	1. 유아들의 발달수준을 이해하고 그들의 발달수준에 적합한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2. 안전하고 건강하며 교육적인 환경을 구성하고 유지해야 한다. 3. 유아의 흥미에 맞게 놀이활동을 계획하여 구성하고
놀이에 몰입하며 협동 및 극화놀이를 즐긴다.	- 주위의 사건이나 사물에 대해 호기심을 갖는다. - 놀이를 스스로 선택하고, 지속하며 확장한다. - 다양한 놀이에 즐겁게 참여한다. - 협동 놀이를 즐긴다.	

(표 계속)

목표	내용	교수방법
기본생활습관을 바르게 형성하고 자조능력을 기른다.	- 기본 규칙을 알고 실행한다. - 자신의 책임을 알고 수행한다. - 요구를 조절한다. - 손이나 이를 닦고 옷을 단정하게 입는다.	적극적으로 놀이를 안내하고 개입하여야 한다. 4. 유아를 관찰하고 정확히 판단 평가하여 유아 개인에 대한 이해를 하고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5. 온화하고 수용적인 태도로 유아와 행복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상호작용을 해야 한다. 6. 기본생활 습관과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7. 사회적 관계와 태도, 행동에 모델이 되고 적극적인 지도를 하여야 한다. 8. 기본적인 개념과 언어발달을 도울 수 있는 흥미로운 활동을 통합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9. 유아들 부모에 대한 정보와 이해를 가지고 부모를 돕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실행하여야 한다. 10. 유아, 가족, 지역사회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이해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효과적인 의사소통능력을 기른다.	- 다양한 어휘를 이해하고 사용한다. - 주의깊게 필요한 이야기를 듣는다. -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경험, 견해를 상황에 적절히 전달한다. - 발음을 정확하게 보다 긴 문장으로 말한다. - 다른 사람의 지시를 듣고 이해한다.	
읽고 쓰기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한다.	- 인쇄물에 대한 개념을 갖는다. - 책을 다루는 방법이나 책과 관련된 활동에 흥미를 갖는다. - 그림책 이야기나 동시를 이해한다. - 글자에 흥미를 가지고 친근한 단어(자신의 이름 등)을 쓴다.	
기본적인 수과학 개념을 형성한다.	- 간단한 수개념, 일대일 대응을 안다. - 수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 많다/적다 등 사물의 수를 비교하는 용어를 이해하고 사용한다. - 도형, 색깔, 방향, 위치, 크기, 순서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관련 어휘를 이해한다.	
친사회성을 증진하여 또래와의 친근한 관계를 지속하도록 한다.	- 친구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한다. - 타인의 생각과 느낌을 존중한다. - 친구들과 서로 협동한다. - 친구의 어려움이나 감정을 공감하고 도움을 준다.	
새로운 것을 학습하는 것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갖도록 한다.	- 새로운 방식으로 사고하는 것을 즐긴다 - 융통성 있게 대처한다. - 자신의 학습에 적극적,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신체가 건강하며 대·소근육이 정교하게 조절한다.	- 다양한 운동기술을 발달시키고 운동하기를 즐긴다. - 대근육을 균형있게 사용하며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다. - 손과 눈의 협응이 이루어지며, 소근육 사용에 힘이 있고 도구(가위 등)를 정교하게 사용한다.	

자료: 김명순·이미화(2005). 포괄적 보육서비스 - 아동교육 프로그램. 서울: 다음세대.

(2) 부모지원 서비스

부모 지원 서비스는 삼성어린이집에서 부모와 가족을 대상으로 이들에게 현재 필요한 다양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최적화하고자 한다.

〈표 II-4-8〉 삼성포괄보육서비스 부모지원 프로그램 사례

기관명	목적·목표	프로그램내용
B어린이집	1. 부모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킴 2. 자녀양육에대한 실질적인 정보와 지침을 제공하여 자녀양육을 지원함	- 프로그램오리엔테이션 - 나의 자화상 그려보기 - 자녀양육정보 - 부모로서의 가치관 명료화 - 자녀의 성교육 - 부모로서 장점/자신감 찾기 - 문화체험: 가족과 함께 놀이동산 나들이 - 함께 가는 길: 사회적 지지망 확인, 스트레스 완화
C어린이집	1. 부모와 자녀 간의 친밀감 형성 2.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제공 3. 자녀가 기본생활 습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하는 부모의 능력 향상	- 일상대화의 분석 - 효과적인 대화 방법 - 대화의 기본 태도 - 자녀 훈육의 올바른 태도 - 성교육
D어린이집	1. 부모로서의 자신감 향상 2. 유아의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과 다른 사람과 즐겁게 생활하는 태도를 기름. 3. 부모-자녀 간의 관계 강화 4. 부모들 간의 비형식적인 지지와 정보교환 촉진 5. 어린이집-가정 간의 유대강화와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도를 높임	- 친화의 시간: 기관과 부모, 참여한 부모들 간 친밀감 형성하기 - 동화 활동 워크숍 - 조부모-손자녀 가정에서의 조부모 역할 워크숍 - 부모-자녀 대화기법 - 놀이동산 가족나들이 - 사랑의 우체통: 편지를 통해 교사와 자녀에 대해 상담하기 - 자녀와 함께 송편 만들기 - 도자기 굽기 가족 나들이 - 한 해를 마무리하며: 자녀에게 줄 선물 만들기

자료: 김희진(2005). 포괄적 보육서비스 - 부모지원 프로그램. 서울: 다음세대.

부모 지원 서비스를 위해 개발된 진행자 매뉴얼(김희진, 2005)에 따라 각 어린이집에서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부모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부모의 요구와 어린이집의 자원이나 상황에 기초하여 부모개별 상담, 원예활동, 가족문화 체험활동 등 부모지

원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소집단이나 개별적으로 운영한다. 부모지원 프로그램의 목적은 기관마다 매우 다양하나,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하도록 돕는 것, 온 가족의 교육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향상시키도록 돕는 것 등 두 가지 상위목적이 반영될 것을 주문하였다. 이를 기초로 각 어린이집의 실정에 맞게 다양한 부모지원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는데 다음은 그 일부 사례이다.

(3) 지역사회연계 서비스

지역사회연계 서비스는 사회복지사가 투입되어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매뉴얼(삼성아동교육문화센터, 2006)이 개발되어 있다. 아동지원 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연계한 사례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4-9〉 삼성포괄보육서비스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사례

프로그램	목적	대상	장소 (연계되는 지역시설)	수행인력
언어치료 프로그램	언어발달이 늦은 아동을 대상으로 언어진단 및 평가를 통해 언어발달지체 및 언어장애를 조기에 발견하여 그 유형과 언어수준에 적절한 치료 및 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언어지도와 언어발달을 도모하고자 함	사례회의를 통해 치료의 필요성이 제기된 아동	김OO 언어행동교육원	사회복지사 언어치료사 자원봉사자
놀이치료 프로그램	아동이 치료사와 지속적인 안정관계를 통해 타인에 대해 긍정적 감정이 형성되고 정서적 불안정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함.	저소득층 아동 중 놀이지도가 필요한 아동	OO아동가족연구소 OO종합복지관 놀이치료실	사회복지사 놀이치료사 교사
특기지원 프로그램	특정분야에 소질을 보이는 아동이 가정형편이 어려워 소질을 개발하기 어려운 경우, 주변의 교육기관을 연계하여 특기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만 5세반 저소득층 아동 중 의뢰된 아동	OO예술 피아노 학원, OO미술학원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자료: 삼성아동교육문화센터(2006). 포괄적보육서비스 - 지역사회연계프로그램. 서울: 다음세대.

사회복지사는 다양한 문제를 나타내는 아동이나 부모를 대상으로 교사, 원장과 함께 사례회의를 통해 이들의 문제를 진단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지역사회까지 확장하여 다각도로 찾고자 노력한다. 지역사회연계 서비스는 어린이집 기관 내에서만 문제해결을 하던 기존의 관점에서 변화하여 지역사회내의 다양한 전문가나 기관, 인적자원을 적극적으로 찾아 어린이집 아동이나 부모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연계해 주고자 노력한다. 이외에 간호사는 저소득 아동의 건강 서비스를 총괄적으로 담당한다.

5. 국외 취약계층 영유아 지원 사업

가. 미국의 헤드스타트 (Head Start)

1) 사업 배경

1960년대 초 미국사회는 빈곤의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빈곤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아기부터 개입이 필요함을 인식하였다(이미화 외, 2009). 미국 정부는 1964년 존슨 대통령의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빈곤이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경제기회법(Economic Opportunity Act)을 제정하였다. 또한 빈곤 가정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유아교육, 아동발달, 정신지체, 소아과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14인의 헤드 스타트 계획 위원회를 발족하였다. 이 위원회에서는 전인적 아동관을 가지고 다각적인 지원을 하고자 영양, 신체적·정신적 건강, 부모 참여, 가족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 유아교육 등의 여러 방면에 걸쳐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Zigler, Styfco, Gilman, 1993). 이러한 배경에서 1965년 존슨 대통령은 헤드스타트(Head Start) 프로그램을 시작하였고, 이는 유아기 개입에 대한 최초의 포괄적 접근이며 미국 연방 정부 차원의 최초의 프로그램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헤드스타트는 사회적 유능감 성취를 위해 아동과 그 가족의 교육, 건강, 영양, 사회적 서비스, 부모참여를 포함한 서비스에 대한 포괄적이고 다학문적 접근을 강조하는 포괄적 서비스이다(http://eclkc.ohs.acf.hhs.gov/hslc). 또한 가족을 중심으로 하여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기초로써, 아동의 기본적 교육자, 영양사, 옹호자로서의 부모의 역할, 참여 및 지지를 강조한다.

2) 사업 내용[4)]

사업의 내용은 크게 아동의 발달과 교육에 관련된 서비스와 가족 및 지역사회 지원서비스로 구분되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아동의 발달과 건강 지원서비스

아동 건강의 증진은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의 주요한 목표 중의 하나이다. 아동의 건강과 발달 서비스의 목적은 가족, 직원, 그리고 건강전문가를 통해 모든 아동의 건강과 발달적 문제를 규명하고, 아동과 가족은 기본적인 건강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끊임없이 접근 가능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되는 것이다.

교육과 조기 아동교육은 모든 아동이 안전한 환경을 제공받음으로써 아동이 현재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이후 학교와 삶에서 책임에 대처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각 아동은 통합적인 지역사회의 가치와 다양성에 대응하여 개별성을 인정받으며, 아동의 신체, 사회, 정서, 그리고 인지 발달을 포함한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나) 가족과 지역사회와의 연계

헤드스타트는 부모의 성장에 대한 기회와 지원을 제공하여, 부모가 자신의 목표를 확인하고 충족하도록 도우며, 그들 가족과 문화의 맥락 내에서 아동발달을 촉진하고 모든 문화의 아동과 가족에게 지지적인 지역사회를 옹호하고자 한다. 부모와 직원간의 신뢰롭고 협력적인 관계의 형성은 그들이 서로 나누고 배울 수 있게 된다. 또한 헤드스타트는 지역사회의 맥락 안에서 가족을 도우며, 저소득층 아동에게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의 해결책을 찾아내도록 노력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및 가족에게 최상의 수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양한 문화권에 속하는 모든 아동 및 가족의 건강한 발달에 대한 책임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 조직과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3) 사업 유형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수행기준의 법령의 제한 범위 내에서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여러 가지 모델을 첨가하며 실시되고 있다. 지역적으로 참여하는 유아

---

4) http://eclkc.ohs.acf.hhs.gov/hslc/About%20Head%20Start

와 센터의 운영능력, 센터의 교직원 및 지역사회에서 사용 가능한 자원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은 크게 센터 중심 프로그램과 가정방문 프로그램으로 구분된다. 2005년도 미 의회에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표준적 종일제 프로그램(한주당 4, 5일 당 6시간 이상의 프로그램)에 다니는 아동이 50%를 차지하며, 표준적 반일제 프로그램(한주당 6시간 미만의 프로그램)에 다니는 아동이 41%를, 그리고 가정중심 모델에 참여하는 아동의 비율은 5%이며, 혼합형에 참여하는 아동의 비율이 4%로 나타났다(Administration for Children & Families, 2005).

가) 센터중심 종일제 프로그램(Standard full-day programs)

한 아동이 4일 또는 5일간 기관을 다녀야 한다. 센터 중심 프로그램의 내용 중 종일제 센터 중심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은 운영 시간이 매일 6시간 이상이다. 주당 4일을 운영할 경우에는 최소한 1년에 128일 이상을 운영해야 하며, 주당 5일일 경우 160일 이상을 운영해야 한다. 모든 기관 중심 프로그램은 반드시 8~9개월 동안 최소 32주는 운영해야만 한다.

기관에서는 주로 교육적인 제공은 물론, 건강, 가족과 지역사회의 협력과 부모 참여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부모들은 위원회 참석하기, 프로그램 의사 결정에 참여하기, 직업 훈련 받기와 자원봉사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헤드스타트에 참여하고 있는 부모들은 헤드스타트 사업과 관련된 일을 할 경우에는 고용에 있어서 우선권이 주어지므로 많은 부모들이 헤드스타트 사업에 고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 단체, 관련 기관, 학교, 기업체 등 지역사회의 서비스를 아동과 가족에게 연결시켜 줌으로서 지역사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센터중심 반일제 프로그램(Standard part-day programs)

하루 운영 시간은 3.5~6시간 동안으로 규정되어 있고, 센터 중심 프로그램의 내용 중 반일제 센터 중심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은 운영 시간이 매일 6시간 미만이라는 것만 센터 중심 종일제 프로그램과 차이가 있고, 운영 내용은 동일하다.

다) 가정방문 프로그램(Home based model)

가정에서 헤드 스타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시작된 활동으로, 가정에서 부모를 훈련하여 자녀의 양육 기술 발달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는 유아의 영양, 건강, 교육 및 심리적 사회적 서비스가 포함된다. 가정방문 프로그

램은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3~4주 정도의 교육을 받은 준 전문가가 지도한다. 대체로 한 사람이 10-12가정을 맡아서 어린이들이 학교생활을 성공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가정방문 프로그램이 센터중심 헤드 스타트와의 차이점은 가정 내에서 부모와 유아의 생활이나 관계에 초점을 둔다는 것이다. 교육과정은 모든 유아들의 전체적인 발달(인지, 언어, 사회, 정서, 신체)을 증진시키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며, 지역, 민족, 인종, 문화적, 언어적 특징을 고려하여 지역의 필요에 적합해야 한다. 가정방문 프로그램은 한 가정당 최소 일주일에 1회 방문(1년에 32번 방문)하며 최소 1시간 30분간 지속되어야 한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동은 최소한 2개의 집단 사회 활동에 참여한다(예: 1년에 최소 16회의 집단 활동참여- 헤드스타트 교실, 지역사회 시설, 현장 학습 등).

가정방문 프로그램의 주요특징으로는 부모의 참여를 특히 강조하며, 각 가정의 유아와 그 부모의 평가를 기초로 개별화된 계획을 마련하여 가족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지역적으로 멀리 고립된 가족에게 실시가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라) 통합모델(combination program): home visit + class section

통합모델은 센터중심 프로그램과 가정방문 모델을 혼합하여 운영하는 방식이다.

나. 영국의 슈어스타트(Sure Start)

1) 사업 배경

영국은 전통적으로 아동양육은 부모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강하며 일부 학자들은 집단생활의 경험이 유아들에게 긍정적인 경우 보다 부정적인 경우가 더 많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앙정부의 역할이 최소한으로 유지되던 영국의 교육은 장기적인 경제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1988년 교육개혁법이 제정되었고, 그 이후 대대적인 변화를 겪기 시작한다(이미화 외, 2009).

유아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정부의 계속적인 노력으로 1997년 블레어 총리 하에 '국가보육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정부주도의 아동빈곤과 사회적 배제를 퇴치하는 대표적 정책으로 자치단체 중심의 프로그램인 슈어스타트를 시작하였다. 슈어스타트는 모든 4세 이하 영유아들에게 수준 높은 유아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일환

으로 저소득층 유아들을 위해 시작되었다.

1999년부터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아동과 가족들에게 조기교육, 보육, 보건, 가족 지원 서비스 등 포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슈어스타트 지역 프로그램(Sure Start Local Programme)을 시작하였다. 1998년 '국가보육전략(National Childcare Strategy)'에서 파트너쉽의 원칙으로 욕구에 맞추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가, 지방정부, 보육서비스 제공자(provider), 부모, 고용주, 대학 등의 협력 강조하였으며, 2002년 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기금과 취약지역 아동을 위한 아동센터 발달기금을 통해 부처간(교육기술부, 근로연금부, 재무부, 여성평등부) 협력을 통하여 사업 전개하였다(김미숙, 2007). 2004년 "부모에게는 선택을, 아동에게는 가장 좋은 출발을(Choice for parents, the best start for children)" 이라는 10년 아동보육전략 (Ten Year Childcare Action Plan)을 다시 마련하였는데, 1998년의 국가 아동 보육 전략과 달리 슈어스타트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통합되어있다(백선희, 2006).

또한 슈어스타트는 보육서비스에서 부모일자리 알선까지 부모들에게 구직정보와 보육정보를 동시에 제공하고 임신전후 건강진단까지 지원함으로서 가정과 지역공동체 안정을 도모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생후2개월 유아가 있는 집을 방문해 건강진단, 보육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사업 내용[5)]

가) 저소득 지역의 프로그램

(1) 영유아기 제공 프로그램(early years provision)

5세미만 아동의 통합된 조기 학습과 보육을 제공한다. 일하는 부모를 위한 통합된 학습과 보육(예: 주 5일 보육, 1년의 48주, 하루 10시간)을 제공한다. 아동보육은 저소득층 지역 개설을 우선으로 실시한다. 장애아나 특별한 요구가 있는 아동의 가족과 부모에 대한 포괄적 서비스 지원을 하며, 지역 학교(방과후 학교, 건강학교 등)와 연계한 방과 후 활동을 제공한다.

(2) 현장방문(Outreach services)

출생 후 2개월 이내의 아동이 있는 모든 가정 방문을 방문하여, 취약계층에게 특히 지역사회 인식을 위한 활동을 한다. 현장방문은 가정 방문(home visit)과 연계하며, 향후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5) www.surestart.gov.uk

(3) 가족 지원

각 지역의 가족 지원서비스와 활동에 대해 부모 또는 양육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가족의 중요한 전이활동에 대한 양육에 대한 조언과 지원을 한다. 또한 장애아동의 부모를 위한 지원 활동을 하며, 아버지 참여 증가를 위한 특별 전략 및 활동을 실시한다.

(4) 아동과 가족의 건강 서비스

어머니와 아버지의 출산전 교육 및 지원을 하며, 아동 보건 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또한 수유, 위생, 영양, 안전 등에 대한 정보 및 안내를 제공한다. 어머니의 우울, 산전 산후 우울에 대한 긍정적 정신 건강, 정서적 안정 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언어적 지원과 다른 전문가를 지원하며, 건강한 가족 스타일에 대한 지원과 금연을 위한 도움도 제공한다.

(5) 부모참여

어머니,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상담 및 정보를 공유하며, 어머니와 아버지 교육을 관리한다.

(6) 구인 센터와의 연계

훈련과 고용을 희망하는 부모를 지원하고 격려하기 위해 구인 센터와 연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7) 기타

고등 교육기관과의 효율적 연계와 지역 훈련 수급자 연계, 부모 대상의 언어교육 훈련, 모성 중요성 훈련,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의 손위 형제에 대한 아동 양육 및 기타 서비스, 성인과의 관계를 지원하덜상의 언어교육 훈며, Bookstart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영아용(baby bags), 영유아기용(toddler bags), 만 3세용(My Treasure Box)인 북스타트(Book start)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다.

나) 일반 지역의 프로그램

각 지역의 특성과 요구와 부모의 선택을 충족하기 위한 기타 서비스 제공에 맞추어 부가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 교육 프로그램

교육 커리큘럼으로는 기초단계교육과정(Foundation Stage Curriculum)을 사용하고 있는데, 2002년 교육법에 의해 국가교육과정으로 포함되었고, 정부의 기금으로 운영

되는 모든 조기 교육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다.

3) 사업 유형

가) 아동센터(Children's Centers)

5세 미만의 아동과 그들의 가족이 통합적인 서비스와 정보를 받을 수 있고 다방면으로 훈련된 전문가 팀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정부는 2010년까지 모든 지역사회 마다 하나의 아동센터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동 센터의 재정은 모두 세금으로 충당되고, 2년 마다 재정이 책정되며, 2008년까지 총 60억의 제정이 아동센터에 책정이 되어 있다.

지방정부의 슈어스타트 센터(sure start cnetre) 계획에 의하면 유아교육, 보육, 시간제 보육을 기본으로 가족지원 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 보건서비스, 학령기 아동을 위한 서비스, 전문가 지원 서비스, 지역사회 참여 서비스, 훈련 및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서비스, 방문 서비스 등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총체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다. 아동센터는 Every Child Matters(ECM) 프로그램의 중심역할을 담당한다.

나) 지역 슈어스타트 프로그램(Sure Start Local Programmes; SSLP)

SSLP는 태어나서 4세가 되기까지의 아동과 가족들의 건강과 복지를 향상시켜 아동들이 학교에 가게 되었을 때 준비가 되어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을 기반으로 형성되었다. 현재 524개의 슈어스타트 지방 프로그램 대부분이 아동센터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이미화 외, 2009).

다) 조기우등기관(Early Excellence Centres)

조기우등기관은 통합된 교육과 아동 보육, 부모와 양육자, 가족 그리고 지역 사회에 직접적으로, 또는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원스톱 방식으로 높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라) 이웃보육시설(Neighborhood Nurseries)

가장 취약한 지역과 그 주변 잘사는 지역 간의 차이를 줄이고자 시작되었으며, 2004년까지 취약지역의 5세 미만의 아동을 위해 높은 질의 접근이 쉬운 종일보육장소 4500개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시작하였고 현재 목표 달성 후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현재 이웃보육시설의 대다수는 지역 슈어스타트 프로그램에 연결되어 있다.

다. 호주의 베스트스타트(Best Start)

1) 사업 배경

'아동이 먼저(Children First)'라는 빅토리아 주지사의 정치적 선언과 함께 지역사회 서비스부서 초기 유아서비스에 투자하기 위한 위원회를 발족하였고, 이때 초기 위험요인에 대한 명명화와 시기적으로 적절한 개입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맥락으로 빅토리아 정부는 '성장하는 빅토리아와 함께(Growing Victoria Together)'라는 의제로 빅토리아에 살고 있는 모든 영유아를 위해 건강과 발달을 증진시키기 위한 위원회가 발족되었다. 베스트 스타트는 모든 아동과 가족을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과 발달, 학습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보건서비스와 조기 교육을 더 받도록 지원하며, 부모의 능력과 자신감 증진, 부모와 가족이 자녀를 더 잘 양육하도록 한다. 또한 즐겁게 부모역할을 증진하도록 도움을 주며, 아동과 가족을 위한 지역사회를 지원하는데 있다. 베스트 스타트는 부모,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자들간의 파트너쉽을 강조하며, 현존하는 서비스들 간(산부인과와 모자건강 서비스, 종일제 보육, 아동보육시설, 가정보육, 유치원, 학교, 가족지원서비스, 성인교육 조직 등)의 연계 강화를 강조하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 내의 하나의 보편화된 서비스 체계를 도모한다(http://www.beststart.vic.gov.au).

베스트 스타트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부모/연장자(Parent/Elder), 지방정부, 보건서비스, 교육서비스, 가족과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가족 지원 혁신 프로젝트), 지역사회 조직(스포츠 혹은 레크레이션 클럽 등) 6개의 기본 파트너 그룹이 포함된다(Best Start in action, 2005).

2) 사업 내용

베스트 스타트는 크게 건강과 웰빙, 교육과 학교교육(Education & schooling), 주거와 아동보호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부모에게 접근이 용이하고 질이 우수한 교육 및 보육기관 정보를 제공하고 효과적인 영유아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과 실행모델을 만들고자 한다.

베스트 스타트의 중점 활동으로는 질적으로 우수한 임신관리, 자녀양육을 위한 부

모지원, 질적으로 우수한 놀이, 학습, 보육, 유치원, 조기교육 경험 제공, 초등학교 첫 3년 동안의 방과전후 돌봄을 위한 기회의 제공 등이 있다. 또한 자녀 학습과 발달을 촉진하는 능력이나 기술을 강화하도록 부모를 지원하고, 부모가 읽기, 쓰기, 수계산법을 배우도록 하고 다른 성인 교육이나 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한다. 또한 부모와 자녀 모두의 건강을 관리하며,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전이할 때의 특별한 욕구에 초점을 두어 아동과 가족을 지원하며, 지역사회내의 허브로서 통합된 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한 계절 프로그램, 아침제공 프로그램 등으로 초등학교를 지원한다.

또한 지역사회 환경을 아동에게 안전하고 친근하며 제대로 키우는 곳으로 만들고자 하며 예방프로그램 실시하고, 적합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며, 스포츠, 취미, 도서관, 교통수단을 지원한다. 또한 필요시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사회를 영유아를 제대로 키울 수 있도록 안전하고 친근한 곳으로 만들고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적합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한 예방적인 조기 개입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라. 시사점

1) 헤드스타트 효과에 관한 연구

헤드스타트 질과 확장에 관한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on Head Start Quality and Expansion report)에서는 질과 정책 이슈에 초점을 둔 새로운 헤드 스타트 수행, 헤드스타트 프로그램 수혜를 받고 있는 아동과 가족에 대한 종단적 연구의 수행, 영아와 영유아 대상의 서비스에 대한 포괄적 평가의 수행, 다양한 하위계층에 대한 연구 혹은 대규모 연구의 수행, 대단위 아동 발달과 관련된 파트너십과 관련된 연구 등 헤드스타트의 발전과 강화 능력에 대한 학제간 연구 및 몇 가지 범주를 포함하는 연구를 하도록 권하고 있다(Biennial report to congress, 2005).

이처럼 프로그램 질과 효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몇 가지 범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가) 헤드스타트 가족과 아동의 경험연구(Head Start Family and Child Experiences Survey, FACES)

1997년부터 시작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FACES는 국가적 차원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는 지속적인 종단 연구로, 헤드스타트 프로그램 수행에 관해 국가적 수준에서 측정하는 조사로써, 매 3년마다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FACES는 헤드스타트 아

동과 가족, 교실, 프로그램에 관해 교사, 스탭, 그리고 부모와의 면접과 관찰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아동과 가족에 대한 특성, 경험, 그리고 아동의 발달결과, 교사, 교실, 프로그램의 질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FACES는 헤드스타트에 처음 등록하는 3, 4세 아동을 대상으로 기초선을 조사한 후 아동이 유치원(Kindergarten)으로 진급한 해까지 연구가 진행된다. FACES 2000에서는 프로그램의 수준과 교실의 질과의 관계에 대해 교사의 학력수준보다는 DAP에 대한 교사의 신념과 교직 근무 년수에 의해 설명되었다.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은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교사의 평균 월급과 관련되어 높은 월급을 주는 프로그램은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이 낮고, 좋은 질의 프로그램으로 나타났다.

2006년에 FACES 2003의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헤드스타트에 참여한 3-5세 아동이 1년간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을 받은 후 어휘, 쓰기 수 점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를 보였고 4세에서는 읽기에서도 유의한 증가를 보였으며, 이들이 5세가 되었을 때 어휘, 쓰기, 수 점수가 국가 평균 점수에 근접하게 증가하였다고 하였다(FACES, 2006). 또한 아버지와의 동거 유무와 관련 없이 아버지가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아동의 긍정적 행동이 증가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아동의 공격적 행동이나 과잉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가 헤드스타트에 참여한 아동이 부모가 참여하지 않은 아동보다 인지적 능력과 긍정적인 사회적 행동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가 우울하거나 폭력에 노출된 위험 요인을 갖고 있는 아동의 경우에도 부모가 헤드스타트에 참여하고, 아동과 긍정적인 경험을 한 부모인 경우,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매개효과를 나타내 아동의 문해능력과 수학능력, 긍정적 행동의 향상을 나타냈다(FACES, 2006)

나) 헤드스타트 효과연구(Head Start Impact Study)

1998년 헤드스타트 법(Head Star's Act, P.L.105-285)의 개정으로 헤드스타트 법 649(g)항은 보건인적자원부차원에서 헤드스타트 효과에 대한 국가적 수준의 분석을 수행하여, 국회에 3개의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되었다. 이에 의회에서 요구한 질문과 프로그램의 질을 알아보기 위해 5000명의 3, 4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종단적 연구가 실시되었다. 헤드스타트에 다니는 아동집단과 헤드스타트 서비스를 받지 않는 비교 집단 간의 비교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이 효과연구는 2000년에 실시되기 시작하여 2006년까지 수행되었다.

주요한 연구문제로는 헤드스타트가 아동에게 학교에 대한 준비를 돕는지, 어떠한 환경이 아동에게 가장 높은 효과를 줄 수 있는지를 발견하는 데에 있었다. 연구결과

3, 4세 읽기 전 기술, 쓰기 전 기술, 단어 지식, 부모가 보고한 아동의 읽기 기술 영역에서 유의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으며, 3세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의 향상을 나타냈으며, 그리고 문제행동이 감소하였다. 또한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3세아 부모는 자녀와 교육적 활동을 하며, 신체적인 처벌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헤드스타트 효과 연구의 시사점

헤드스타트 사업과 효과연구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저소득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통합적 프로그램의 제공과 관련하여 대상의 확대가 중요하다. 2007년 재인준을 받은 헤드스타트 법에서는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에서 등록 가능한 아동의 35%까지는 빈곤층 상위 13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도 등록 가능하도록 수혜대상의 범위가 상향 조정되었다. 우리나라의 정부주도 사업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차상위계층까지 점차 넓혀가고 있는 실정이나 잠재적 취약계층까지의 더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장기간 실시되고 있는 국가정책 사업에 있어서 양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질적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엄청난 재원의 손실을 볼 수 있게 된다. 1990년대 초반에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을 위한 연방정부의 예산이 증액되면서 구체적으로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예산 할당제(Quality Set-aside)'가 시행된 점과 전미헤드스타트 협회(NHSA)에서 실시한 우수센터 인증제인 '질적 주도(Quality Initiative)'가 시행되면서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에 대한 관리가 더욱 활발해지는 효과가 발생되었다. 또한 해마다 법적으로 제도화하여 실시하는 모니터링은 질적인 수준의 관리에 도움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지원 사업 들이 장기적으로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정부차원에서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다면 막대한 자원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셋째,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교사에게 적당한 대우를 해줌으로써 유능한 교사를 확보, 유지하고 교직원의 훈련과 기술적 보조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의 질은 교사의 근무연수, 교사대 아동의 비율, 교사의 급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ACES, 2000). 현재의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아동지원사업에 고용되어 보육과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대부분의 교사들은 정규직인 아닌 형태이며, 경력 또한 인정되고 있지 않고 있어, 아동지원사업에 수행인력으로 좋은 교사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기가 어렵다.

넷째, 헤드스타트 사업은 부모의 참여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헤드스타트의 경우, 이 사업에 참여했던 부모들이 이 사업에 고용되는 비율이 높고,

자원봉사자의 활용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부모의 강점을 격려하는 통합적 프로그램은 부모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Allen, 2008). 또한 부모가 헤드스타트에 참여하고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도가 높은 경우 그 아동의 인지적, 사회적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FACE, 2000). 이처럼 우리나라 아동지원사업이 부모의 자원을 잘 활용하고 참여를 유도하면, 긍정적인 아동의 발달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2) 슈어스타트 사업의 효과에 관한 연구

가) 국가평가 보고서(National evaluation report)

슈어스타트는 재무부가 깊이 관여되어 있으며, 재무부가 슈어스타트의 개발뿐 아니라 이후 프로그램의 변화에도 중점적인 역할을 한다. 재무부는 초기 슈어스타트 프로그램에 대한 엄격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Melhuish, 2009). 이에 슈어스타트 국가 평가(National Evaluation of Sure Start, 이하 NESS)가 슈어스타트 지역 프로그램평가를 맡게 되었다. NESS는 슈어스타트의 효과 연구 및 슈어스타트 지역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는 지역 사회의 특성, 슈어스타트 지역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는 방식, 아동, 가족,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슈어스타트 지역 프로그램의 비용-효과 분석 등을 다각적으로 평가하였다. 이 연구는 2001년에 시작되어 대부분 2005년까지 수행되었으며, 2~5세 아동과 가족에 대한 영향평가는 2008까지 지속되고 있다(NESS, 2008).

슈어스타트 영향평가는 횡단연구, 프로그램 타당성 연구, 장기종단의 3가지 영역에서 실시되었으며, 2005년 횡단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슈어스타트 지역과 비 슈어스타트 지역에 속한 3세 아동과 그 가족을 비교한 결과 슈어스타트 지역의 아동이 더 높은 사회적 유능감을 보였으며, 문제행동을 덜 보였다. 또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도 낮았다. 20대 이상, 즉 10대가 아닌 어머니들의 경우 프로그램으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부모역할과 아동의 사회적 기능에서)를 보였으나 어머니가 10대이거나 한부모인 가정, 부모가 무직인 가정 등의 경우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사회적 기능 및 언어 능력에서)를 보였고, 이러한 연구결과는 슈어스타트 지역프로그램 구조를 바꾸는 데 근본적 역할을 했다.

2008년에 발표한 장기 종단 연구결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향상, 아동의 독립성/자기통제감의 향상, 부정적 양육행동의 감소, 가정내 학습환경의 변화 등에 있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elhuish, 2009). 또한 슈어스타트 프로그램에 대한 이

해에 대한 보고서에서는 가정 방문 프로그램이 서비스를 가정에 제공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것으로 나타났다(DfES, 2004).

나) 슈어스타트 효과 연구의 시사점

슈어스타트는 정부주도로 기금이 형성되고 지방 당국에 의해 자치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역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슈어스타트의 국가평가와 사업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국에서는 첫 시행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계속 확대되어 가고 있다. 또한 획일적인 서비스가 아닌 지역실정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체계적인 지원과 평가가 없이는 지방자치제로 인해 지역 사정에 따라 재원의 차이 뿐 아니라 서비스의 질과 양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날 수 있다. 이에 영국에서는 사업시행 초기부터 독립적인 국가적 가 날기구를 만들어 시스템을 갖추고 프로그램 수행이는 지방횡단, 종단적인 평가와 함께 실험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란 진행 중인 아동지원사업에 대한 점검은 물론 앞으로의 사업진행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영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막대한 자원을 들여가면서 평가가 없이는 지방자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경우도 정부주도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평가가수행빽 아니라 평가가 율성과 수행이는 댠한 체계적이고 폭넓은 적이고 위한 독립된날기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평가 결과가 사업에 반영될 수 있는 여건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영국의 기초 단계 교육과정과 같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가 주관하는 아동지원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국가수준의 프로그램 수립 및 적용의 체계화 과정이 필요하다.

셋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아동지원사업을 조직적으로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 간의 원활한 연계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영국의 경우 보육서비스에서 부모일자리 알선까지 부모들에게 구직정보와 보육정보 동시에 제공하고 임신전후 건강진단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 뿐 아니라 지방정부 및 관계 기관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월활히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영유아 지원사업이 통합적 접근으로 시도되고 있는 만큼 영유아와 그 가정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간의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넷째, 부모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슈어스타트 효과성 연구에서도 이를 입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부모와 관련 종사자들간의 신뢰감 형성이 중요하다.

다섯째, 슈어스타트 프로그램은 기관에 따라 다양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중 하나는 관련 종사자의 자질과 관련된다. 종사자들이 많은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능력을 갖추지 못할 때 좋은 효과를 볼 수 없으며, 이를 위해 관련 종사자들의 재교육과 연수가 필요하다.

3) 베스트스타트 사업의 효과연구

가) 멜버른 대학의 주규모의 베스트스타트 평가

베스트스타트의 주규모 평가는 2단계인 2002년부터 2006년까지 4년동안 멜버른 대학에서 수행되었다. 주요한 평가영역으로는 크게 건강과 웰빙, 교육과 학교, 주거와 아동보호의 영역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아동과 가족의 자발적인 참여, 파트너쉽과 지역 프로젝트 수준에서의 계획과 협력, 운동장, 도서관, 부모참여와 같은 지역사회 기초기반의 이용과 가능성에 대한 지표들을 평가하였다.

이러한 영역의 평가결과 건강과 웰빙영역에서는 모유 수유와 어머니와 아동의 건강 서비스참여율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 즉 3개월과 6개월 영아에 대한 모유수유율은 다른 지역보다 모유수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5세 유아의 건강 서비스 참여율도 2001/02년과 비교하여 2004/05의 참여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가 그 자녀에 대한 읽기활동을 해주는 것에 대한 평가를 보면, 조사연구에서는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베스트 스타트 지역에서 문해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일어났으며, 초기 문해와 관련한 다른 효과도 보고하고 있다. 베스트 스타트 지역에서의 조사결과 2004년과 비교하여 2006년의 문해관련 행동이 증가하였으며, 부모가 자녀에게 읽어주는 것 또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거와 아동보호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역점을 두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역점을 두었던 부모의 자신감 증진과 친아동 지역사회 프로젝트(parental confidence and communities child friendly projects)는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일련의 결과에 대해 평가서에서는 대체적으로 베스트스타트는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으며, 단독 또는 경쟁적으로 일했던 경험과 비교해 볼 때 조기 아동교육부분에서 파트너쉽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나) 베스트 스타트 효과연구의 시사점

베스트스타트 사업의 효과연구를 통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베스트스타트의 효과 연구결과 파트너쉽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업이 조화롭고 생산적으로 정착하고 기능하는 데 있어 지역사회에서의 세비스 제공기관과 조직과의 연계뿐

아니라 정부와 지역사회의 연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부처와 지역사회의 연계가 확고히 되어야 한다.

둘째, 베스트 스타트는 모든 지역에 일괄적으로 예산을 배정하여 사업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지역형태별로 범주화 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을 확대하기 이전에 각 지역의 실정을 살펴보았다. 즉, 지역사회에서 이미 제공되어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새로운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접근가능하고 이용하기 쉬운 기존의 서비스를 발굴하여 영유아와 그 가정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각 지역별로 정부부처 및 지자체, 그리고 민간단체의 사업들이 수행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새로운 지역으로 사업을 수행할 때 새로운 지역에 대한 실정을 파악한 후, 기존의 사업들과 연계하여 취약계층 영유아와 가정에게 필요한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즉 일률적이고 획일화된 서비스의 제공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부족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다.

셋째, 다른 국외 취약계층 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체계적이고 전국적인 평가가 중요하다. 베스트스타트의 경우에도 프로그램 평가부서와 대학이 공동으로 사업에 대한 효과연구를 4년간에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에 대한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주도 사업을 수행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 정부주도의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에 앞서, 국가적 수준의 평가가 실시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Ⅲ. 교육취약계층 가정 유아의 교육 및 생활 실태 분석

1. 조사 대상 유아 및 부모 특성

가. 유아 특성

조사 대상 유아는 총 3,693명으로 그 특성은 <표 Ⅲ-1-1>과 같다. 성별은 남녀가 비슷한 비율이었으며, 연령은 만 5세가 가장 많았고, 만 4세, 만 6세 순으로 많았다. 출생순위는 첫째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둘째, 셋째 순이었다. 건강상태는 양호한 경우가 97% 정도로 대부분 건강한 상태이다.

〈표 Ⅲ-1-1〉 조사 대상 유아의 특성

N=3,693

	구분	빈도	비율
성	남	1,813	49.1
	여	1,858	50.3
	무응답	22	0.6
연령	만 2세	10	0.3
	만 3세	364	9.9
	만 4세	823	22.3
	만 5세	1,514	41.0
	만 6세	811	22.0
	만 7세	54	1.5
	만 8세	2	0.1
	무응답	115	0.29
출생순위	첫째	1,680	45.5
	둘째	1,528	41.4
	셋째	388	10.5
	넷째	42	1.1
	다섯째	8	0.2
	여섯째	1	0.0
	무응답	46	1.2
건강상태	장애가 있음	26	0.7
	질병이 있음	39	1.1
	장애와 질병이 모두 있음	2	0.1
	건강 양호함	3,563	96.5
	모르겠음	23	0.6
	무응답	40	1.1

지역규모에 따른 유아 발달 수준의 차이를 *F* 검증으로 분석한 결과, 지역규모에 따라 유아의 신체발달(*F*=5.55, *p*<.01)과 정서발달(*F*=3.34, *p*<.05) 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가 어떤 집단 간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아 보기 위해 Scheffe 사후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유아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유아보다 신체발달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서발달 수준에서는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유아가 대도시에 거주하는 유아보다 정서발달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규모에 따른 유아의 인지, 언어, 사회성 발달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다음으로, 소득수준에 따른 유아의 발달 수준의 차이를 *F* 검증한 결과 유아의 인지(*F*=4.35, *p*<.05), 언어(*F*=8.93, *p*<.001), 사회성(*F*=3.27, *p*<.05), 정서(*F*=8.42, *p*<.001) 발달 수준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가 어떤 집단 간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Scheffe 사후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3층이상 소득수준에 속한 가정의 유아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 가정의 유아보다 인지, 언어, 사회성, 정서발달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득수준에 따라 유아의 신체발달 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Ⅲ-1-2〉 유아의 발달 수준

구분	신체발달 *M(SD)*	인지발달 *M(SD)*	언어발달 *M(SD)*	사회성발달 *M(SD)*	정서발달 *M(SD)*
지역규모					
대도시	3.6(0.81)	3.7(0.70)	3.7(0.80)	3.7(0.73)	3.7[a](0.73)
중소도시	3.5[a](0.81)	3.7(0.68)	3.7(0.79)	3.7(0.72)	3.8[b](0.72)
읍・면지역	3.6[b](0.82)	3.7(0.70)	3.7(0.82)	3.7(0.77)	3.7(0.76)
F	5.55**	0.02	0.57	0.07	3.34*
소득수준					
기초생활보장	3.5(0.95)	3.6[a](0.83)	3.5[a](0.96)	3.6[a](0.90)	3.4[a](0.88)
차상위층	3.6(0.83)	3.7(0.69)	3.7[b](0.81)	3.7(0.80)	3.7[b](0.79)
3층이상	3.6(0.79)	3.8[b](0.66)	3.7[b](0.77)	3.7[b](0.72)	3.7[b](0.72)
F	0.99	4.35*	8.93***	3.27*	8.42***

주: a, b는 집단 간 차이를 나타냄.
*p<.05. **p<.01. ***p<.001.

한부모가정의 경우는 자녀의 신체 발달 수준과 사회성 발달 수준이 보통인 경우가 가장 많고, 좋은 편이라는 응답이 두 번째로 많았다. 그리고 자녀의 인지 발달 수준과 언어 발달 수준 및 정서 발달 수준은 좋은 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고, 보통

이라는 응답이 두 번째로 많았다(부표 Ⅲ-1-1부터 부표 Ⅲ-1-5까지 참조).

조손가정의 경우는 자녀의 신체 발달 수준과 언어 발달 수준 및 사회성 발달 수준이 좋은 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고, 보통이라는 응답이 두 번째로 많아 대체적으로 자녀의 신체, 언어 및 사회성 발달 수준은 양호한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녀의 인지 발달 수준, 정서발달 수준이 보통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고, 좋은 편이라는 응답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부표 Ⅲ-1-1부터 부표 Ⅲ-1-5까지 참조).

다문화가정 자녀의 발달수준은 신체, 인지, 언어, 사회성, 정서발달 모든 항목에서 보통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좋은 편이라는 응답, 매우 좋은 편이라는 응답 순으로 많아 다문화가정 자녀의 발달 수준은 대체적으로 좋은 편임을 알 수 있다(부표 Ⅲ-1-6참조).

<표 Ⅲ-1-3>은 지역규모 및 소득수준에 따라 자녀의 발달에 있어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에 대한 응답을 나타낸 것이다. 지역규모별의 경우에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사회, 없음, 신체, 정서, 인지, 언어, 기타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읍·면은 사회, 없음, 정신, 신체, 언어, 인지, 기타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소득수준별로는 기초생활보장의 경우 정서, 사회, 없음, 신체와 언어, 인지, 기타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차상위층과 3층 이상의 경우는 사회, 없음, 신체, 정신, 인지, 언어, 기타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Ⅲ-1-3〉 자녀의 발달에 있어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

단위: %(명)

구분	신체	언어	인지	사회	정서	기타	없음	전체
지역규모								
대도시	18.3	5.8	6.6	28.4	17.8	1.3	21.8	100.0(606)
중소도시	18.5	5.5	6.4	29.8	17.5	1.4	20.9	100.0(1,232)
읍·면지역	16.7	7.5	7.2	28.5	17.3	1.4	21.4	100.0(1,803)
소득수준								
기초생활보장	12.0	12.0	6.7	22.0	30.0	0.7	16.7	100.0(150)
차상위층	17.9	7.4	7.9	27.6	16.2	1.2	21.8	100.0(431)
3층 이상	18.1	5.8	6.5	31.7	18.1	1.4	18.4	100.0(1,578)

주: 중복응답 문항은 아니었으나 중복으로 답한 경우도 포함함.

한부모가정의 경우 사회성 발달 및 정서 발달을 가장 걱정하고 있는 반면, 조손가정은 정서 발달, 인지발달, 사회성 발달의 순으로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부표 Ⅲ-1-7 참조).

다문화가정의 경우, 걱정되는 부분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왔고, 그 다음으로는 언어발달, 사회성 발달, 신체 발달, 정서 발달, 인지 발달, 기타, 인성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부표 Ⅲ-1-8 참조).

나. 부모 특성

연구대상 부모의 특성은 <표 Ⅲ-1-4>와 같다. 연령은 부모 모두 35~39세가 각각 45%, 4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부의 경우 40대, 모의 경우는 30~34세가 많았다. 건강상태는 부모 모두 양호한 경우가 60% 정도였으며, 질병이 있는 경우가 2%, 장애가 있는 경우가 1% 정도로 나타났으나, 무응답이 많아 실제적인 파악이 어렵다.

〈표 Ⅲ-1-4〉 부모의 연령 및 건강상태

단위: %(명)

구분		부	모
연령	20대	1.8	6.4
	30~34세	17.3	36.2
	35~39세	45.1	40.5
	40대	28.5	13.0
	50세 이상	1.5	0.3
	무응답	5.8	3.7
건강상태	장애가 있음	1.0	0.5
	질병이 있음	2.1	1.4
	장애와 질병이 모두 있음	0.2	0.1
	건강 양호함	60.2	60.9
	모르겠음	1.2	1.4
	비해당	1.1	1.6
	무응답	34.3	34.1
전체		100.0(3,693)	100.0(3,693)

연구대상 부모가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는 부의 경우 63%, 모의 경우 67%로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비동거는 아버지의 비율이 4%, 어머니의 비율이 1% 정도이다. 비동거 이유로는 부의 경우 직장 때문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이혼 및 별거 때문이었다. 모의 경우는 이혼 및 별거 때문이라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직장 때문이었다.

〈표 III-1-5〉 자녀와의 동거 여부 및 비동거 이유

단위: %(명)

	구분	부	모
자녀와의 동거	동거	62.5	66.6
	비동거	4.0	0.9
	무응답	33.5	32.6
비동거 이유	이혼 및 별거	0.9	0.7
	사망	0.1	0.1
	직장 때문에	2.5	0.2
	건강상의 이유로	0.1	-
	입대(병역의무)	0.0	-
	가출	0.1	0.1
	기타	0.1	0.1
	비해당	62.5	66.2
	무응답	33.7	32.7
	전체	100.0(3,693)	100.0(3,693)

〈표 III-1-6〉 부모 취업 여부 및 종사상 지위

단위: %(명)

	구분	부	모
취업 여부	취업	60.8	25.6
	미취업	2.1	32.9
	비해당	1.9	5.4
	무응답	35.1	36.0
종사상 지위	정규직	41.3	13.5
	비정규직 중 임시직	2.9	5.3
	비정규직 중 일용직	3.5	2.7
	기타	19.7	5.7
	비해당	3.5	23.6
	무응답	36.0	49.1
근무형태	규칙적으로 출퇴근	48.8	20.1
	불규칙하게 출퇴근	9.6	4.0
	재택근무	1.3	1.4
	휴직 중	0.6	0.4
	무직(전업주부 포함)	0.3	22.3
	모름	0.1	0.1
	기타	2.9	1.6
	비해당	1.0	0.9
	무응답	35.2	40.9
	전체	100.0(3,693)	100.0(3,693)

연구대상 부모의 음주횟수는 부의 경우 주 1회 정도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주 2~3회 정도가 많았다. 모의 경우는 전혀 마시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월 1회 이하로 나타났다.

〈표 Ⅲ-1-7〉 부모 음주횟수 및 하루 흡연량

단위: %(명)

	구분	부	모
음주횟수	전혀 마시지 않음	10.1	28.0
	월1회 이하	13.2	22.7
	주1회 정도	22.9	9.3
	주2~3회 정도	14.9	1.2
	주4회 정도	3.2	0.2
	거의 매일	1.2	0.1
	비해당	0.5	4.1
	무응답	34.0	34.6
하루 흡연량	전혀 피우지 않음	28.5	55.7
	10개피 이하	15.1	0.2
	11~20개피	15.7	0.1
	한갑 초과	5.2	0.1
	비해당	1.4	8.2
	무응답	34.2	35.8
	전체	100.0(3,693)	100.0(3,693)

2. 유아의 양육 및 생활 실태

가. 주양육자

유치원 하원 후 유아를 주로 돌보아주는 사람이나 기관은 모인 경우가 8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친인척 13%, 부 4%, 기관 3% 순이었다. 한부모가정의 경우 유치원 하원 후 유아를 주로 돌보아주는 사람이나 기관은 모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조손가정의 경우에는 친인척이 가장 많았다(부표 Ⅲ-2-1 참조). 다문화가정의 경우 유치원 하원 후 유아를 주로 돌보아주는 사람이나 기관은 모인 경우가 73.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친인척 15.9%, 부 6.7%, 기관 1.5%, 형제자매 1.0%, 비혈연인 0.5% 순이었다(부표 Ⅲ-2-2 참조).

〈표 Ⅲ-2-1〉 유치원 하원 후 유아를 주로 돌보아 주는 사람(곳)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부	160	4.3
모	3,013	81.6
친인척	480	13.0
비혈연인	16	0.4
보육시설, 학원, 복지관 등 기관	119	3.2
기타	42	1.2
무응답	34	0.9
전체	3,864	104.6

부모 이외에 다른 사람이 돌보는 경우, 동거 친조부모인 경우가 3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비동거 외조부모 18%, 동거 외조부모 17%, 비동거 친조부모 13%로 주로 조부모에 의해 양육된다고 볼 수 있다.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 및 다문화가정은 모두 동거 친조부모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동거 외조부모가 두 번째로 많아 유치원 하원 이후의 유아는 주로 조부모에 의해 양육된다고 볼 수 있다(부표 Ⅲ-2-3 및 부표 Ⅲ-2-4 참조).

〈표 Ⅲ-2-2〉 부모 이외에 유치원 하원 후 유아를 주로 돌보는 사람의 특성

단위: %(명)

	구분	빈도	비율	합계
돌보는 사람	동거 친조부모	177	35.7	100.0(496)
	동거 외조부모	86	17.3	
	비동거 친조부모	66	13.3	
	비동거 외조부모	90	18.1	
	동거 친인척	22	4.4	
	비동거 친인척	35	7.1	
	아동을 전담 도우미	6	1.2	
	가사와 육아 담당 도우미	3	0.6	
	기타	1	0.2	
	무응답	10	2.0	
연령	20세 미만	3	0.6	100.0(496)
	20대	9	1.8	
	30대	26	5.2	
	40대	19	3.8	
	50대	111	22.4	
	60세 이상	290	58.5	
	무응답	38	7.7	

(표 계속)

구분		빈도	비율	합계
건강상태	장애가 있음	19	3.8	100.0(496)
	질병이 있음	88	17.7	
	장애와 질병 모두 있음	5	1.0	
	건강 양호함	343	69.2	
	모르겠음	14	2.8	
	무응답	27	5.4	
아이를 돌보아 주는 총 시간	2시간미만	37	7.5	100.0(496)
	2시간~ 4시간미만	164	33.1	
	4시간~ 6시간미만	120	24.2	
	6시간~ 8시간미만	31	6.3	
	8시간 이상	87	17.5	
	무응답	57	11.5	

〈표 III-2-3〉 부모 이외에 돌보는 사람에게 지불하는 비용 관련

단위: %(명)

구분		빈도	비율	합계
비용지불여부	현금 지불	179	36.1	100.0(496)
	현물 지불	13	2.6	
	지불 안 함	266	53.6	
	무응답	38	7.7	
월평균 현금지불금액	10만원 미만	2	1.1	100.0(179)
	10 ~ 20만원 미만	23	12.8	
	20 ~ 30만원 미만	29	16.2	
	30 ~ 40만원 미만	44	24.6	
	40 ~ 50만원 미만	13	7.3	
	50 ~ 70만원 미만	33	18.4	
	70만원 이상	24	13.4	
	무응답	11	6.1	
비용지불이 부담되는 정도	전혀 부담되지 않음	23	12.0	100.0(192)
	별로 부담되지 않음	29	15.1	
	보통임	48	25.0	
	약간 부담됨	63	32.8	
	매우 부담됨	22	11.5	
	모름/무응답	7	3.6	

나. 가정에서의 생활

연구 대상 유아들이 어른 없이 보내는 시간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유아들이 어른 없이 보내는 시간이 거의 없는 경우가 76% 정도로 가장 많이 나타났

고, 그 다음으로는 1시간 내외 14%, 2시간 내외 5% 순이었다.

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의 경우에도 전체 가정과 마찬가지로 아이들끼리만 지낼 때가 거의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1시간 내외라는 응답이 그 다음으로 많이 나타나 대체적으로 연구 대상 유아는 어른 없이 혼자 또는 아이들끼리 보내는 시간이 적은 편임을 알 수 있었다(부표 Ⅲ-2-5 참조).

다문화가정의 경우에도 아이들끼리만 지낼 때가 거의 없다는 응답이 60.6%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1시간 내외라는 응답이 23.3%로 그 다음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에 비해 2시간 이상이라는 응답은 14.6%로 대체적으로 다문화가정 자녀는 어른 없이 혼자 또는 아이들끼리 보내는 시간이 적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부표 Ⅲ-2-6 참조).

〈표 Ⅲ-2-4〉 유아가 어른 없이 보내는 시간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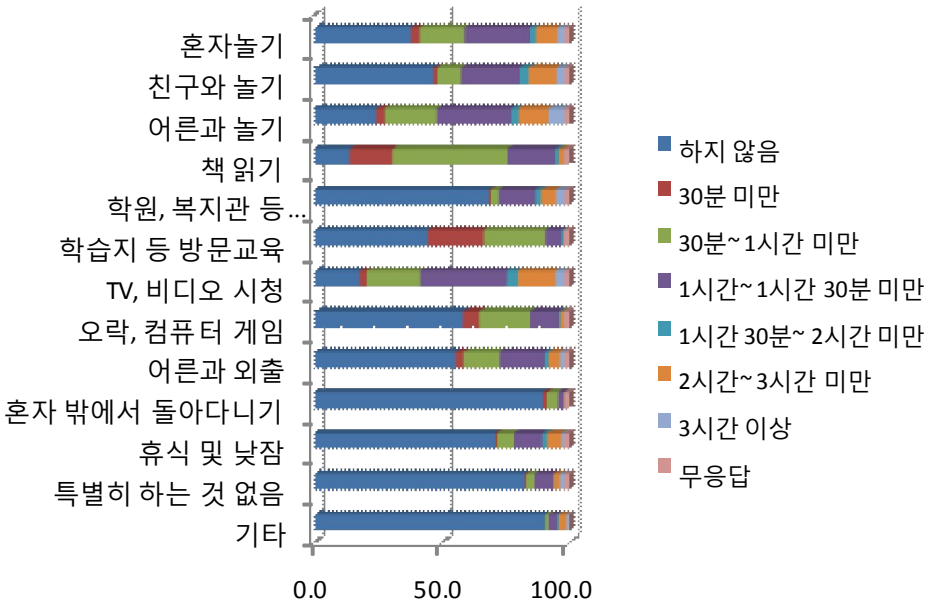
구분	빈도	비율
유아끼리만 지낼 때가 거의 없음	2,793	75.6
1시간 내외	512	13.9
2시간 내외	198	5.4
3시간 내외	75	2.0
4시간 이상	36	1.0
기타	25	0.7
무응답	54	1.5
합계	3,693	100.0

다음은 유아들이 유치원 하원 후 어떤 활동을 하며 어느 정도의 시간을 보내는지를 조사한 결과이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유치원 하원 후에 책읽기를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시간은 30분~1시간 사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어른과 놀이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시간은 1시간~1시간 30분 사이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혼자 놀기와 친구와 놀기로 이 시간 역시 1시간~1시간 30분이 가장 많았다.

〈표 Ⅲ-2-5〉 하원 후 자녀의 활동 시간

단위: %(명)

구분	혼자 놀기	친구와 놀기	어른과 놀기	책 읽기	기관 교육	휴식 낮잠	집에 있기	기타
하지 않음	37.8	46.8	24.4	13.9	68.5	70.8	82.3	90.4
0.5시간 미만	3.5	1.4	3.3	16.7	0.8	0.9	0.7	0.1
0.5~1시간	17.6	9.3	20.4	45.1	3.1	6.5	3.1	1.4
1~1.5시간	25.7	23.0	29.3	18.8	14.2	11.1	7.2	3.2
1.5~2시간	2.3	3.5	2.8	1.6	2.4	2.0	0.3	0.8
2~3시간	8.4	10.8	11.7	1.8	5.7	5.7	2.7	2.7
3시간 이상	2.7	3.1	6.1	0.2	3.3	1.0	1.6	1.2
무응답	2.1	2.1	2.1	2.1	2.1	2.1	2.1	0.1
계	100.0 (3,698)	100.0 (3,698)	100.0 (3,698)	100.0 (3,698)	100.0 (3,698)	100.0 (3,698)	100.0 (3,698)	100.0 (3,698)



〔그림 Ⅲ-2-1〕 하원 후 자녀의 활동 시간

지역규모에 따른 하원 후 각 활동에 보내는 평균 시간의 차이를 F 검증으로 분석한 결과, 지역규모에 따라 혼자놀기(F=5.64, p<.01), 책읽기(F=10.50, p<.001), 기관교육(F=7.05, p<.01), 방문교육(F=3.83, p<.05), TV시청(F=6.26, p<.01), 게임(F=7.51, p<.01), 외출(F=7.42, p<.01) 및 혼자 돌아다니기(F=9.48, p<.001) 활동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III-2-6〉 지역규모 및 소득계층별 하원 후 자녀의 활동 시간

단위: 분

구분	지역규모			소득계층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기초생활보장	차상위층	3층이상
혼자놀기	45.0[b](50.32)	41.6(44.47) F=5.64**	37.7[a](46.86)	45.4(57.35)	43.9(52.97) F=3.24*	38.1(44.72)
친구와 놀기	40.6(48.58)	41.0(52.28) F=0.06	40.3(54.56)	35.1(53.42)	40.1(53.35) F=1.31	42.4(51.85)
어른과 놀기	52.7(53.29)	55.3(54.65) F=0.82	56.3(58.51)	54.4(67.17)	56.4[b](59.63) F=0.08	55.4(54.73)
책읽기	34.4[b](24.88)	34.3[b](24.30) 10.50**	30.5[a](24.04)	26.5[a](25.54)	30.7(24.76) F=5.87*	33.1[b](22.86)
기관교육	30.6(57.49)	32.6[b](63.22) F=7.05**	24.3[a](58.12)	24.1(73.03)	24.4(58.27) F=0.64	27.8(60.72)
방문교육	18.1(22.63)	17.5(20.28) F=3.83*	15.7(20.23)	11.8[a](22.40)	15.9(20.46) F=5.43**	17.5[b](19.94)
TV시청	55.6(47.57)	53.9[a](44.18) F=6.26**	60.0[b](46.99)	75.5[b](58.87)	62.1[a](48.84) F=11.24***	56.3[a](45.68)
게임	14.3[a](23.26)	15.1[a](25.35) F=7.51**	18.2[b](26.48)	25.4[b](35.83)	17.6[a](28.84) F=8.75***	15.8[a](23.88)
외출	31.4[b](42.63)	26.6[a](38.84) F=7.42**	23.9[a](39.95)	30.1(49.63)	26.9(42.08) F=0.34	27.0(40.30)
혼자 돌아다님	1.8[a](8.83)	2.7[a](12.75) F=9.48***	4.2[b](13.74)	5.1(17.96)	3.4(12.69) F=1.62	3.0(12.32)
휴식·낮잠	21.8(38.15)	17.7(34.46) F=2.75	20.5(40.83)	20.5(41.31)	19.4(36.88) v0.18	20.7(38.88)
집에 있기	15.3(44.23)	12.1(34.10) F=1.53	12.4(37.10)	16.8(45.72)	11.9(32.73) F=0.76	13.3(40.27)
기타	85.2(48.95)	101.6(63.54) F=1.83	93.1(50.97)	123.3[a](60.83)	98.8[b](52.97) F=1.34*	92.4(58.13)

주: a, b는 집단 간 차이를 나타냄.
*p<.05. **p<.01. ***p<.001.

이러한 차이가 어떤 집단 간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Scheffe 사후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대도시에 거주하는 유아가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유아보다 혼자놀기, 책읽기, 외출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과 혼자 돌아다니는 활동은 대도시 및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유아가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유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규모에 따른 친구와 놀기, 어른과 놀기, 휴식낮잠, 집에 있기 등의 활동에 보내는 시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다음으로, 소득수준에 따른 하원 후 각 활동에 보내는 평균 시간의 차이를 F 검증한 결과 유아의 혼자놀기(F=3.24, p<.05), 책읽기(F=5.87, p<.05), 방문교육(F=5.43, p<.01), TV시청(F=11.24, p<.001), 게임(F=8.75, p<.001), 기타(F=1.34, p<.05) 활동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가 어떤 집단 간의 차이로 인한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Scheffe 사후 검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3층이상 소득수준에 속한 가정의 유아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 가정의 유아보다 책읽기, 방문교육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권 가정의 유아가 소득계층 3층이상 가정의 유아보다 TV시청 및 게임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소득수준에 따라 친구와 놀기, 어른과 놀기, 기관교육, 외출, 혼자 돌아다니기, 휴식낮잠, 집에 있기 등의 활동에 보내는 시간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다. 자녀의 생활 및 놀이 지도

응답 대상 부모의 자녀가 일주일 내내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경우가 79%, 일주일에 3일 이상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경우가 17%로 대부분이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7〉 자녀의 규칙적인 식사 정도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일주일 내내 규칙적으로	2,999	79.3
일주일에 3일 이상	643	17.4
일주일에 2일	33	0.9
일주일에 1일	7	0.2
일주일 내내 불규칙적으로	51	1.4
기타	12	0.3
무응답	18	0.5
전체	3,693	100.0

응답 대상 부모가 자녀의 건강, 청결, 영양 및 생활습관 등을 지도하는 정도에 있어서 예방접종의 경우는 매우 그렇다가 52.1%, 신체청결은 50.2%로 가장 많았으나 정기검진, 집안청결, 균형 있는 식사,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 제한, 기본생활습관 지도 및 TV 등의 시청시간 제한의 경우는 거의 그렇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특히 균형 있는 식사 및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 제한의 경우는 보통이라는 응답의 비중도 높아 타 항목에 비해 부모의 지도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8〉 자녀의 건강, 청결·위생, 영양, 생활습관 지도

단위: %(명)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거의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무응답	전체
예방접종	0.1	1.4	9.2	36.9	52.1	0.3	100.0(3,693)
정기검진	1.6	10.2	29.7	34.4	23.6	0.4	100.0(3,693)
신체 청결	0.0	0.6	7.3	41.6	50.2	0.2	100.0(3,693)
집안 청결	0.2	0.7	22.2	47.6	29.1	0.2	100.0(3,693)
균형 있는 식사	0.2	3.3	41.1	41.3	13.8	0.4	100.0(3,693)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 제한	0.9	6.8	32.8	41.8	17.2	0.5	100.0(3,693)
기본생활습관 지도	0.1	1.3	22.0	51.1	24.9	0.6	100.0(3,693)
TV 또는 비디오 (DVD) 시청시간 제한	0.4	5.3	25.3	43.6	25.0	0.3	100.0(3,693)

지역규모에 따른 자녀의 건강, 청결/위생, 영양 및 생활습관 지도 정도의 차이를 *F* 검증으로 분석한 결과, 지역규모에 따라 유아의 건강(F=6.46, p<.01)과 생활습관(F=10.97, p<.001)에 대한 지도 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가 어떤 집단 간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Scheffe 사후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유아보다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유아에 대한 건강 지도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생활습관 지도 정도에서는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유아에 대한 생활습관 지도 정도가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유아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규모에 따른 유아의 청결/위생, 영양 지도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다음으로, 소득수준에 따른 자녀의 건강, 청결/위생, 영양 및 생활습관 지도 정도의 차이를 F 검증한 결과 유아의 건강(F=30.31, p<.001), 청결/위생(F=14.80, p<.001), 영양(F=9.13, p<.001), 생활습관(F=22.23, p<.001)에 대한 지도 정도는 소득수준에 따

라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가 어떤 집단 간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Scheffe 사후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3층이상 소득수준에 속한 가정의 유아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 가정의 유아보다 건강, 청결/위생, 영양, 생활습관에 대한 지도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9〉 지역규모 및 소득수준별 자녀의 건강, 청결·위생, 영양 및 생활습관 지도

구분	건강 M(SD)	청결/위생 *M(SD)*	영양 *M(SD)*	생활습관 *M(SD)*
지역규모				
대도시	4.1(0.74)	4.2(0.64)	3.7(0.67)	$4.0^{b'}$(0.68)
중소도시	4.1^{b}(0.72)	4.3(0.60)	3.7(0.66)	$4.0^{b'}$(0.64)
읍·면지역	4.0^{a}(0.74)	4.2(0.65)	3.6(0.67)	3.9^{a}(0.70)
F	6.46**	1.91	3.92	10.97***
소득수준				
기초생활보장	$3.7^{a'}$(0.81)	4.0^{a}(0.84)	3.4^{a}(0.74)	$3.7^{a'}$(0.76)
차상위층	$3.9^{a''}$(0.76)	4.2^{b}(0.66)	3.6^{b}(0.69)	$3.8^{a''}$(0.70)
3층이상	4.1^{b}(0.71)	43^{b}(0.60)	3.7^{b}(0.66)	4.0^{b}(0.65)
F	30.31***	14.80***	9.13***	22.23***

주: a, b는 집단 간 차이를 나타냄. a′, a′′는 차이가 없음.
**p<.01. ***p<.001.

한편, 한부모가정에서 자녀의 건강, 청결, 영양 및 생활습관 등을 지도하는 정도에 있어서 예방접종, 신체청결, 정기검진, 집안 청결, 기본생활습관 지도,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 제한 및 TV 등의 시청시간 제한의 경우는 거의 그렇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한편 균형 있는 식사의 경우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부표 Ⅲ-2-9부터 부표 Ⅲ-2-16 까지 참조).

조손가정에서 자녀의 건강, 청결, 영양 및 생활습관 등을 지도하는 정도에 있어서 예방접종, 신체청결, 정기검진 및 집안 청결의 경우는 거의 그렇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한편 기본생활습관 지도,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 제한 및 TV 등의 시청시간 제한의 경우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거의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인 응답 비중도 타 가족 유형에 비해 높았다(부표 Ⅲ-2-9부터 부표 Ⅲ-2-16까지 참조).

다문화가정 부모가 자녀의 건강, 청결, 영양 및 생활습관 등을 지도하는 정도에 있어서 예방접종, 정기검진, 신체청결의 경우는 매우 그렇다가 가장 많았으나 집안 청결, 기본생활습관 지도 및 TV 등의 시청시간 제한의 경우는 거의 그렇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한편 정기검진, 균형 있는 식사,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 제한의 경

우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특히 정기검진,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 제한, TV 등의 시청시간 제한의 경우는 거의 그렇지 않다는 응답의 비중도 높아 타 항목에 비해 부모의 지도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부표 Ⅲ-2-17 참조).

다음의 <표 Ⅲ-2-10>은 연구대상 부모가 자녀와 놀아주는 시간을 조사한 결과이다. 자녀와 놀아주는 시간은 1시간 내외가 4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30분 내외 25%, 2시간 내외 20% 순이었다. 놀아주지 않는 경우는 2%에 불과했다.

가족 유형별로 연구대상 부모가 하루에 자녀와 놀아주는 시간에 대한 응답은 <부표 Ⅲ-2-18>과 같다. 한부모가정의 경우에 1시간 내외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30분 내외, 2시간 내외 순이었으며, 조손가정의 경우는 30분 내외, 1시간 내외, 2시간 내외 순으로 많았다. 따라서 모든 가족 유형이 대체적으로 하루에 30분에서 2시간 정도를 자녀들과 놀아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놀아주지 않는다는 응답은 매우 적었다(부표 Ⅲ-2-18 참조).

다문화가정의 경우 부모가 하루에 자녀와 놀아주는 시간은 1시간 내외가 31.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30분 내외 27.6%, 2시간 내외 23.1%, 3시간 이상 13.6% 순이었다. 놀아주지 않는 경우는 4.0%에 불과했다(부표 Ⅲ-2-19 참조).

〈표 Ⅲ-2-10〉 자녀와의 놀이 시간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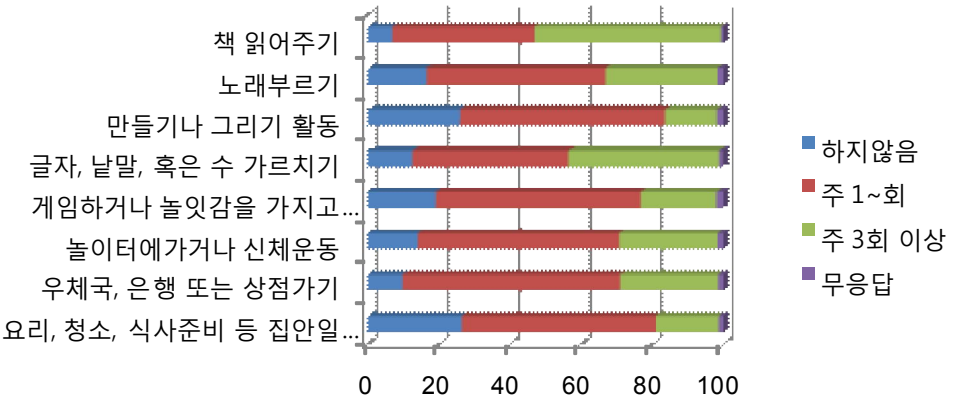
구분	빈도	비율
놀아주지 않음	87	2.4
30분 내외	929	25.2
1시간 내외	1,582	42.8
2시간 내외	754	20.4
3시간 이상	267	7.2
기타	45	1.3
무응답	29	0.8
전체	3,693	100.0

연구대상 부모가 자녀와 놀아주는 활동은 책 읽어주기가 주 3회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노래 부르기, 만들기나 그리기, 글자 및 수 가르치기, 놀이터에 가거나 신체운동, 우체국이나 은행이나 상점에 가기 및 집안일 하기는 주 1~2회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한편 만들기나 그리기 및 집안일 하기는 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각각 26.0% 및 26.5%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Ⅲ-2-11〉 자녀와 함께하는 활동

단위: %(명)

구분	책읽어 주기	노래 부르기	만들기나 그리기	글자, 수 지도	게임, 놀아주기	놀이터, 신체운동	우체국, 은행, 상점 가기	집안일 하기
하지 않음	7.0	16.5	26.0	12.6	19.2	14.1	9.9	26.5
주1~2회	39.9	50.3	57.6	43.9	57.6	56.6	61.1	54.5
주3회 이상	52.4	31.5	14.5	42.2	21.2	27.6	27.4	17.6
무응답	0.7	1.7	1.9	1.2	2.0	1.7	1.6	1.4
전체	100.0 (3,693)	100.0 (3,693)	100.0 (3,693)	100.0 (3,693)	100.0 (3,693)	100.0 (3,693)	100.0 (3,693)	100.0 (3,693)



〔그림 Ⅲ-2-2〕 자녀와 함께하는 활동

한편, 한부모가정의 경우 부모가 자녀와 함께하는 활동은 책 읽어주기, 노래 부르기, 만들기나 그리기, 글자 및 수 가르치기, 게임하거나 놀아주기, 놀이터에 가거나 신체운동, 우체국이나 은행이나 상점에 가기 및 집안일 하기 등 모든 활동에서 주 1~2회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부표 Ⅲ-2-20부터 부표 Ⅲ-2-27까지 참조).

조손가정의 경우, 부모가 자녀와 함께하는 활동은 노래 부르기, 만들기나 그리기, 게임하거나 놀아주기, 놀이터에 가거나 신체운동 및 집안일 하기의 활동에서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한편 글자 및 수 가르치기, 우체국이나 은행이나 상점에 가기의 활동은 주 1~2회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부모가 자녀와 함께 책을

읽는 활동은 주 3회 이상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27.6%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부표 Ⅲ-2-20부터 부표 Ⅲ-2-27까지 참조).

다문화가정의 경우, 부모가 자녀와 함께하는 활동은 책 읽어주기, 노래 부르기, 만들기나 그리기, 글자 및 수 가르치기, 게임하거나 놀아주기, 놀이터에 가거나 신체운동, 우체국이나 은행이나 상점에 가기 및 집안일 하기 등 모든 활동에서 주 1~2회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한편 만들기나 그리기, 게임하거나 놀아주기 및 집안일 하기는 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각각 28.9%, 31.3% 및 35.7%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부표 Ⅲ-2-28 참조).

다음의 <표 Ⅲ-2-12>는 연구 대상 부모가 지역규모 및 가구소득수준에 따라 자녀와 함께 하는 활동 유무는 다음과 같다. 인형극, 뮤지컬, 미술관, 박물관 등에 가는 활동 및 놀이공원, 동물원, 수족관 등에 가는 활동은 모든 지역규모의 부모들이 한 경험이 있다고 한 부모들이 훨씬 많았다. 한편 도서관에 가는 활동은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경험 있다고 응답한 부모들이 많은 반면 읍・면 지역은 없다고 응답한 부모들이 50.2%로 있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지역규모에 따른 자녀와 함께 하는 활동 유무의 차이를 χ^2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규모에 따라 자녀와 도서관 가는 활동(χ^2=83.61 p<.001), 인형극·뮤지컬·미술관·박물관 가는 활동(χ^2=69.71 p<.001), 놀이공원·동물원·수족관에 가는 활동(χ^2=39.16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중소도시나 대도시 지역의 부모들이 읍・면 지역의 부모들보다 자녀와 함께 도서관, 인형극·뮤지컬·미술관·박물관, 인형극·뮤지컬·미술관·박물관 가는 활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읍・면 지역이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차상위층과 3층 이상의 소득수준의 부모들이 모든 활동에 대해서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높은데 반해 기초생활보장을 받는 소득수준의 부모들은 놀이공원, 동물원, 수족관을 가는 활동의 경우만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4.1%로 없다는 응답보다 다소 높았고 다른 활동들은 없다는 응답이 더 많아 소득수준이 부모가 자녀와 함께하는 활동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소득수준에 따른 자녀와 함께 하는 활동 유무의 차이를 χ^2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수준에 따라 자녀와 도서관 가는 활동(χ^2=83.61 p<.001), 인형극·뮤지컬·미술관·박물관 가는 활동(χ^2=69.71

p<.001), 놀이공원·동물원·수족관에 가는 활동(χ^2=39.16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부모들은 도서관, 인형극·뮤지컬·미술관·박물관, 인형극·뮤지컬·미술관·박물관 가는 활동이 더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12〉 지역규모 및 가구소득수준별 자녀와 함께하는 활동 유무

단위: %

구분	도서관 방문		인형극, 뮤지컬 관람 미술관, 박물관 방문		놀이공원, 동물원, 수족관 방문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지역규모						
대도시	62.7	37.3	69.9	30.1	80.7	19.3
중소도시	66.4	33.6	71.1	28.9	78.9	21.1
읍・면지역	49.8	50.2	56.9	43.1	70.2	29.8
$\chi^2(df)$	83.61*** (2)		69.71*** (2)		39.16*** (2)	
소득수준						
기초생활보장	36.9	63.1	34.8	65.2	54.1	45.9
차상위층	50.7	49.3	52.5	47.5	66.7	33.3
3층 이상	60.0	40.0	67.2	32.8	79.1	20.9
$\chi^2(df)$	33.04*** (2)		73.78*** (2)		59.12*** (2)	

***p<.001.

한부모가정의 경우, 부모가 최근 6개월간 자녀와 함께 도서관에 가는 활동은 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으나 있다고 응답한 비율과 거의 비슷했다. 한편 인형극, 뮤지컬, 미술관, 박물관 등에 가는 활동 및 놀이공원, 동물원, 수족관 등에 가는 활동은 경험 있다고 응답한 부모들이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부모들보다 많았다(부표 Ⅲ-2-29부터 부표 Ⅲ-2-31까지 참조).

조손가정의 경우, 최근 6개월간 자녀와 함께 놀이공원, 동물원, 수족관 등에 가는 활동은 경험 있다고 응답한 부모들이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부모들보다 많았다. 한편 도서관 가기 및 인형극, 뮤지컬, 미술관, 박물관 등에 가는 활동은 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부모들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부모보다 훨씬 많았으나 인형극, 뮤지컬, 미술관, 박물관 등에 가는 활동에 대한 응답 비율은 있다는 응답과 없다는 응답이 비슷한 수준이었다(부표 Ⅲ-2-29부터 부표 Ⅲ-2-31까지 참조).

다문화가정의 경우, 부모가 최근 6개월간 자녀와 문화 활동을 했는지 여부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다. 도서관 가기 및 인형극, 뮤지컬, 미술관, 박물관 등에 가는 활동은 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부모들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부모보다 훨씬 많았

다. 한편 놀이공원, 동물원, 수족관 등에 가는 활동은 경험 있다고 응답한 부모들이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부모들보다 많았다(부표 Ⅲ-2-32 참조).

<표 Ⅲ-2-13>은 연구 대상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하여 중요도 순으로 두 가지 대답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선택한 대답에 대하여 순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Ⅲ-2-13>에 제시되어 있다. 부모들은 학원, 학습지 등 자녀 사교육비의 부담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서의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보고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취업으로 인해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 부족, 자녀를 돌보아 줄 사람이 없음, 자녀 학습지도 방법을 잘 모르겠음, 자녀 양육방법을 잘 모르겠음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2-13〉 자녀를 양육 시 어려운 점

가중치부여 순위	내용
1	학원, 학습지 등 자녀 사교육비가 부담스러움
2	자녀 학습지도 방법을 잘 모르겠음
3	유치원 교육비가 부담스러움
4	자녀 양육방법을 잘 모르겠음
5	취업으로 인해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함

가족유형별로 연구대상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하여 중요도 순으로 두 가지 대답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선택한 대답에 대하여 순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부표 Ⅲ-2-33>에 제시되어 있다. 한부모가정은 취업으로 인해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응답하였고, 자녀를 돌보아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 두 번째로 높은 응답이었다. 한편 조손가정은 자녀 학습 지도 방법을 잘 모르겠는 것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응답하였고, 두 번째로 높은 응답은 취업으로 인해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다문화가정의 경우,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가장 어려운 점은 학원, 학습지 등 자녀 사교육비가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자녀 학습지도 방법을 잘 모르겠음, 유치원 교육비가 부담스러움, 자녀 양육방법을 잘 모르겠음, 취업으로 인해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 부족 순으로 나타났다(부표 Ⅲ-2-34 참조).

3. 자녀의 유치원 교육

가. 자녀의 유치원 교육

연구대상 부모의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은 공립이 61.6%, 사립이 36.9%로 나타났다.

〈표 III-3-1〉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 유형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공립	2,276	61.6
사립	1,362	36.9
무응답	55	1.5
전체	3,693	100.0

연구대상 부모가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하여 중요도 순으로 두 가지 대답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선택한 대답에 대하여 순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Ⅲ-3-2>에 제시되어 있다. 부모들은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 자녀를 유치원에 보낸다는 응답을 가장 많이 하였다. 그 다음은 사회성 발달을 위하여, 초등학교 준비를 위하여, 취업 등으로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서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별로 연구대상 부모가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하여 중요도 순으로 두 가지 대답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선택한 대답에 대하여 순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부표 Ⅲ-3-1>에 제시되어 있다. (한)조부모와 양부모(부부) 및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유형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가족에서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 자녀를 유치원에 보낸다는 응답을 가장 많이 하였다. 한편 한부모가정의 경우 사회성 발달을 위해 유치원에 보낸다는 응답이 두 번째로 많았고, 조손가정의 경우는 취업 등으로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서 자녀를 유치원에 보낸다는 응답이 두 번째로 높았다.

다문화가정의 경우, 부모가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는 가장 큰 이유는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이다. 그 다음은 사회성 발달을 위하여, 초등학교 준비를 위하여, 같이 놀 또래 친구들이 없어서, 취업 등으로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서 순으로 나타났다(부표 Ⅲ-3-2 참조).

〈표 Ⅲ-3-2〉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는 가장 큰 이유

가중치부여 순위	변수 값
1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하여
2	사회성 발달을 위하여
3	초등학교 준비를 위하여
4	같이 놀 또래 친구들이 없어서

연구대상 부모가 현재 다니는 유치원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에 대하여 중요도 순으로 두 가지 대답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선택한 대답에 대하여 순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Ⅲ-3-3>에 제시되어 있다. 부모들은 정규 교육 내용이 좋다는 것이 현재 다니고 있는 유치원을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됐다고 보고하였다. 그 다음은 비용이 저렴해서, 집에서 가까워서, 원장과 교사가 좋아서, 시설환경이 좋아서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3-3〉 현재 다니고 있는 유치원을 선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

가중치부여 순위	변수 값
1	정규 교육내용이 좋아서
2	집에서 가까워서
3	비용이 저렴해서
4	형제자매가 같이 다니고 있어서
5	원장, 교사가 좋아서

가족유형별로 연구대상 부모가 현재 다니는 유치원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에 대하여 중요도 순으로 두 가지 대답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선택한 대답에 대하여 순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부표 Ⅲ-3-3>에 제시되어 있다. 모든 유형의 가족에서 정규 교육 내용이 좋기 때문에 현재 다니고 있는 유치원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한)조부모와 한부모 및 자녀, (한)조부모와 양부모(부부) 및 자녀 가족 유형의 경우는 집과의 가까운 거리 때문에 현재 다니는 유치원을 선택했다는 응답이 두 번째로 많았고, 나머지 가족 유형의 경우에는 저렴한 비용 때문에 현재 다니는 유치원을 선택했다는 응답이 두 번째로 많았다.

다문화가정의 부모가 현재 다니는 유치원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정규 교육내용이 좋아서이다. 그 다음은 집에서 가까워서, 비용이 저렴해서, 형제자매가 같이 다니고 있어서, 원장과 교사가 좋아서 순으로 나타났다(부표 Ⅲ-3-4참조).

<표 Ⅲ-3-4>는 연구대상 부모가 유치원에서 더욱 강화되기를 희망하는 교육내용은 정서·사회성 발달 지원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문화체험, 예체능 특기교육,

초등학교 학습준비, 기본생활습관 지도, 외국어 교육, 인지·언어 발달 지원, 부모교육 및 참여활동 순으로 나타났다.

한부모가정의 경우 유치원에서 더욱 강화되기를 희망하는 교육내용은 정서·사회성 발달 지원이 약 31%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초등학교 학습준비, 문화체험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조손가정의 경우인지 · 언어 발달 지원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정서·사회성 발달 지원, 예체능 특기 교육 순으로 많았다(부표 Ⅲ-3-5 참조).

다문화가정의 부모가 유치원에서 더욱 강화되기를 희망하는 교육내용은 정서·사회성 발달 지원이 23.3%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인지·언어 발달 지원, 초등학교 학습준비, 기본생활습관 지도, 외국어 교육, 문화체험과 예체능 특기교육, 부모교육 및 참여활동 순으로 나타났다(부표 Ⅲ-3-6 참조).

〈표 Ⅲ-3-4〉 유치원에서 더욱 강화되기를 희망하는 교육내용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정서·사회성 발달 지원	1,149	31.1
인지·언어 발달 지원	444	12.0
초등학교 학습 준비	505	13.7
예체능 특기교육	679	18.4
외국어 교육	453	12.3
문화체험	837	22.7
기본생활습관 지도	466	12.6
부모교육 및 참여활동	147	4.0
기타	50	1.2
무응답	50	1.4
전체	4,780	129.4

다음의 <표 Ⅲ-3-5>는 가정통신문이나 부모교육 자료 등이 자녀 교육이 도움이 되는지에 관해 5점 척도로 응답한 것이다. 그 결과 공립의 경우에는 평균 점수가 3.89, 사립의 경우에는 4.05로 모두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즉,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에서 모두 가정통신문이나 부모교육 자료 등이 자녀 교육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러한 두 집단 간의 평균점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인지에 관한 분석을 하였다. 설립유형에 따른 가정통신문이나 부모교육 자료 등이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되는 정도의 차이를 t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사립유치원의 부모들이 국공립유치원의 부모들보다

가정통신문이나 부모교육 자료 등이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되는 정도(t=-6.05, p<.001)가 더 높다고 보고하였다.

〈표 Ⅲ-3-5〉 가정통신문이나 부모교육 자료 등이 자녀 교육에 도움되는 정도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국공립	3.89	.78	-6.05***
사립	4.05	.75	

***p<.001.

다음의 <표 Ⅲ-3-6>은 연구대상 부모가 부모교육・부모참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것이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 이용 부모 모두 부모교육·부모참여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 응답이 각각 63.8%, 72.4%로 참여하지 않았다는 응답보다 훨씬 많이 나타났다. 설립유형에 따른 부모교육·부모참여 프로그램 참여여부(χ^2=83.61 p<.001)를 χ^2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이를 통해 사립유치원의 부모들이 국공립유치원의 부모들보다 부모교육·부모참여 프로그램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3-6〉 부모교육·부모참여 프로그램 참여 여부

단위: %(명)

구분	참여함	참여하지 않음	전체
전체	65.1	32.0	100.0(3,693)
국공립	63.8	36.2	100.0(2,212)
사립	72.4	27.6	100.0(1,327)
$\chi^2(df)$	27.67*** (1)		

***p<.001.

부모교육·부모참여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부모를 대상으로 참여하지 않은 이유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부모교육·부모참여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참여할 시간을 내기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43.1%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시간이 맞지 않아서 27.2%, 돌보아야하는 다른 자녀가 있어서 14.9%, 참여하는 것이 번거로워서 3.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0.4%로, 부모교육·부모참여 프로그램의 내용 때문에 참여하지 않는다기 보다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Ⅲ-3-7〉 부모교육·부모참여 프로그램 미참여 이유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5	0.4
시간이 맞지 않아서	337	27.2
시간을 내기 어려워서	533	43.1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12	1.0
돌보아야 하는 다른 자녀가 있어서	184	14.9
기관을 방문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20	1.6
참여하는 것이 번거로워서	45	3.6
기타	31	2.5
비해당	33	2.7
무응답	37	3.0
합계	1,237	100.0

주: 중복응답 문항은 아니었으나 중복으로 답한 경우도 포함

설립유형에 따른 가정에서 실제 납부하는 자녀의 월 평균 유치원 교육비의 차이를 F 검증으로 분석한 결과, 설립유형에 따라 유아의 수업료(F=1749.56, p<.001), 교재교구(F=260.46, p<.001), 급·간식(F=14.97, p<.001), 차량운영(F=32.34, p<.001), 특기적성(F=489.85, p<.01), 현장학습(F=9.31, p<.01), 종일반(F=146.30, p<.01) 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가 어떤 집단 간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Scheffe 사후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다음으로, 지역규모에 따른 가정에서 실제 납부하는 자녀의 월 평균 유치원 교육비의 차이를 F 검증으로 분석한 결과, 지역규모에 따라 유아의 수업료(F=62.87, p<.001), 교재교구(F=8.19, p<.001), 급·간식(F=57.31, p<.001), 차량운영(F=5.24, p<.01), 특기적성(F=3.95, p<.05), 현장학습(F=4.85, p<.01), 종일반(F=18.87, p<.001) 비용 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가 어떤 집단 간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Scheffe 사후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유아보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유아의 교재교구, 급·간식, 차량운영, 현장학습 및 종일반 납부 비용이 더 높으며, 수업료는 지역규모가 클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소득수준에 따른 가정에서 실제 납부하는 자녀의 월 평균 유치원 교육비의 차이를 F 검증으로 분석한 결과, 수업료(F=23.99, p<.001), 급·간식(F=3.21, p<.05) 수준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가 어떤 집단 간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Scheffe 사후 검증한 결과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가족유형별 가정에서 실제 납부하는 자녀의 월 평균 유치원 교육비에 대한 결과는 <부표 Ⅲ-3-7>과 같다. 모든 가족 유형에 있어서 수업료가 유치원 교육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급·간식 비용이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문화가정에서는 수업료가 유치원 교육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급·간식 비용이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다음은 종일반비, 교재 및 교구 비용, 현장학습비, 특기적성비, 차량운영비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부표 Ⅲ-3-8 참조).

〈표 Ⅲ-3-8〉 가정에서 실제 납부하는 자녀의 월 평균 유치원 교육비

단위: 원

구분	수업료 M(SD)	교재교구 M(SD)	급간식 M(SD)	차량운영 M(SD)	특기적성 M(SD)	현장학습 M(SD)	종일반 M(SD)	기타 M(SD)	합계 M(SD)
설립유형									
국공립	26252.1 (36007.14)	4272.8 (21147.218)	29518.6 (21922.96)	1357.5 (9706.10)	4220.9 (16825.36)	5728.1 (10443.64)	7898.1 (18777.42)	787.8 (13050.61)	80390.1 (61363.37)
사립	114321.0 (88798.47)	18763.7 (29618.11)	22764.7 (25100.37)	2593.8 (8634.31)	17232.2 (30420.21)	5777.1 (23230.49)	16803.1 (41895.28)	1100.6 (9705.33)	201863.0 (126582.41)
t	174.956***	260.46***	14.97***	32.34***	489.85**	9.31**	146.30**	2.20	555.35***
지역규모									
대도시	88471.8c (90640.79)	14004.6b (30660.85)	32385.3b (29268.53)	3141.6b (11952.92)	8079.6 (23247.42)	8167.1b (33232.11)	14244.4b (31724.10)	932.6 (7070.75)	170964.5c (144027.35)
중소도시	68663.4b (74562.56)	10274.4a (24100.85)	30738.6b (21459.30)	2147.0 (8977.24)	11176.0 (27513.31)	5399.6a (10847.75)	15269.9b (40086.36)	733.7 (5564.74)	144149.4b (105864.63)
읍면지역	44553.2a (66532.24)	8143.0a (25146.50)	21409.4a (21407.05)	1366.8a (9871.78)	8501.3 (21352.11)	5309.1a (11322.68)	7337.8a (20047.95)	1082.1 (16222.31)	99674.9a (90775.74)
F	62.87***	8.19***	57.31***	5.24**	3.95*	4.85**	18.87***	0.28	75.74***
소득수준									
기초생활보장	32560.0 (54251.98)	14189.2 (38522.25)	20513.5 (20794.65)	933.3 (4627.57)	6440.0 (18149.71)	4933.3 (12681.48)	14080.0 (24930.59)	148.2 (1212.61)	94333.3a (96025.03)
차상위층	41200.0 (62509.28)	11840.3 (28733.53)	23847.9 (24537.86)	2477.1 (8534.66)	12526.5 (24079.86)	6568.2 (13167.36)	12713.2 (30202.11)	24.5 (349.64)	112108.8 (104484.15)
3층 이상	70553.3 (77204.03)	10173.2 (25035.28)	26260.4 (21990.99)	2165.7 (10952.49)	10522.0 (26766.37)	5396.2 (10550.01)	10612.2 (23118.18)	8357.3 (217.38)	137551.0b (103648.55)
F	23.99***	1.11	3.21*	0.65	1.69	1.32	1.35	2.17	10.04***

주: a, b, c는 집단 간 차이를 나타냄.

*p<.05. **p<.01. ***p<.001.

<표 Ⅲ-3-9>는 연구대상 부모의 자녀가 종일반을 이용하는지 여부는 국공립과 사립 모두 이용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한편 국공립은 이용한다는 응답이 73.0%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 25.7%에 비해 훨씬 많았으나, 사립의 경우는 이용한다는 응답이 55.1%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 44.3%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3-9〉 자녀의 유치원 종일반 이용 여부

단위: %(명)

구분	이용함	이용하지 않음	종일반 없음	전체
전체	65.7	32.4	1.0	100.0(3,693)
국공립	73.0	25.7	1.3	100.0(2,260)
사립	55.1	44.3	0.5	100.0(1,353)
$\chi^2(df)$		135.94(2)		

연구대상 부모의 자녀가 종일반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긴 시간동안 자녀가 유치원에 있는 게 싫어서라는 응답이 48.4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오후에 학원, 복지관 등 다른 기관에 다니기 위해서, 특별한 교육활동이 없어서, 비용이 부담되어서(특별한 교육활동이 없어서라는 응답과 동 순위), 이용시간이 짧아서, 특별활동 위주로 진행되어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Ⅲ-3-10 참조).

〈표 Ⅲ-3-10〉 유치원 종일반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특별활동 위주로 진행되어서	6	0.48
특별한 교육활동이 없어서	51	4.05
비용이 부담되어서	51	4.05
긴 시간동안 자녀가 유치원에 있는 게 싫어서	609	48.45
이용시간이 짧아서	9	0.72
오후에 학원, 복지관 등 다른 기관에 다니기 위해	254	20.21
기타	190	15.12
무응답	87	6.92
합계	1,257	100.0

주: 중복응답 문항은 아니었으나 중복으로 답한 경우도 포함

연구대상 부모의 자녀가 현재 다니는 유치원을 그만두고 다른 기관으로 옮길 의향이 있는지 여부는 옮길 의향이 없다는 응답이 국공립과 사립 각각 97.3% 및 96.7%로 옮길 의향이 있다는 의견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설립유형에 따른 현재 다

니는 유치원을 그만두고 다른 기관으로 옮길 의향 여부를 χ^2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III-3-11〉 현재 다니는 유치원을 그만두고 다른 기관으로 옮길 의향

단위: %(명)

구분	예	아니오	전체
전체	2.9	97.1	100.0(3,582)
국공립	2.7	97.3	100.0(2,242)
사립	3.3	96.7	100.0(1,340)
$\chi^2(df)$		0.93(1)	

연구대상 부모의 자녀가 현재 다니고 있는 유치원을 옮길 의향이 있는 경우, 그 이유는 운영시간 때문이라는 응답이 16.3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교육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집과의 거리가 멀어서(교육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라는 응답과 동 순위), 원 운영 철학 및 방침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급·간식이 부실해서, 시설·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원장이나 교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I-3-12〉 옮길 의향이 있는 경우 이유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교육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15	12.3
시설·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5	4.1
원장, 교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4	3.3
원 운영 철학 및 방침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8	6.6
비용이 부담되어서	10	8.2
운영시간 때문에	20	16.4
급·간식이 부실해서	6	4.9
집과의 거리가 멀어서	15	12.3
기타	17	13.9
무응답	22	18.0
합계	122	100.0

주: 중복응답 문항은 아니었으나 중복으로 답한 경우도 포함

연구대상 부모의 자녀가 현재 다니고 있는 유치원을 옮길 의향이 있는 경우 희망하는 기관은 다른 유치원이라는 응답이 49.1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보육시설, 영어학원이나 영어유치원(보육시설과 동 순위), 예체능 및 보습학원, 놀

이학원이나 놀이학교, 아무데도 다니지 않는다는 응답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Ⅲ-3-13〉 옮길 의향이 있는 경우 희망하는 기관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다른 유치원	56	49.1
보육시설	12	10.5
영어학원(영어유치원)	12	10.5
예체능 및 보습학원	7	6.1
놀이학원(놀이학교)	6	5.3
기타	1	0.9
아무데도 다니지 않음	3	2.6
무응답	17	14.9
합계	114	100.0

주: 중복응답 문항은 아니었으나 중복으로 답한 경우도 포함

나. 유치원 외에 이용하는 학원, 복지관, 학습지 등의 기타교육

지역규모에 따른 유치원 외에 이용하는 기관 교육프로그램의 개수의 차이를 F 검증으로 분석한 결과, 지역규모에 따라 음악(F=4.02, p<.05), 미술(F=6.02, p<.01), 체육(F=9.29, p<.001), 영어(F=7.70, p<.001) 및 교구놀이(F=8.64, p<.001) 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가 어떤 집단 간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Scheffe 사후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유아보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유아가 미술, 체육, 영어, 교구놀이 프로그램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규모에 따른 유아의 수·과학, 한글 프로그램 이용 개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다음으로, 소득수준에 따른 유치원 외에 이용하는 기관 교육프로그램의 개수의 차이를 F 검증한 결과 모든 프로그램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다문화가정의 경우, 유치원 외에 이용하는 기관 교육프로그램의 개수는 미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응답자가 유치원 외에 이용하는 기관 교육프로그램이 너무 적어 실제적인 파악이 어렵다(부표 Ⅲ-3-9 참조).

〈표 Ⅲ-3-14〉 유치원 외에 이용하는 기관교육 프로그램 개수

단위: 개

구분	음악 *M(SD)*	미술 *M(SD)*	체육 *M(SD)*	수·과학 *M(SD)*	한글 *M(SD)*	영어 *M(SD)*	교구놀이 *M(SD)*	기타 *M(SD)*
지역규모								
대도시	0.2[a](0.37)	0.2[b](0.45)	0.2(0.44)	0.1(0.34)	0.1(0.31)	0.2[b](0.44)	0.1[a](0.23)	0.1(0.24)
중소도시	0.2[b](0.43)	0.2(0.43)	0.2(0.44)	0.1(0.32)	0.1(0.33)	0.1[a](0.32)	0.1[b](0.46)	0.1(0.24)
읍·면	0.2(0.42)	0.2[a](0.37)	0.1[a](0.36)	0.1(0.29)	0.1(0.32)	0.1[a](0.31)	0.0[a](0.23)	0.1(0.29)
F	4.02[*]	6.02[**]	9.29[***]	0.52	0.52	7.70[***]	8.64[***]	0.16
소득수준								
기초생활보장	0.1(0.33)	0.1(0.31)	0.1(0.29)	0.1(0.43)	0.1(0.26)	0.0(0.13)	0.1(0.29)	0.1(0.29)
차상위층	0.2(0.38)	0.2(0.38)	0.1(0.36)	0.1(0.27)	0.1(0.30)	0.1(0.44)	0.1(0.23)	0.0(0.18)
3층 이상	0.2(0.39)	0.2(0.42)	0.2(0.42)	0.1(0.30)	0.1(0.33)	0.1(0.33)	0.1(0.34)	0.1(0.29)
F	0.77	2.24	0.69	0.24	0.82	1.92	0.58	1.48

주: a, b는 집단 간 차이를 나타냄.
*p<.05. **p<.01. ***p<.001.

지역규모에 따른 유치원 외에 이용하는 기관 교육프로그램의 비용의 차이를 *F* 검증으로 분석한 결과, 지역규모에 따라 미술(F=9.24, p<.05), 체육(F=4.86, p<.001) 및 수·과학(F=5.08, p<.01) 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가 어떤 집단 간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Scheffe 사후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유아가 이용하는 기관 교육프로그램의 비용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유아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규모에 따른 음악, 한글, 영어, 교구놀이 프로그램의 비용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다음으로, 소득수준에 따른 유치원 외에 이용하는 기관 교육프로그램의 비용의 차이를 *F* 검증한 결과 모든 교육프로그램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유치원 외에 이용하는 기관 교육프로그램의 비용은 모든 가족 유형의 경우에 있어서 영어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조손가정의 경우 수·과학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부표 Ⅲ-3-10 참조).

다문화가정의 경우, 유치원 외에 이용하는 기관 교육프로그램의 비용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다. 수·과학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이 가장 높았으며, 한글, 음악, 기타, 미술, 체육, 영어, 교구놀이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부표 Ⅲ-3-11 참조).

〈표 Ⅲ-3-15〉 유치원 외에 이용하는 기관교육 프로그램 비용

단위: 원

구분	음악 *M(SD)*	미술 *M(SD)*	체육 *M(SD)*	수·과학 *M(SD)*	한글 *M(SD)*	영어 *M(SD)*	교구놀이 *M(SD)*	기타 *M(SD)*
지역규모								
대도시	75180.3 (30512.02)	60576.1[a] (35418.76)	61708.9[a] (31251.32)	45946.0 (23155.21)	39600.0 (23751.41)	83472.7 (66945.21)	47047.6 (32089.68)	60703.7 (66014.46)
중소도시	79556.2 (23898.55)	78000.0[b] (64145.14)	84547.5[b] (44056.44)	74125.0 (97647.53)	51842.1[b] (57679.47)	92160.9 (59618.92)	65169.0 (37040.51)	70301.9 (59057.53)
읍·면	84179.0 (57342.28)	70805.6 (27754.73)	75520.0[b] (29562.56)	43100.0[a] (24789.03)	45357.8 (28584.03)	85978.3 (73921.55)	58533.3 (59591.64)	76228.1 (122288.16)
F	1.19	4.24*	9.86***	5.08**	1.25	0.33	1.35	0.26
소득수준								
기초생활보장	73750.0 (30207.62)	59400.0 (38881.87)	72857.1 (30394.24)	55333.3 (38682.47)	49500.0 (33729.32)	92500.0 (81317.28)	22333.3 (19655.36)	97000.0 (0)
차상위층	71486.5 (25409.56)	68648.7 (31964.58)	79617.7 (48738.64)	54437.5 (23740.17)	49750.0 (27314.69)	103952.4 (122273.66)	44875.0 (29978.27)	77333.3 (108755.46)
3층 이상	76448.5 (23047.82)	71110.6 (59620.40)	73666.7 (31594.68)	50093.8 (58615.98)	40157.5 (38829.18)	79945.5 (56005.05)	58971.4 (36444.90)	55859.0 (53924.60)
F	0.71	0.13	0.41	0.05	0.66	1.04	1.98	0.70

주: a, b는 집단 간 차이를 나타냄.
*p<.05. **p<.01. ***p<.001.

4. 요약 및 시사점

가. 요약

이상에서 교육취약계층 유아의 교육 및 생활 실태를 알아보았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계층에 따른 교육취약계층 가정의 유아 및 부모 변인들을 요약하여 정리하여 보면 <표 Ⅲ-4-1>와 같다.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층, 차상위계층, 3층이상의 소득수준에 속하는 저소득 가정의 유아 발달특성, 유치원 하원 이후 유아의 생활, 부모의 자녀 관리 및 지도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그 특성이 차이가 있는지 제시하였다.

〈표 Ⅲ-4-1〉 소득수준별(기초생활보장/차상위층/3층이상) 유아의 교육 및 생활 특성

구분	내용
유아발달 특성	- 기초생활보장 수급권 가정 유아가 3층이상 소득수준에 속한 가정 유아보다 인지, 언어, 사회성, 정서발달이 더 낮은 것으로 부모들이 인식하고 있었음. - 소득수준에 따른 신체발달 수준은 차이가 없음.
유치원 하원이후의 생활	- 기초생활보장 수급권 가정의 유아가 3층이상 소득수준에 속한 가정의 유아보다 책읽기, 방문교육 활동에 더 적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TV시청 및 게임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 가정의 유아가 3층이상 소득수준에 속한 가정의 유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자녀관리 및 지도	- 기초생활보장 수급권 가정의 유아가 3층이상 소득수준에 속한 가정의 유아보다 건강, 청결/위생, 영양, 생활습관에 대한 지도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부모들은 도서관, 인형극·뮤지컬·미술관·박물관 가는 활동을 많이 함.

다음으로 지역규모별에 따른 교육취약계층 가정의 유아 및 부모 변인들을 요약하여 정리하여 보면 <표 Ⅲ-4-2>와 같다. 읍·면지역/중소도시/대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정의 유아발달특성, 유치원 하원 이후의 생활, 자녀 관리 및 지도, 자녀의 유치원 교육, 유치원 외의 기타교육에 관하여 거주하는 지역 규모에 따라 그 특성이 차이가 있는 지를 살펴본 결과를 <표 Ⅲ-4-2>에 정리하였다.

〈표 Ⅲ-4-2〉 지역별(읍•면지역/중소도시/대도시) 유아의 교육 및 생활 특성

구분	내용
유아발달 특성	-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유아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유아보다 신체발달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부모들이 인식하고 있었음. -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유아가 대도시에 거주하는 유아보다 정서발달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부모들이 인식하고 있었음.
유치원 하원이후의 생활	- 저소득 가정의 영유아들은 대부분 유치원을 오후 3시 이후까지 이용하고 있었음. -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유아가 대도시에 거주하는 유아보다 혼자놀기, 책읽기, 어른과의 외출활동에 더 적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유아가 대도시 및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유아보다 게임과 혼자 돌아다니는 활동에 더 적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계속)

구분	내용
자녀관리 및 지도	- 읍·면지역의 부모들이 중소도시나 대도시 지역의 부모들 보다 자녀와 함께 도서관, 인형극·뮤지컬·미술관·박물관 가는 활동을 더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남.
자녀의 유치원 교육	-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유아보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유아의 교재교구, 급간식, 차량운영, 현장학습 및 종일반 납부비용이 더 높으며, 수업료는 지역규모가 클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유치원 외의 기타교육	-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유아가 대도시에 거주하는 유아보다 미술, 체육, 영어, 교구놀이 프로그램을 더 적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유아가 이용하는 기관교육 프로그램의 비용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유아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교육취약계층 가정 유아의 교육 및 생활 실태 분석에서 살펴본 내용들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빈도분석 결과들을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아동발달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지역규모와 소득수준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교육취약계층 가정의 부모들은 유아의 사회성 발달을 가장 염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권 가정의 부모들만이 유아의 정서발달을 가장 염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을 요약해보면, 교육취약계층 유아의 대부분이 오후 3시 이후까지 운영되는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공립 유치원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부모들은 유치원 종일반을 이용하고 있었고, 사립유치원을 이용하는 부모들의 경우도 과반수이상이 종일반을 이용하고 있었다. 부모들이 유치원에서 더욱 강화되기를 희망하는 교육내용으로 정서·사회성 발달을 가장 많이 꼽았다. 유치원에서 제공하는 부모교육·부모참여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는 시간을 내기 어려워서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시간이 맞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많았다. 현재 다니고 있는 유치원을 옮길 의향이 있는 경우, 그 이유는 운영시간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가족유형별 분석에서는 한부모가정의 경우는 자녀를 돌보아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하였다. 유치원에서 강화되기를 희망하는 교육내용으로는 정서·사회성 발달을 가장 많이 들었다.

한편 조손가정의 경우, 자녀와 함께 하는 모든 활동들에서 다른 가족 유형에 비해 열악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면, 책을 읽는 활동, 노래를 불러주는 활

동, 같이 만들기나 그리기 활동, 게임이나 놀잇감을 가지고 노는 활동, 신체운동을 함께 하는 활동 등에 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다른 가족 유형에 비해서 가장 많았다. 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활동, 도서관, 인형극, 뮤지컬, 박물관에 같이 가는 활동도 가장 하지 못하고 있는 가족 유형으로 밝혀졌다. 자녀 학습 지도 방법을 잘 모르겠는 점이 자녀 양육에서의 가장 어려운 점으로 들었다. 유치원에서 강화되기를 희망하는 교육내용으로 인지·언어발달을 가장 많이 들었다.

다문화가정의 경우, 유아의 정기검진,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 제한, TV 시청시간 제한의 경우 부모의 지도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발달에 있어서는 언어발달을 염려하는 점이나 자녀 학습지도 방법을 몰라 어려워하는 점들이 다른 교육취약계층 부모들과 다르게 더 어려움을 겪는 부분으로 지적되었다.

나. 시사점

이상의 요약을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먼저 소득수준에 따른 교육취약계층 가정의 유아의 교육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안하여 본다.

첫째, 기초생활보장 수급권 가정의 유아는 신체발달을 제외한 발달의 제반 영역들, 즉 인지, 언어, 사회성, 정서 발달을 도와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둘째, 기초생활보장 수급권 가정의 유아가 유치원 하원 이후 책을 읽으면서 보내는 시간이 다른 소득수준 가정의 유아보다 더 적고, TV보는 시간이나 게임을 하는 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비교육적인 활동에 시간을 소모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유치원 하원 이후의 교육적 프로그램의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기초생활보장 수급권 가정의 유아가 3층이상 소득수준에 속한 가정의 유아에 비해 건강, 청결/위생, 영양, 생활습관에 관한 지도가 잘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시사된다. 이 소득계층에 속한 부모들을 위한 개별방문이나 집단 형태의 부모교육을 통해 자녀의 건강, 청결/위생, 영양, 생활습관 지도를 잘 할 수 있도록 부모들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넷째, 기초생활보장 수급권 가정의 유아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인한 문화적인 혜택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들을 위한 문화체험프로그램 내용의 지원이 필요하다.

다섯째, 기초생활보장 수급권 가정의 부모들만이 유아의 정서발달을 가장 염려하고 있었고, 유아들의 건전한 정서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후의 문제행동 및 반사회적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는 위험요소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들

을 위한 정서지원 프로그램이 절실하다.

교육취약계층 부모들의 요구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면, 교육취약계층 가정의 부모들은 대체적으로 사회·정서 발달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원하고 있었으나, 다문화가정이나 조손가정의 경우는 언어발달, 인지발달을 조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 많이 원하고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교육취약계층 유아를 위한 프로그램 적용 시, 이를 고려한 맞춤형 형태의 지원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 받을 수 있다. 또한 부모들은 유치원 종일반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시사되었다.

다음으로 지역에 따른 교육취약계층 가정의 유아의 교육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안하여 본다.

첫째,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교육취약계층 가정의 유아들에게는 신체발달을 조장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대도시에 거주하는 교육취약계층 가정의 유아들의 경우에는 정서발달을 도와주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둘째, 대도시에 거주하는 교육취약계층 가정의 유아들이 유치원 하원 이후 혼자노는 시간이 많으며, 대도시와 중소도시 교육취약계층 유아들이 게임과 혼자 돌아다니기 활동이 더 많다는 것은 이 지역의 유아들이 더 많이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으로서 유치원 하원 이후에 이러한 유아들을 위한 보호 및 교육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교육취약계층 가정의 유아들이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교육취약계층 가정 유아들에 비해 건강지도가 잘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대도시나 중소도시 거주 유아들보다 생활습관 지도가 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읍·면 지역 거주 유아들을 위하여 가정방문을 통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고, 그 내용에 건강 및 생활습관 지도를 도울 수 있는 내용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교육취약계층 가정의 유아들이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함으로 인해 문화적인 혜택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들을 위한 문화체험프로그램 내용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Ⅳ. 교육취약계층 학부모의 육아지원정책 수혜 현황 및 요구

1. 육아지원정책

연구대상 부모의 자녀가 이용하는 유치원이 정부로부터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다. 3~4세아 차등교육비 및 만 5세아 무상교육비는 지원받는 다는 응답이 각각 27.7% 및 32.9%로 지원받지 않는다는 응답보다 많았고, 두 자녀이상 유아교육비 및 장애아 무상교육비는 지원받지 않는다는 응답이 각각 13.9% 및 13.8%로 지원받는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그러나 무응답의 비중이 높아 실제적인 파악이 어렵다.

〈표 Ⅳ-1-1〉 정부지원 유치원 교육비 수혜 여부

단위: %(명)

구분	3-4세아 차등교육비	만5세아 무상교육비	두 자녀 이상 유아교육비	장애아 무상교육비	종일반비
받음	27.7	32.9	13.8	0.7	21.7
받지 않음	14.5	15.1	13.9	13.8	13.1
무응답	57.8	52.0	72.3	85.5	65.2
전체	100.0(3,693)	100.0(3,693)	100.0(3,693)	100.0(3,693)	100.0(3,693)

지역규모에 따른 정부로부터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받는 경우의 지원 도움 정도의 차이를 F 검증으로 분석한 결과, 지역규모에 따라 장애아 무상교육비 지원(F=3.97, p<.05) 의 도움 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가 어떤 집단 간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Scheffe 사후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한편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두 자녀 이상 유아교육비 지원, 장애아 무상교육비 지원 및 종일반비 지원은 지역규모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다음으로, 소득수준에 따른 정부로부터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받는 경우의 지원 도움 정도의 차이를 F 검증한 결과 3~4세아 차등교육비 지원(F=9.93, p<.001) 의 도움 정도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가 어떤 집단 간의 차이에서 기

인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Scheffe 사후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한편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두 자녀 이상 유아교육비 지원, 장애아 무상교육비 지원 및 종일반비 지원은 소득수준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Ⅳ-1-2〉 정부지원 유치원 교육비의 도움 정도

구분	3-4세아 차등교육비 *M(SD)*	만5세아 무상교육비 *M(SD)*	두 자녀 이상 유아교육비 *M(SD)*	장애아 무상교육비 *M(SD)*	종일반비 *M(SD)*
지역규모					
대도시	4.1(1.01)	4.4(0.78)	4.2(0.90)	3.8(0.96)	4.5(0.77)
중소도시	4.1(1.01)	4.4(0.83)	4.3(0.92)	4.9(0.32)	4.5(0.74)
읍・면	4.1(1.07)	4.5(0.84)	4.4(0.90)	4.1(1.07)	4.6(0.71)
F	0.12	0.44	0.96	3.97*	1.69
소득수준					
기초생활보장	4.2(1.02)	4.4(0.91)	4.5(0.82)	4.3(1.16)	4.6(0.83)
차상위층	4.4(0.89)	4.6(0.71)	4.4(0.94)	5.0(0.00)	4.7(0.59)
3층 이상	4.0(1.04)	4.5(0.84)	4.5(0.79)	5.0(0.00)	4.5(0.73)
F	9.93***	1.90	0.09	0.78	2.29

*p<.05. **p<.01. ***p<.001.

지역규모에 따른 정부로부터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 금액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를 *F* 검증으로 분석한 결과, 3~4세아 차등교육비 지원(F=7.09, p<.01)에 대한 만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가 어떤 집단 간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Scheffe 사후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유아가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유치원 교육비에 대한 만족도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유아가 지원받는 교육비에 대한 만족도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규모에 따른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두 자녀 이상 유아교육비 지원, 장애아 무상교육비 지원 및 종일반비 지원에 대한 만족도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다음으로, 소득수준에 따른 정부로부터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 금액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를 *F* 검증한 결과 3~4세아 차등교육비 지원(F=20.58, p<.001)에 대한 만족도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가 어떤 집단 간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Scheffe 사후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차상위층 소득수준에 속한 가정의 유아가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유치원 교육비에 대한 만족도가 3층이상 소득수준에 속한 가정의

유아가 지원받는 교육비에 대한 만족도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득 수준에 따라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두 자녀 이상 유아교육비 지원, 장애아 무상교육비 지원 및 종일반비 지원에 대한 만족도 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Ⅳ-1-3〉 정부지원 유치원 교육비 금액에 대한 만족도

구분	3-4세아 차등교육비 *M(SD)*	만5세아 무상교육비 *M(SD)*	두 자녀 이상 유아교육비 *M(SD)*	장애아 무상교육비 *M(SD)*	종일반비 *M(SD)*
지역규모					
대도시	3.3(1.16)	3.8(1.03)	3.6(1.12)	3.8(0.96)	4.0(1.07)
중소도시	3.2(1.21)[a]	3.8(1.11)	3.5(1.20)	3.8(1.47)	4.0(1.04)
읍・면지역	3.5(1.23)[b]	3.9(1.13)	3.8(1.14)	39(1.07)	4.2(1.00)
F	7.09**	2.42	2.53	0.01	2.73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	3.5(1.14)	3.9(1.10)	3.8(1.30)	3.7(1.16)	3.9(1.20)
차상위층	3.9(1.14)[b]	4.0(1.01)	3.8(1.11)	3.7(2.31)	4.3(0.95)
3층 이상	3.1(1.20)[a]	3.8(1.15)	3.7(1.17)	4.3(0.58)	4.1(1.03)
F	20.58***	1.86	0.14	0.19	2.33

주: a, b는 집단 간 차이를 나타냄.
*p<.05. **p<.01. ***p<.001.

정부의 유아교육비 지원 정책의 도움 정도 및 교육비 지원 금액에 대한 다문화가정의 만족도에 관한 응답은 다음과 같다. 유아교육비 지원 정책의 도움 정도는 종일반비 지원,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장애아 무상교육비 지원, 두자녀 이상 유아교육비 지원, 3~4세아 차등교육비 지원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비 지원 금액에 대한 만족도는 종일반비 지원,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두 자녀 이상 유아교육비 지원 및 3~4세아 차등교육비 지원, 장애아 무상교육비 지원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Ⅳ-1-4 참조).

〈표 Ⅳ-1-4〉 다문화가정의 정부지원 유아교육비의 도움 정도 및 금액에 대한 만족도

구분	유아교육비 지원의 도움정도 *M(SD)*	교육비 지원 금액 만족도 *M(SD)*
3~4세아 차등교육비 지원	4.0(0.9)	3.6(1.1)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4.4(0.9)	3.9(1.0)
두 자녀 이상 유아교육비 지원	4.2(1.0)	3.6(1.2)
장애아 무상교육비 지원	4.3(1.0)	3.5(1.0)
종일반비 지원	4.6(.07)	4.2(1.1)

지역규모에 따른 정부의 유아교육비 지원 정책의 필요 정도 및 교육비 부담 정도의 차이를 *F* 검증으로 분석한 결과, 지역규모에 따라 교육비 부담 정도(*F*=32.43, *p*<.001)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가 어떤 집단 간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Scheffe 사후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한편 유아교육비 지원 필요 정도는 지역규모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다음으로, 소득수준에 따른 정부의 유아교육비 지원 정책의 필요 정도 및 교육비 부담 정도의 차이를 *F* 검증한 결과 정책 필요 정도 및 교육비 부담 정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Ⅳ-1-5〉 유아교육비 지원정책의 필요 정도 및 교육비 부담 정도

구분	유아교육비 지원 필요 정도 *M(SD)*	교육비 부담 정도 *M(SD)*
지역규모		
대도시	4.9(0.4)	4.0(0.9)
중소도시	4.9(0.5)	3.9(1.0)
읍・면지역	4.9(0.4)	3.6(1.1)
F	2.82	32.43***
소득수준		
국민기초 생활보장	4.9(0.3)	3.8(1.2)
차상위층	4.9(0.3)	3.8(1.1)
3층 이상	4.9(0.4)	3.9(1.0)
F	0.89	1.02

*p<.05. **p<.01. ***p<.001.

연구대상 부모가 정부에 가장 바라는 육아지원정책을 조사한 결과, 유아교육비 지원 확대라는 응답이 34.6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국공립유치원 확충, 문화체험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제공, 유치원 서비스 질 향상, 종일제 프로그램의 내실화, 유아교육 지원 사업, 교사의 전문성 향상, 아동발달계좌라는 응답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족유형별로 연구대상 부모가 정부에 가장 바라는 육아지원정책은 조손가정을 제외한 모든 가족 유형에서 유아교육비 지원 확대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국공립유치원 확충이라는 응답이 높았다. 조손가정의 경우는 국공립유치원 확충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유아교육비 지원 확대는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표 Ⅳ-1-7 참조).

〈표 Ⅳ-1-6〉 가장 바라는 육아지원정책

단위: 명, %

내용	빈도	비율
국공립유치원 확충	818	16.2
유아교육비 지원 확대	1,752	34.7
유치원 서비스 질 향상	436	8.6
종일제 프로그램의 내실화	400	7.9
교사의 전문성 향상	238	4.7
부모교육 프로그램 강화	109	2.2
아동발달계좌	193	3.8
유아교육 지원 사업	325	6.4
문화체험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제공	632	12.5
기타	51	1.0
무응답	97	2.0
합계	5,051	100.0

주: 중복응답 문항은 아니었으나 중복으로 답한 경우도 포함

〈표 Ⅳ-1-7〉 가족유형에 따라 가장 바라는 육아지원정책

단위: %(명)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합계
부부와 자녀	22.3	42.6	7.1	5.7	2.3	1.1	2.9	4.1	8.7	0.6	2.5	100.0 (3,045)
한부모와 자녀	21.7	40.6	0.9	8.5	0.9	0.9	4.7	7.5	8.5	2.7	2.8	100.0 (106)
(한)조부모와 자녀	31.0	24.1	6.9	13.8	3.4	0.0	0.0	6.9	6.9	0.0	6.9	100.0 (29)
(한)조부모와 한부모 및 자녀	18.1	43.3	6.3	6.0	2.2	1.1	2.2	7.4	9.6	1.7	2.2	100.0 (365)
(한)조부모와 양부모 및 자녀	16.0	32.1	8.6	9.9	8.6	0.0	7.4	4.9	7.4	0.0	4.9	100.0 (81)
기타	30.0	40.0	5.0	5.0	0.0	0.0	2.5	0.0	15.0	0.0	2.5	100.0 (40)
무응답	7.4	40.7	7.4	7.4	0.0	3.7	7.4	7.4	7.4	3.7	7.4	100.0 (27)
전체	21.7 (803)	42.2 (1,559)	6.8 (252)	6.0 (222)	2.3 (86)	1.0 (38)	3.0 (109)	4.6 (169)	8.8 (324)	0.8 (34)	2.6 (97)	100.0 (3,693)

1. 국공립 유치원 확충, 2. 유아교육비 지원 확대, 3. 유치원의 서비스 질 향상, 4. 종일제 프로그램의 내실화, 5. 교사의 전문성 향상, 6. 부모교육 프로그램 강화, 7. 아동발달 계좌, 8. 유아교육 지원 사업, 9. 문화체험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제공, 10. 기타, 11. 무응답

다문화가정의 부모가 정부에 가장 바라는 육아지원정책은 유아교육비 지원 확대라는 응답이 44.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국공립유치원 확충, 종일제 프로그램의 내실화 및 유아교육 지원 사업, 유치원 서비스 질 향상, 아동발달계좌, 교사의 전문성 향상, 부모교육 프로그램 강화라는 응답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Ⅳ-1-8 참조).

〈표 Ⅳ-1-8〉 다문화가정이 가장 바라는 육아지원정책

단위: 명, %

내용	빈도	비율
국공립유치원 확충	31	13.7
유아교육비 지원 확대	101	44.7
유치원 서비스 질 향상	19	8.4
종일제 프로그램의 내실화	21	9.3
교사의 전문성 향상	8	3.5
부모교육 프로그램 강화	6	2.7
아동발달계좌	18	8.0
유아교육 지원 사업	21	9.3
국립의 시설 개선	1	0.4
합계	226	100.0

주: 중복응답 문항은 아니었으나 중복으로 답한 경우도 포함

2. 아동지원서비스

연구대상 부모의 자녀가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아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다. 지역규모별 및 소득수준별 모든 경우에 아동지원서비스의 수혜를 받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수혜 받는다는 응답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국민기초 생활보장 소득수준의 경우 수혜 받는다는 응답이 26.8%로 타 소득수준이나 지역규모별 경우에 비해 수혜 받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규모 및 소득수준에 따른 정부 ·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아동지원서비스 수혜 여부를 χ^2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먼저, 지역규모 (χ^2=8.91, p<.05)에 따른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아동지원서비스 수혜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대도시와 읍·면 지역의 유아들이 중소도시에 비해 정부 ·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아동지원서비스를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소득수준에 따른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아동지원서비스 수혜 여부(χ^2=39.46, p<.001)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아동지원서비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2-1〉 지역규모 및 소득수준별 아동지원서비스 수혜 여부

단위: %(명)

구분	받음	받지 않음	합계
지역규모			
대도시	12.8	87.2	100.0(547)
중소도시	8.3	91.7	100.0(1,125)
읍·면지역	10.6	89.4	100.0(1,625)
$\chi^2(df)$	8.91*(2)		
소득수준			
국민기초 생활보장	26.8	73.2	100.0(127)
차상위층	17.2	82.8	100.0(396)
3층 이상	10.0	90.0	100.0(1,428)
$\chi^2(df)$	39.46***(2)		

*p<.05. **p<.01. ***p<.001.

가족유형별 연구대상 부모의 자녀가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아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은 <표 Ⅳ-2-2>과 같다. 모든 유형의 가족에서 아동지원서비스의 수혜를 받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수혜 받는다는 응답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한부모가정 및 조손가정의 경우에는 수혜 받는다는 응답이 각각 19.8% 및 24.1%로 타 가족 유형에 비해 수혜 받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Ⅳ-2-2〉 아동지원서비스에 대한 가족유형별 수혜 여부

단위: %(명)

구분	지원 받음	지원받지 않음	합계
부부와 자녀	9.6	90.4	100.0(2,931)
한부모와 자녀	19.8	80.2	100.0(101)
(한)조부모와 자녀	24.1	75.9	100.0(29)
(한)조부모와 한부모 및 자녀	10.0	90.0	100.0(350)
(한)조부모와 양부모 및 자녀	10.5	89.5	100.0(76)
기타	22.5	77.5	100.0(40)
무응답	8.0	92.0	100.0(25)
전체	10.2(361)	89.8(3,191)	100.0(3,552)

연구대상 부모의 자녀가 받고 있는 아동지원서비스의 종류는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 사업이 20.22%로 기타 47.27%를 제외하고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희망유아교육사 사업, 드림스타트, 우리아이희망네트워크, 위스타트, SB-7 시소와 그네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Ⅳ-2-3〉 수혜 아동지원서비스의 종류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74	20.2
희망유아교육사 사업	25	6.8
드림스타트	22	6.0
우리아이희망네트워크	14	3.8
위스타트	5	1.4
SB-7 시소와 그네	1	0.3
기타	173	47.3
비해당	14	3.8
무응답	38	10.4
합계	366	100.0

가족유형별로 연구대상 부모의 자녀가 받고 있는 아동지원서비스의 종류는 한부모가정 및 조손가정의 경우 교육복지 투자 우선 지역 지원 사업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바우처가 높았다(표 Ⅳ-2-4 참조).

〈표 Ⅳ-2-4〉 가족유형별 수혜 아동지원서비스의 종류

단위: %(명)

구분	1	2	3	4	5	6	7	8	합계
부부와 자녀	21.4	5.4	4.6	4.6	0.7	19.6	33.6	10.4	100.0(280)
한부모와 자녀	25.0	15.0	20.0	5.0	5.0	5.0	25.0	0.0	100.0(20)
(한)조부모와 자녀	14.3	0.0	0.0	0.0	0.0	0.0	57.2	28.6	100.0(29)
(한)조부모와 한부모 및 자녀	20.0	8.6	2.9	0.0	5.7	20.0	34.3	8.6	100.0(35)
(한)조부모와 양부모 및 자녀	0.0	37.5	37.5	0.0	0.0	12.5	0.0	12.5	100.0(8)
기타	0.0	11.1	11.1	0.0	0.0	22.2	33.3	22.2	100.0(9)
무응답	50.0	0.0	0.0	0.0	0.0	0.0	0.0	50.0	100.0(2)
전체	20.5(74)	6.9(25)	6.1(22)	3.9(14)	1.4(5)	18.3(66)	32.9(117)	10.5(38)	100.0(3,332)

1.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2. 희망유아교육사사업, 3. 드림스타트, 4. 우리아이희망네트워크, 5. 위스타트, 6. 바우처, 7. 기타, 8. 무응답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받고 있는 아동지원서비스의 종류는 희망유아교육사 사업이 20.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 사업, 드림스타트, 우리아이희망네트워크, 학습지, 기타, 위스타트 및 다문화가정 한글지원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Ⅳ-2-5 참조).

〈표 Ⅳ-2-5〉 다문화가정의 수혜 아동지원서비스 종류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7	17.9
희망유아교육사 사업	8	20.5
드림스타트	6	15.4
우리아이희망네트워크	5	12.8
위스타트	1	2.6
다문화가정 한글지원	1	2.6
학습지	4	10.3
기타	3	7.7
비해당	4	10.3
합계	39	100.0

지역규모별 및 소득수준별의 아동지원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5점 척도에서 평균점수는 4점 가까운 점수이거나 4점 이상인 점수를 나타냄으로서 전반적으로 아동지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임을 알 수 있었다. 지역규모에 따른 아동지원서비스 만족도 평균 점수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소득수준에 따른 아동지원서비스 만족도 평균 점수는 집단 간에 1점정도 혹은 그 이상의 점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음에서 이러한 평균 점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인지에 관한 분석을 하였다.

지역규모에 따른 아동지원서비스 만족도의 차이를 F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반면, 소득수준에 따른 아동지원서비스 만족도의 차이를 F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소득수준에 따라 아동지원서비스에 만족하는 정도 (F=2.47 p<.05)는 달랐다. 이러한 차이가 어떤 집단 간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Scheffe 사후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는 소득수준이 차상위층이나 3층이상의 소득수준의 부모들이 아동지원서비스에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Ⅵ-2-2>의 결과와 <표 Ⅵ-2-6>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의 소득수준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아동지원서비스를 많이 받고 있고, 받고 있는 서비스

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표 Ⅳ-2-6〉 아동지원서비스에 대한 지역규모 및 소득수준별 만족도

구분	*M*	*SD*	*F*
지역규모			
대도시	4.13	1.54	.18
중소도시	4.11	1.82	
읍・면지역	4.00	1.85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	4.88[a]	2.53	5.68***
차상위층	3.96[b]	1.59	
3층 이상	3.78[b]	1.52	

*p < .05.
a, b는 집단 간 차이를 나타냄.

아동지원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응답은 모든 가족 유형에 있어서 보통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약간 만족, 매우 만족을 합한 비율이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을 합한 비율보다 높아 전체적으로 아동지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한)조부모와 양부모(부부) 및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의 경우는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을 합한 비율이 25%로 타 가족 유형에 비해 불만족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표 Ⅳ-2-7참조).

〈표 Ⅳ-2-7〉 아동지원서비스에 대한 가족유형별 만족도

단위: %(명)

항목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모름/ 무응답	전체
부부와 자녀	1.1	8.9	35.4	23.2	22.9	8.6	100.0(280)
한부모와 자녀	0.0	0.0	45.0	20.0	35.0	0.0	100.0(20)
(한)조부모와 자녀	0.0	14.3	28.6	14.3	28.6	14.3	100.0(7)
(한)조부모와 한부모 및 자녀	0.0	11.4	45.7	22.9	17.1	2.9	100.0(35)
(한)조부모와 양부모(부부) 및 자녀	12.5	12.5	50.0	0.0	12.5	0.0	100.0(8)
기타	11.1	11.1	33.3	22.2	0.0	22.2	100.0(9)
무응답	0.0	0.0	0.0	50.0	0.0	50.0	100.0(25)
전체	1.4(5)	8.9(32)	36.8(133)	22.4(81)	22.2(80)	8.3(30)	100.0(361)

다문화가정의 아동지원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응답은 약간 만족, 매우 만족을 합한 비율이 36.6%로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을 합한 비율 9.8%보다 높아 전체적으로

아동지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다(표 Ⅳ-2-8 참조).

〈표 Ⅳ-2-8〉 다문화가정의 아동지원서비스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매우 불만족	-	-
약간 불만족	4	9.8
보통	22	53.7
약간 만족	8	19.5
매우 만족	7	17.1
합계	41	100.0

아동지원서비스에 대해 불만족하는 이유는 프로그램 내용 때문이라는 응답이 34.21%로 가장 높게 나왔다. 그 다음으로는 프로그램 시간과 기타, 수업방식, 교사와의 관계와 교육환경이라는 응답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Ⅳ-2-9〉 아동지원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이유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프로그램 내용	13	34.2
수업방식	6	15.8
프로그램 시간	7	18.4
교사와의 관계	2	5.3
교육환경	2	5.3
기타	7	18.4
무응답	1	2.6
합계	38	100.0

가족유형별로 아동지원서비스에 대해 불만족하는 이유는 프로그램 내용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왔고 비용도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한편 부부와 자녀 및 한부모가정을 제외한 가족 유형은 응답자가 적어 실제적인 파악이 어렵다(표 Ⅳ-2-10 참조).

다문화가정의 경우, 아동지원서비스에 대해 불만족하는 이유는 프로그램 내용 때문이라는 응답이 50.0%로 가장 높게 나왔다. 그 다음으로는 수업방식 및 교사와의 관계라는 응답이 많았으나 응답자가 적어 실제적인 파악이 어렵다(표 Ⅳ-2-11 참조).

〈표 Ⅳ-2-10〉 아동지원서비스에 대한 가족유형별 불만족 이유

단위: %(명)

구분	프로그램 내용	수업 방식	프로그램 시간	교육 환경	비용	서비스 기간	교사와의 관계	무응답	합계
부부와 자녀	35.7	14.3	14.3	7.1	21.4	3.6	0.0	3.6	100.0(28)
한부모와 자녀	-	-	-	-	-	-	-	-	100.0(106)
(한)조부모와 자녀	0.0	0.0	0.0	0.0	0.0	0.0	100.0	0.0	100.0(1)
(한)조부모와 한부모 및 자녀	50.0	25.0	0.0	0.0	0.0	0.0	25.0	0.0	100.0(4)
(한)조부모와 양부모 및 자녀	0.0	50.0	50.0	0.0	0.0	0.0	0.0	0.0	100.0(2)
기타	50.0	0.0	50.0	0.0	0.0	0.0	0.0	0.0	100.0(2)
무응답	-	-	-	-	-	-	-	-	100.0(27)
전체	35.1(13)	16.2(6)	16.2(6)	5.4(2)	5.4(2)	16.2(6)	2.7(1)	2.7(1)	100.0(37)

〈표 Ⅳ-2-11〉 다문화가정의 아동지원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이유

단위: 명, %

구분	프로그램 내용	수업방식	교사와의 관계	합계
비율	50.0	25.0	25.0	100.0(4)

아동지원서비스를 받지 않는 이유는 서비스 관련된 정보를 잘 몰라서라는 응답이 39.0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서비스 대상자가 아니어서, 이용시간이 맞지 않아서, 기타, 이용하기에 거리가 멀어서, 가정방문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자녀가 원하지 않아서, 서비스 제공자와의 관계가 불편해서, 주위 사람들의 시선 때문이라는 응답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족유형별로 아동지원서비스를 받지 않는 이유는 모든 가족 유형에서 서비스 관련된 정보를 잘 몰라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한부모가정은 서비스 대상자가 아니라서 라는 응답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조손가정은 이용하기에 거리가 멀어서라는 응답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표 Ⅳ-2-13 참조).

다문화가정의 경우는 서비스 관련된 정보를 잘 몰라서라는 응답이 56.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이용시간이 맞지 않아서, 이용하기에 거리가 멀어서, 기타,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가정방문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자녀가 원

하지 않아서, 서비스 제공자와의 관계가 불편해서 및 주위 사람들의 시선 때문이라는 응답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Ⅳ-2-14 참조).

〈표 Ⅳ-2-12〉 아동지원서비스 비수혜 이유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이용시간이 맞지 않아서	243	7.2
이용하기에 거리가 멀어서	121	3.6
가정방문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46	1.4
서비스 제공자와의 관계가 불편해서	8	0.2
자녀가 원하지 않아서	27	0.8
서비스 관련된 정보를 잘 몰라서	1,319	39.1
주위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4	0.1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46	1.4
서비스 대상자가 아니어서	878	26.0
기타	141	4.2
무응답	541	16.0
합계	3,374	100.0

〈표 Ⅳ-2-13〉 아동지원서비스에 대한 가족유형별 비수혜 이유

단위: %(명)

구분	1	2	3	4	5	6	7	8	9	10	합계
부부와 자녀	7.5	3.0	1.1	0.2	0.8	39.8	1.2	25.6	4.1	16.4	100.0 (2,651)
한부모와 자녀	12.3	3.7	3.7	0.0	0.0	42.0	1.2	18.5	4.8	13.6	100.0 (81)
(한)조부모와 자녀	13.6	18.2	0.0	0.0	0.0	40.9	0.0	4.5	4.5	18.2	100.0 (22)
(한)조부모와 한부모 및 자녀	6.7	4.4	1.3	0.3	1.3	37.8	1.3	23.2	3.7	20.0	100.0 (315)
(한)조부모와 양부모 및 자녀	2.9	5.9	4.4	1.5	0.0	44.1	2.9	8.8	4.4	25.0	100.0 (68)
기타	12.9	6.5	0.0	0.0	0.0	41.9	6.5	16.1	3.2	12.9	100.0 (31)
무응답	4.3	4.3	0.0	0.0	0.0	21.7	0.0	34.8	4.3	30.4	100.0 (23)
전체	7.6 (241)	3.4 (108)	1.3 (40)	0.3 (8)	0.8 (25)	39.6 (1,265)	1.3 (42)	24.7 (787)	4.0 (134)	17.0 (541)	100.0 (3,191)

1. 이용시간이 맞지 않아서, 2. 이용하기에 거리가 멀어서, 3. 가정방문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4. 서비스 제공자와의 관계가 불편해서, 5. 자녀가 원하지 않아서, 6. 서비스 관련 정보를 잘 몰라서, 7.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8. 서비스 대상자가 아니어서, 9. 기타, 10. 무응답

〈표 Ⅳ-2-14〉 다문화가정의 아동지원서비스 비수혜 이유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이용시간이 맞지 않아서	13	12.4
이용하기에 거리가 멀어서	12	11.4
가정방문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3	2.9
서비스 제공자와의 관계가 불편해서	1	0.9
자녀가 원하지 않아서	2	1.9
서비스 관련된 정보를 잘 몰라서	59	56.2
주위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1	0.9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5	4.8
기타	9	8.6
합계	105	100.0

연구대상 부모가 유치원 정규 교육 이외에 추가로 받기를 희망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중요도 순으로 두 가지 대답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선택한 대답에 대하여 순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Ⅳ-2-15>에 제시되어 있다. 부모들은 유치원 정규 교육 이외에 가장 추가로 받기를 원하는 서비스는 특기적성 프로그램이라고 보고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사회·정서 발달지원 프로그램, 영어 교육 프로그램, 가족 문화체험 프로그램 및 견학, 학습지원 프로그램, 언어 및 인지 발달지원 프로그램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Ⅳ-2-15〉 유치원 정규 교육 외 추가 이용 희망 서비스

가중치부여 순위	변명 값
1	특기적성 프로그램
2	사회·정서 발달지원 프로그램
3	영어 교육 프로그램
4	가족 문화체험 프로그램 및 견학
5	학습지원 프로그램
6	언어, 인지 발달지원 프로그램

가족유형별로 연구대상 부모가 유치원 정규 교육 이외에 추가로 받기를 희망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중요도 순으로 두 가지 대답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선택한 대답에 대하여 순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Ⅳ-2-16>에 제시되어 있다. 모든 유형의 가족에 있어서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서비스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조손가정의 경우 두 번째로 높은 응답은 학습지원 프로

그램이었던데 반해 한부모가정은 사회 및 정서발달 프로그램이라는 응답이 두 번째로 높았다(표 Ⅳ-2-16 참조).

〈표 Ⅳ-2-16〉 가족유형별 유치원 정규 교육 외 추가 이용 희망 서비스

구분	가중치부여 순위	변수 값
부부+자녀	1	특기적성 프로그램
	2	사회 및 정서발달 프로그램
	3	영어교육 프로그램
한부모+자녀	1	특기적성 프로그램
	2	사회 및 정서발달 프로그램
	3	영어교육 프로그램
(한)조부모+자녀	1	특기적성 프로그램
	2	학습지원 프로그램
	3	언어 및 인지발달 프로그램
(한)조부모+ 한부모+자녀	1	특기적성 프로그램
	2	언어 및 인지발달 프로그램
	3	사회 및 정서발달 프로그램
(한)조부모+ 양부모(부부)+자녀	1	특기적성 프로그램
	2	사회 및 정서발달 프로그램
	3	영어교육 프로그램
기타	1	특기적성 프로그램
	2	사회 및 정서발달 프로그램
	3	언어 및 인지발달 프로그램
무응답	1	특기적성 프로그램
	2	언어 및 인지발달 프로그램
	3	영어교육 프로그램

다문화가정의 경우는 학습지원 프로그램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언어 및 인지 발달지원 프로그램, 특기적성 프로그램, 한국어 프로그램, 사회·정서 발달지원 프로그램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Ⅳ-2-17 참조).

〈표 Ⅳ-2-17〉 다문화가정의 유치원 정규 교육 외 추가 이용 희망 서비스

순위	변명 값
1	학습지원 프로그램
2	언어 · 인지 발달지원 프로그램
3	특기적성 프로그램
4	한국어 프로그램
5	사회 · 정서 발달지원 프로그램

3. 요약 및 시사점

가. 요약

이상에서 살펴본 소득계층별에 따른 육아지원정책과 아동지원서비스, 아동지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요약하여 정리하여 보면 <표 Ⅳ-3-1>와 같다. 기초생활보장/차상위층/3층이상의 소득수준에 속하는 교육취약계층 가정의 육아지원정책과 아동지원서비스, 아동지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에 관하여 소득수준에 따라 그 특성이 차이가 있는 지를 살펴본 결과를 <표 Ⅳ-3-1>에 정리하였다.

〈표 Ⅳ-3-1〉 소득수준별(기초생활보장/차상위층/3층이상) 특성

구분	내용
육아지원 정책	소득수준에 따른 유치원 교육비 지원 도움 정도는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가 없었고 대체적으로 모든 소득수준에서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하였음.
아동지원 서비스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아동지원서비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남.
아동지원 서비스 만족도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는 소득수준의 부모가 차상위층이나 3층이상 소득수준의 부모보다 아동지원서비스에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다음으로 지역별에 따른 육아지원정책과 아동지원서비스, 아동지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요약하여 정리하여 보면 <표 Ⅳ-3-2>와 같다. 읍·면지역/중소도시/대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교육취약계층 가정의 육아지원정책과 아동지원서비스, 아동지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에 관하여 거주하는 지역 규모에 따라 그 특성이 차이가 있는 지를 살펴본 결과를 <표 Ⅳ-3-2>에 정리하였다.

〈표 Ⅳ-3-2〉 지역별지역별(읍·면지역/중소도시/대도시) 특성

육아지원 정책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유아가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유치원 교육비에 대한 만족도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유아가 지원받는 교육비에 대한 만족도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아동지원 서비스	읍·면 지역과 대도시 유아들이 중소도시에 비해 정부 ·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아동지원서비스를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교육취약계층 학부모의 육아지원 정책 수혜 현황 및 요구에서 살펴본 내용들을 요약하면, 전반적으로 교육취약계층 부모들은 유아교육비 지원 확대와 국공립유치원 확충, 문화체험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제공, 유치원 서비스 질 향상, 종일제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가장 원하고 있었다.

아동지원서비스에 있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는 소득수준에 속하는 가정이 아동지원서비스를 가장 많이 받고 있고, 받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지원서비스에 대해 불만족하는 이유로 프로그램 내용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아동지원서비스를 받지 않는 이유는 서비스 관련 정보를 잘 몰라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의 경우 아동지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가족 유형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취약계층 대부분의 부모들이 유아교육비 지원확대를 가장 많이 요구한 반면, 조손가정의 경우는 국공립유치원 확충을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동지원서비스에 대해 불만족하는 이유로 프로그램 내용이라는 응답을 가장 많이 들었고, 아동지원서비스를 받지 않는 이유는 서비스 관련 정보를 잘 몰라서라는 응답을 가장 많이 들었다.

모든 교육취약 계층 부모들은 유치원 정규 교육 이외에 가장 추가로 받기를 원하는 서비스로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들었고, 그 다음으로는 사회·정서 발달지원 프로그램,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손가정의 경우에는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원하였고, 다음으로 학습지원 프로그램, 언어 및 인지발달 프로그램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가정은 다른 교육취약계층 부모들의 요구와 동일하였다. 한부모가정의 경우, 특기적성 프로그램 다음으로 사회·정서 발달지원 프로그램을 원하였는데, 이는 한부모가정에서의 양육환경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를 염려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다문화가정의 경우는 다른 교육취약계층 부모들과는 달리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원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언어 및 인지 발달지원 프로그램, 특기적성 프로그램, 한국어 프로그램, 사회·정서 발달지원 프로그램 순으로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취약계층 부모들은 대체적으로 특기적성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는데, 이는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특기활동이 많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세태라고 여겨진다. 조손가정과 다문화가정의 경우는 학습적인 지원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일반적인 교육취약계층 부모들보다 자녀의 학습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그들의 요구도 다소 다른 것을 알 수 있었다.

나. 시사점

교육취약계층 가정의 부모들은 대체적으로 현재 제공되고 있는 유아교육비 지원과 같은 육아지원정책에 대해 만족하고 도움이 된다고 여기지만, 더 많은 유아교육비 지원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더불어서 국공립유치원 확충과 받고 있는 유치원 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아동지원서비스 부문에서, 아동지원서비스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만족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해 볼 때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재구성 등의 질적인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 진다. 그리고 아동지원서비스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교육취약계층의 양육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홍보 활동도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현재 제공되고 있는 아동지원서비스에 대해서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의 양육자들이 만족도가 낮은 점을 고려해 본다면, 아동지원서비스 제공 시, 가족 유형별로 제공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다소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서비스 내용이 각 가정의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게 나타난 점을 고려해 볼 때도 가족 유형별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달리하여 제공하여야 할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전반적인 아동지원서비스 내용과 질에 대한 분석과 제고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Ⅴ. 교육취약계층 가정 유아를 위한 체계적 지원 방안

본 연구에서는 교육취약계층 가정 유아의 정의 및 범위를 탐색하고, 교육취약계층 가정 유아의 일반적인 특성과 함께 실제 교육 및 생활 실태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국가 지원정책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와 요구를 분석한 후,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 장에서는 교육취약계층 가정 유아를 위한 일반적 지원 방향을 모색하고, 교육취약계층 가정 유형별 지원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1. 교육취약계층 가정 유아를 위한 지원 방향

교육취약계층의 대부분은 저소득 혹은 빈곤의 문제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상태에 따라 접근할 수 있는 교육적 서비스의 차이가 크다는 것도 그중 하나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그간 소득계층별 차등지원에 근거하여 영유아 보육료·교육비 지원 사업을 확대시켜 왔다. 최근에는 기본적인 비용 지원 외에도 영유아 기본학습능력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 교육격차를 조기에 해소해 주기 위한 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취약계층 가정 유아를 위한 근본적인 지원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 복지가 통합된 종합 복지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

취학전 영유아기에 접한 취약한 교육환경은 이후의 성장·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생애주기에 다른 어떤 단계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교육취약계층의 유아들은 성공적인 부모 역할모델을 경험하지 못하거나, 학습의 기저가 되는 기본적인 기술, 기술 및 태도를 습득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생의 초기에 적절히 개입하여 유아기에 발생할 수 있는 결손을 없애거나 예방해 주는 일은 국가와 사회의 책무가 아닐 수 없다.

교육취약계층 가정 유아의 전인적 성장 발달을 돕고 건강한 발달과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유아의 발달정도에 따른 개별화된 교육적 배려와 더불어 건강, 안전, 영양 및 정서적 안정 등에 관련된 종합적인 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유아가 속한 가정의 기능과 부모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

유아기의 발달은 부모 및 주양육자의 양육 역량에 매우 크게 의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유아가 부모로부터 받는 영향력은 지대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많은 선진외국의 취약계층 영유아 지원 사업에서도 부모에 대한 개입과 참여가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사업의 성공 요인으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유아가 한 인격체로서 올바르게 성장하고 타고난 능력을 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가정환경 조성이 중요하나, 소득이 낮을수록 교육 및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교육취약계층 부모에게는 무엇보다도 부모의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유아의 주 양육자로서 부모의 자녀 양육 및 지도 역할을 강화하여 바람직한 부모-자녀관계 형성을 지원해야 한다. 뿐만아니라, 교육취약계층 가정의 유아교육이 효과적 실시와 가정의 기능 회복을 위해서는 부모의 직업 안정성 및 경제적 자립, 주거 및 가족 구성원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부모 직업훈련 및 가정 지원 프로그램, 상담서비스, 가족참여 프로그램 등의 제공이 필요하다.

셋째, 교육취약계층 가정 및 가족의 특성과 요구에 기반을 둔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교육취약계층의 개인별・유형별 요구분석을 통하여 필요로 하는 개별 서비스의 내용을 파악하고 이에 부응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그간 정부의 유아학비 지원 및 그 외의 지원 사업을 통하여 상당한 비용과 사업이 저소득가정을 위해 투입되었느나, 그에 비해 수혜자들의 정책 체감도나 만족도는 낮은 편이다. 이는 각 가정이 겪고 있는 문제가 가정 유형별로 다르며, 그러한 가정 유형내에서도 보다 세분화된 지원 요구가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조사에서도 가정 및 가정의 유형별(농어촌, 다문화가정, 한부모, 조손가정 등)로 자녀양육실태와 정책 지원 요구가 다르게 나타난 바 있다. 이에 가정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 특성에 기초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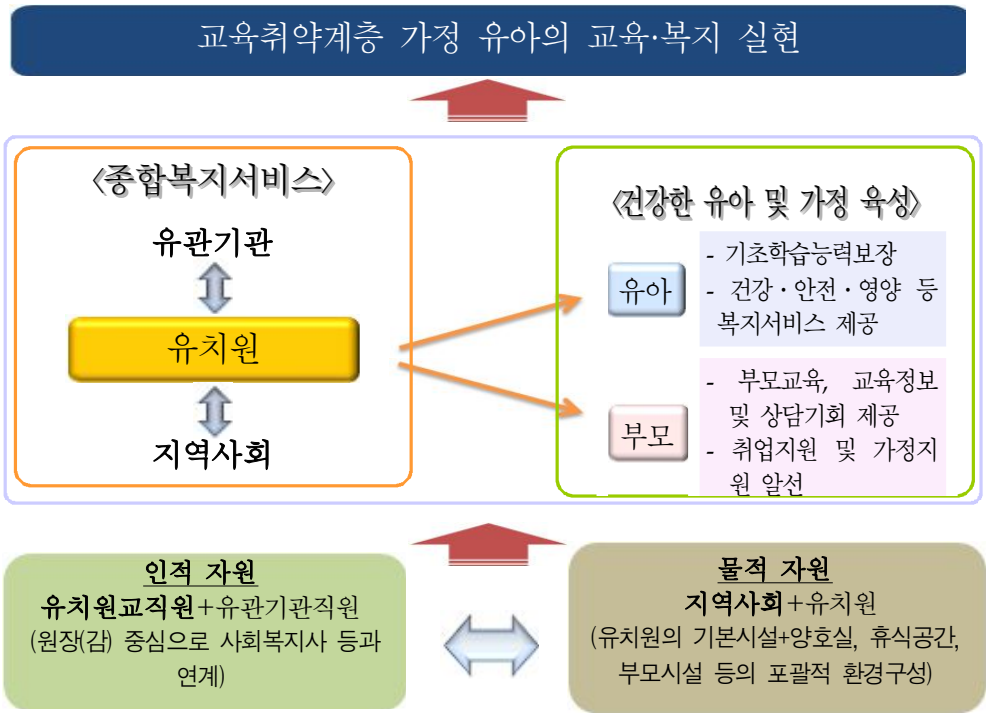
넷째, 인적・물적 자원 및 서비스의 종합화가 필요하다.

유치원, 유관기관, 지역사회 등의 유아교육 및 아동복지관련 인적・물적 자원의 결합을 통하여 종합복지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활용할 필요가 있다. 국가인적자원의 바람직한 육성을 위하여 유아교육에 대한 지역사회 및 관련 기관의 적절한 책임 분담도 요구된다. 즉, 지역 내 대학, 기업, 문화단체 및 시민단체 등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 '종합복지교육기관'으로서의 유치원의 역할 재정립이 요구된다. 교육취약계층 가정의 유아들이 가정외에 처음 접하게 되는 공식적인 교육기관인

유치원에서 부모와 가족이 아닌 전문가로서 유치원의 교원들은 교육취약계층 가정 유아의 교육적 발달, 사회·정서적 문제, 가족 및 가정내의 문제를 보다 객관적·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다. 뿐만아니라, 유치원의 기본 시설을 이들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물적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

지역내 공공 교육기관으로서 유치원의 위상 제고와 더불어 교육취약계층 가정 지원 기능 강화를 통하여 종합복지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 일차적으로는 공립단설유치원의 관리자인 원장이 중심이 되어 유아와 부모를 위한 직접적인 교육적 지원과 더불어 지역내 인적자원을 연계하는 서비스 종합화가 필요하다.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학습능력 보장, 건강·영양·안전 등 복지서비스 제공과 함께 지역사회의 네트워크과 자원을 연계·활용하는 부모 및 가정 지원이 요구된다. 이때 유치원 원장은 기존의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취약계층 지원사업, 즉,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의 유아교육복지전문가 및 기본학습능력발달지원사업의 희망유아교육사와의 연계·지도를 고려할 수 있다.



2. 교육취약계층 가정 유형별 지원 방안

가. 교육취약계층 가정 유형별 유아의 행동 특성 고려

본 연구 조사 결과, 교육취약계층 가정유형별 유아의 행동 특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한부모가정 유아는 눈치 보거나 의기소침한 경우가 많이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한부모가정 부모는 가정 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있으므로 경제 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낮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부모 대상 교육 및 참여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조손가정의 유아는 종일반에 있다가 놀이방에 맡겨져 늦게 귀가하는 불규칙적 생활을 하고 있으며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들로 부모와 함께 책을 읽고, 게임을 하고, 신체운동을 하는 등의 활동을 많이 하지 못하고 있으며, 도서관, 인형극, 박물관 가기 등의 문화적인 활동에서도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문화가정 유아는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에 따른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다. 또한 유아들은 정기적인 검진이라든지, 적절한 생활 지도 및 훈육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학습 지도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유아의 행동특성을 고려한 지도에 있어서는 한부모가정의 경우 특히, 인지영역보다는 정서적인 문제가 두드러지므로 유아의 정서를 순화할 수 있는 동화활동, 미술활동, 신체활동 등의 활동을 권장할만 하다. 그리고 조손가정의 경우에는 성인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과 문화적인 체험 등을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조손가정 영유아들의 건강, 영양, 안전 등에 대한 지도를 해 줄 수 있는 성인 인력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유아들은 언어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으며 유아에 대한 언어지도는 물론 부모교육도 병행하여 부모로 하여금 올바른 자녀언어 교육 및 양육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나. 교육취약계층 가정 유형별 프로그램 구체화

교육취약계층 가정 유아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지원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지원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시간에 불만족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는 각 가정의 특성과 요구를 보다 세밀하게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교육취약계층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해야 한다.

예컨대, 한부모가정의 유아를 위한 정서 순화 프로그램(예: 놀이치료를 통한 마음 열기 및 애정 느끼기 프로그램, 동화활동, 미술활동, 신체활동 등)이라든지, 다문화가정 유아를 위한 언어 발음 지원 프로그램,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 제공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

아동 대상 뿐 아니라, 교육취약계층 유형별 부모교육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교육취약계층 가정의 부모는 본인의 정서적인 어려움과 함께 자녀의 학습지도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정서지원 프로그램과 함께 유아의 발달과 학습에 대한 부모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부모교육 프로그램도 가정의 특성과 요구에 따라 보다 섬세하게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상 유아가 유치원에 재원하는 경우에는 교사가 사용가능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당일 활동을 가정에 알리는 노력을 통해 가정 및 부모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유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취약계층 가정의 유아와 부모는 기관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며,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방문(순회)교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유아 및 부모를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각 가정 유형 및 유아의 부족한 점을 반영한 가정별 맞춤 지원이 필요하다.

교육취약계층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결핍되고 있는 건강과 영양, 정서, 학습 등을 보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포함해야 한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교육취약계층 가정에서는 특기적성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다. 따라서 정서적인 면과 기본적인 학습지원 뿐 아니라, 일반 유아들이 일반적으로 받고 있는 특기적성교육 지원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더욱 기본적으로는 유아의 건강과 영양을 위해 유아의 발달 지원을 위한 아침, 간식, 우유 지원, 유아의 주기적인 건강 및 정서 상태 점검이 필요하고, 정서, 학습 등의 지원을 위해서는 가정 방문 가능한 교사 인력풀 구축 및 지원 등이 요구된다. 또한, 가정의 특성상 문화적인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문화 결핍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예: 박물관 견학 지원, 공연 관림 가족티켓 지원, 전시장 견학, 놀이공원 체험 등) 도 제공되어야 한다.

다. 교육취약계층 가정 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필요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교육취약계층 유아의 69%는 방과 후 기관교육을 못 받고 있으며, 혼자 노는 경우가 많고, 건강검진을 받는 비율도 낮다. 또한 문화적

경험을 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 학부모는 사교육비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학습지도 방법을 잘 모르고 있다. 그러나 부모교육에는 참여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다양한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경우 가장 불만족하는 부분은 프로그램의 내용과 시간이며,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잘 모르기 때문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자녀 교육 중 가장 원하는 부분은 사회와 정서 발달이다. 이러한 특성과 요구는 가정유형에 따라 내용이나 정도에 있어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가정유형을 고려한 정책 방안과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가정유형별 지원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1) 저소득가정 유아 지원

저소득 가정의 경제적, 물질적 결핍은 성장하는 유아의 발달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기 보다 아동 초기에 경험하는 가정의 빈곤은 발육부진, 발달지체 등과 같은 신체발달의 문제에서부터 학업부진, 학교 중퇴 등과 같은 인지발달의 문제 및 사회·정서상의 문제를 내포한다.

저소득가정 유아를 위해서는 교육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증액하여 지원함을 기본으로 한다. 그 외에 가정의 경제가 기본적으로 약한 가정이므로 가정의 경제력 회복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유치원에서 교사들의 깊이 있는 이해와 인식에 근거하여 다양한 유아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저소득가정의 유아는 인지, 언어, 사회, 정서 발달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부모는 언어발달과 정서발달을 가장 걱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저소득층 유아는 TV 시청이나 게임을 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인형극을 보거나 놀이공원을 가는 등 문화적인 경험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뿐만 아니라, 부모는 자녀를 대상으로 건강, 청결, 영양, 생활습관 지도를 상대적으로 잘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유치원 교육 이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 유치원 방과 후에 TV시청이나 게임을 많이 한다는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많거나 함께 놀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치원 방과 후 이들과 놀아주고 생활습관 면에서 지도해 줄 수 있는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교육취약층 가정의 경우, 집으로 직접 방문하는 것을 싫어하는 특성을 감안하여 일차적으로는 가정 방문을 기본으로 하되, 그 외에도 유치원이나 복지관 등의 공공기관을 이용하여 부모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다.

2) 농어촌가정 유아 지원

농어촌가정의 유아는 저소득가정 유아와 비슷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농어촌가정 유아는 TV 시청이나 게임을 하는 비율과 혼자 돌아다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문화적 인프라가 부족하여 문화적인 경험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농어촌 가정의 부모는 건강과 생활습관 관련하여 자녀에게 적절한 지도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녀의 언어와 인지 등 학습적인 면에 있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따라서 유치원 방과 후 이들과 놀아주고 생활습관 면에서 지도해 줄 수 있는 인력 지원과 함께, 언어와 인지 면에서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문화적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문화적 경험을 못 하고 있으므로, 농어촌가정의 유아를 대상으로 인형극이나 공연 등 찾아가는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3) 한부모가정 유아 지원

한부모가정 유아들은 일반적으로 정서적 불안정 문제와 사회적응상의 문제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한부모가정 유아의 부모는 유아의 사회성 발달과 정서발달을 가장 걱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초등학교 학습준비에 대한 요구도 다른 가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부모가정의 유아는 돌보아 줄 사람이 없으며, 균형 있는 식사를 하고 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따라서 한부모가정 유아를 위한 사회정서발달 지원 프로그램이 절실하며, 초등학교 준비를 위한 기초 학습지원이 필요하다. 더불어 육아를 위한 인력 지원과 함께 영양 관리도 요구된다.

한편, 한부모가정 유아는 한부모가정의 경우에는 부모 자신의 문제가 많이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부모의 정신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부모 역할을 수행할 만한 여력이 없는 관계로 부모와의 라포 형성이 중요하며 부모의 양육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

4) 조손가정 유아 지원

조손가정의 경우에는 정서, 인지, 사회적 적응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으며, 인지와 언어 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다. 또한, 조부모는 음식 제한, TV 제한, 기본생활습관 지도를 잘 못 하고 있고, 손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지도방법을 잘 모르고 있

다. 뿐만 아니라 조손가정 유아는 혼자 놀이를 하거나 성인의 돌봄 없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며, 조부모는 손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 적고 문화활동도 잘 못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인지와 언어교육 프로그램 등 학습 지원 프로그램과 인적 지원이 필요하며, 부모의 양육을 대신할 만한 건강한 성인 인적자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지역 내 대학의 유아교육전공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을 활용한 인적자원 풀을 구축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또한 조손가정 유아들 대상으로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고, 조부모를 대상으로 손자녀 양육과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5) 다문화가정 유아 지원

최근 사회 변화 중 가장 두드러진 특성중의 하나는 농어촌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다문화가정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국가, 사회적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취학전 영유아의 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유아들은 한국어가 미숙한 어머니와 생활하는 데서 오는 문제로 언어문제를 가장 많이 지니고 있다. 이러한 언어발달 지연과 문화 부적응으로 인해 수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며 지나치게 소극적이거나 반대로 폭력성 또는 과잉행동장애를 보이게 된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서도 다문화가정 부모는 유아의 언어발달을 가장 많이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요구도에 있어서는 정서와 사회성 발달을 가장 원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인지와 언어 발달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이는 언어발달 지원으로 인한 부적응 문제를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언어발달 지원과 함께 정서, 사회, 인지 등 전인적인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적인 프로그램 개발·보급이 시급하다. 일과 중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유치원을 통해 기본적인 언어활동을 비롯하여 모든 발달 영역에 대한 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추가적으로 가정으로 방문하여 개별 지도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다문화가정의 유아는 종합검진, 균형잡힌 식사를 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음식제한 등 기본적인 생활 지도도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도서관에 가는 빈도나 인형극 등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한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 유아의 부모는 자녀의 학습지도 방법을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유아를 대상으로 한 건강과 영양 지원과 함께 다문화가정 부모를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이 절실하다. 부모교육은 다문화가정 부모의 언어교육 지원과 함께 병행되어야 하며, 그들의 문화를 고려하고 한국 상황에 맞는

자녀 양육 방법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이상에서 제시한 교육취약계층 가정 유형별 맞춤형 지원 방안을 표로 요약·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Ⅴ-2-1〉 교육취약계층 가정 유형별 맞춤형 지원 방안

영역	저소득가정	농어촌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공통 지원	- 유아학비 지원 지속적 확대 추진 - 사회·정서발달 지원 프로그램 제공 - 기본학습능발달지원, 특기적성 및 방과후 프로그램 제공 - 부모교육을 위한 방문(순회) 교사의 가정 방문 프로그램 제공(유치원이나 공공기관 등 이용 방안도 모색 가능) - 유치원의 종합복지교육기관으로서의 유아의 교육·복지 종합 지원 및 가정의 기능 회복 지원				
유아 및 부모 특성	- 유아의 기본 학습능력 저조 - 부모의 자존감 저하 - 가족간 유대 약화	- 지역적으로 교육취약 여건 문제 소지 - 문화체험기회 저조	- 가정경제책임 부담 - 낮시간 부모 프로그램 참여 어려움	- 부모와의 활동 하지 못함 - 기본생활습관 지도 미흡	- 문화이해 부족 - 의사소통 문제 - 건강, 생활 지도 및 학습 지도 미흡
프로그램	- 가정 및 가족 기능 회복 지원 - 지역사회 네트워크 및 자원 연계·지원	- 문화체험 활동 프로그램	- 유아의 정서 순화 및 기초 학습 지도 - 부모자신의 정신건강 및 양육역할 강화	- 인지학습지도 - 성인동반활동, 문화체험 - 손자녀 양육 및 지도 방법	- 유아언어 지도 - 부모역할 강화 - 문화체험 및 학습지도 지원
인력 지원	-	-	- 방과후 지도 인력 지원	- 부모역할 대행 인력 지원	-

참고문헌

경기도 군포시청(2008). 내부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09). 유아학비 지원 계획.

교육과학기술부·육아정책개발센터(2009). 희망유아교육사 연수 자료집.

교육인적자원부(각년도), 유아학비(교육비) 지원계획.

김명순·이미화(2005). 포괄적 보육서비스 - 아동교육 프로그램. 서울: 다음세대.

김미숙·조애저·배화옥·최현수·홍미·김효진(2007). 한국의 아동빈곤실태와 빈곤아동지원방안.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은설·이정원·지성애·이세원(2007). 농어촌 지역 육아지원 방안 연구. 육아정책개발센터.

김정원·최영태·박인심·김영애(2007). 2006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평가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김혜선(2004). 조손가정 아동의 정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박사 학위 청구 논문.

김혜숙(2008). 다문화보육 프로그램 운영의 실제. 2009년 한국보육지원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김희진(2005). 포괄적 보육서비스 - 부모지원 프로그램. 서울: 다음세대.

노은영(2009). 한부모가정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남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문무경·조혜주(2007). 다문화가정 육아지원 방안 연구. 육아정책개발센터.

백선희(2006). 영국의 국가아동보육전략 연구를 통한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발전 방안 모색: Sure Start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27, 79-113.

보건복지가족부(2008). 2009년 예산 관련 내부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9). 2008 드림스타트 사업지원단 운영결과 보고서.

삼성아동교육문화센터(2006). 포괄적보육서비스 - 지역사회연계프로그램. 서울: 다음세대.

서문희·나정·최혜선(2006).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육아 비용 적정 분담 방안 연

구. 육아정책개발센터.

설동훈(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지원 정책방안. 보건복지부·미래인력연구원

설동훈・이혜영・조성남(2006). 결혼이민자가족 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2007). 조손가족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여성가족부(2007, 2008) 보육사업안내.

오성배(2005). 코시안 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이은해 외(2008). 삼성어린이집 포괄적 보육서비스에 대한 종단적 효과 연구.

장명림(2006). 영·유아 교육복지 통합서비스 제공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통계청(2005). 인구주택 총조사.

한국교육개발원(2009).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백서 2003~2007.

한숭희(2003). 18차 교육정책포럼 「소외집단을 위한 평생학습기회 확충」. 한국교육개발원

행정안전부(2008). 외국주민 실태조사 결과.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2003). FACES findings: New research on Head Start outcomes and program quality. 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for Children & Families(2005). Biennial report to Congress. 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Pyatskowit, R.(2009). Early Head Start/Head Start 평가, 프로그램 실천, 스태프/교사교육 그리고 정책방향. 창립 5주년기념 위스타트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193-221.

The State of America's Children(2004).

Zigler, E., & Styfco, S. J.(1993). Head start beyond: national plan for extended childhood intervention, Vail-Ballou Press, Binghamtion, New York.

http://eclkc.ohs.acf.hhs.gov/hslc

http://www.beststart.vic.gov.au

부 록

부록 **1.** 부록표

부록 **2.** 유아의 생활 및 교육 실태조사 질문지

부록 1. 부표

〈부표 III-1-1〉 대상 자녀의 신체 발달 수준

단위: %(명)

항목	매우 좋지 않음	좋지 않은 편임	보통임	좋은 편임	매우 좋음	무응답	전체
부부와 자녀	0.4	5.5	41.6	37.8	14.5	0.3	100.0(3,045)
한부모와 자녀	0.9	3.8	36.8	35.8	21.7	0.9	100.0(106)
(한)조부모와 자녀	0.0	6.9	37.9	44.8	10.3	0.0	100.0(29)
(한)조부모와 한부모 및 자녀	0.8	6.6	41.1	35.9	15.3	0.3	100.0(365)
(한)조부모와 양부모(부부) 및 자녀	0.0	6.2	45.7	34.6	9.9	3.7	100.0(81)
기타	0.0	7.5	60.0	22.5	10.0	0.0	100.0(40)
무응답	0.0	0.0	37.0	51.9	11.1	0.0	100.0(27)
전체	0.4(16)	5.5(204)	41.6(1,537)	37.5(1,384)	14.6(539)	0.4(13)	100.0(3,693)

〈부표 III-1-2〉 대상 자녀의 인지 발달 수준

단위: %(명)

항목	매우 좋지 않음	좋지 않은 편임	보통임	좋은 편임	매우 좋음	무응답	전체
부부와 자녀	0.2	0.8	35.4	50.9	12.4	0.3	100.0(3,045)
한부모와 자녀	1.9	1.9	34.0	50.9	10.4	0.9	100.0(106)
(한)조부모와 자녀	0.0	3.4	48.3	37.9	10.3	0.0	100.0(29)
(한)조부모와 한부모 및 자녀	0.3	1.4	36.4	47.9	13.7	0.3	100.0(365)
(한)조부모와 양부모 및 자녀	0.0	11.1	49.4	29.6	6.2	3.7	100.0(81)
기타	0.0	2.5	47.5	35.0	15.0	0.0	100.0(40)
무응답	0.0	3.7	40.7	40.7	11.1	3.7	100.0(27)
전체	0.3(10)	1.2(43)	36.0(1,331)	49.8(1,839)	12.3(455)	0.4(15)	100.0(3,693)

〈부표 III-1-3〉 대상 자녀의 언어 발달 수준

단위: %(명)

항목	매우 좋지 않음	좋지 않은 편임	보통임	좋은 편임	매우 좋음	무응답	전체
부부와 자녀	0.5	3.6	35.0	44.6	15.8	0.5	100.0(3,045)
한부모와 자녀	3.8	6.6	34.9	38.7	15.1	0.9	100.0(106)
(한)조부모와 자녀	0.0	20.7	31.0	34.5	13.8	0.0	100.0(29)
(한)조부모와 한부모 및 자녀	0.0	5.8	35.9	40.3	17.8	0.3	100.0(365)
(한)조부모와 양부모(부부) 및 자녀	2.5	13.6	39.5	30.9	9.9	3.7	100.0(81)
기타	0.0	5.0	35.0	40.0	20.0	0.0	100.0(40)
무응답	0.0	11.1	37.0	33.3	14.8	3.7	100.0(27)
전체	0.6 (21)	4.3 (159)	35.2 (1,300)	43.5 (1,605)	15.9 (587)	0.6 (21)	100.0(3,693)

〈부표 III-1-4〉 대상 자녀의 사회성 발달 수준

단위: %(명)

항목	매우 좋지 않음	좋지 않은 편임	보통임	좋은 편임	매우 좋음	무응답	전체
부부와 자녀	0.2	2.8	35.3	47.5	13.8	0.5	100.0(3,045)
한부모와 자녀	1.9	3.8	42.5	40.6	9.4	1.9	100.0(106)
(한)조부모와 자녀	0.0	10.3	41.4	48.3	0.0	0.0	100.0(29)
(한)조부모와 한부모 및 자녀	0.3	1.6	33.4	49.3	14.8	0.5	100.0(365)
(한)조부모와 양부모(부부) 및 자녀	0.0	13.6	35.8	34.6	12.3	3.7	100.0(81)
기타	0.0	7.5	30.0	52.5	10.0	0.0	100.0(40)
무응답	0.0	0.0	33.3	51.9	11.1	3.7	100.0(27)
전체	0.2(8)	3.0(112)	35.3(1,304)	47.3(1,745)	13.5(500)	0.6(24)	100.0(3,693)

〈부표 III-1-5〉 대상 자녀의 정서 발달 수준

단위: %(명)

항목	매우 좋지 않음	좋지 않은 편임	보통임	좋은 편임	매우 좋음	무응답	전체
부부와 자녀	0.2	2.3	33.8	48.9	14.5	0.4	100.0(3,045)
한부모와 자녀	2.8	8.5	37.7	39.6	9.4	1.9	100.0(106)
(한)조부모와 자녀	3.4	17.2	41.4	34.5	3.4	0.0	100.0(29)
(한)조부모와 한부모 및 자녀	0.0	2.2	30.7	50.1	16.4	0.5	100.0(365)
(한)조부모와 양부모(부부) 및 자녀	1.2	12.3	40.7	29.6	12.3	3.7	100.0(81)
기타	0.0	10.0	30.0	50.0	10.0	0.0	100.0(40)
무응답	0.0	3.7	25.9	59.3	7.4	3.7	100.0(27)
전체	0.3 (10)	2.9 (107)	33.7 (1,245)	48.3 (1,783)	14.3 (529)	0.5 (19)	100.0(3,693)

〈부표 III-1-6〉 다문화가정 자녀의 발달 수준

단위: %(명)

항목	매우 좋지 않음	좋지 않은 편임	보통임	좋은 편임	매우 좋음	전체
신체 발달	0.5	8.1	50.5	29.8	11.1	100.0(198)
인지 발달	0.5	4.5	52.5	32.3	10.1	100.0(198)
언어 발달	1.0	9.6	44.9	31.3	13.1	100.0(198)
사회성 발달	0.5	3.5	42.4	40.9	12.6	100.0(198)
정서 발달	1.0	5.1	45.5	35.9	12.6	100.0(198)

〈부표 III-1-7〉 자녀의 발달에 있어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

단위: %(명)

구분	신체 발달	언어 발달	인지 발달	사회성 발달	정서 발달	기타	없음	무응답	합계
부부와 자녀	18.3	6.2	6.0	30.0	14.1	1.8	22.8	0.8	100.0(3,045)
한부모와 자녀	7.5	9.4	4.7	29.2	29.2	2.8	16.0	0.9	100.0(106)
(한)조부모와 자녀	10.3	10.3	20.7	17.2	24.1	0.0	13.8	3.4	100.0(29)
(한)조부모와 한부모 및 자녀	24.4	5.8	8.5	23.0	13.4	2.2	21.9	0.8	100.0(365)
(한)조부모와	9.9	13.6	8.6	24.7	24.7	1.2	13.6	3.7	100.0(81)

구분	신체 발달	언어 발달	인지 발달	사회성 발달	정서 발달	기타	없음	무응답	합계
양부모(부부) 및 자녀									
기타	22.5	7.5	2.5	17.5	17.5	0.0	30.0	2.5	100.0(40)
무응답	7.4	11.1	7.4	37.0	14.8	0.0	18.5	3.7	100.0(27)
전체	18.3 (677)	6.5 (239)	6.4 (236)	29.0 (1,070)	14.8 (547)	1.9 (66)	22.3 (823)	0.9 (35)	100.0(3,693)

〈부표 III-1-8〉 다문화가정 자녀의 발달에 있어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신체 발달	34	17.5
언어 발달	36	18.6
인지 발달	13	6.7
사회성 발달	35	18.0
정서 발달	28	14.4
기타	7	3.6
없음	40	20.6
인성	1	0.5
합계	194	100.0

〈부표 III-2-1〉 유치원 하원 후 유아를 주로 돌보아 주는 사람(곳)

단위: %(명)

구분	부	모	친인척	비혈연인	보육시설 등 기관	기타	무응답	합계
부부와 자녀	4.1	83.5	7.5	0.4	2.8.	0.9	0.9	100.0(3,045)
한부모와 자녀	7.5	58.5	25.5	1.9	2.8	2.8	0.9	100.0(106)
(한)조부모와 자녀	0.0	20.7	75.9	0.0	0.0	3.4	0.0	100.0(29)
(한)조부모와 한부모 및 자녀	4.1	56.4	34.8	0.3	1.6	1.6	1.1	100.0(365)
(한)조부모와 양부모(부부) 및 자녀	3.7	29.6	61.7	0.0	0.0	2.5	2.5	100.0(81)
기타	2.5	47.5	45.0	2.5	0.0	0.0	2.5	100.0(40)
무응답	7.4	55.6	29.6	0.0	3.7	3.7	0.0	100.0(27)
전체	4.1 (153)	77.9 (2,876)	13.0 (480)	0.4 (16)	2.5 (94)	1.1 (40)	0.9 (34)	100.0(3,693)

〈부표 III-2-2〉 다문화가정에서 유치원 하원 후 유아를 주로 돌보아 주는 사람(곳)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부	13	6.7
모	144	73.8
친인척	31	15.9
비혈연인	1	0.5
보육시설, 학원, 복지관 등 기관	3	1.5
기타	1	0.5
형제자매	2	1.0
전체	195	100.0

〈부표 III-2-3〉 부모 이외에 유치원 하원 후 유아를 주로 돌보는 사람

단위: %(명)

구분	1	2	3	4	5	6	7	8	9	10	합계
부부와 자녀	6.7	9.6	25.8	34.2	5.4	12.9	2.1	1.3	0.4	1.7	100.0 (240)
한부모와 자녀	31.0	31.0	3.4	13.8	6.9	10.3	3.4	0.0	0.0	0.0	100.0 (29)
(한)조부모와 자녀	68.2	31.8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22)
(한)조부모와 한부모 및 자녀	68.8	25.0	0.0	1.6	0.0	0.8	0.0	0.0	0.0	3.9	100.0 (128)
(한)조부모와 양부모(부부) 및 자녀	76.0	20.0	4.0	0.0	0.0	0.0	0.0	0.0	0.0	0.0	100.0 (50)
기타	36.8	21.1	5.3	0.0	31.6	0.0	0.0	0.0	0.0	5.3	100.0 (19)
무응답	50.0	12.5	0.0	25.0	12.5	0.0	0.0	0.0	0.0	0.0	100.0 (8)
전체	35.7 (177)	17.3 (86)	13.3 (66)	18.1 (90)	4.4 (22)	7.1 (35)	1.2 (6)	0.6 (3)	0.2 (1)	2.0 (10)	100.0 (496)

1. 동거 친조부모, 2. 동거 외조부모, 3. 비동거 친조부모, 4. 비동거 외조부모, 5. 동거 친인척, 6. 비동거 친인척, 7. 베이비시터나 이웃 탁아모 등 아동전담 도우미, 8. 파출부 등 가사와 육아를 함께 담당하는 도우미, 9. 기타, 10. 무응답

〈부표 III-2-4〉 다문화가정에서 부모 이외에 유치원 하원 후 유아를 주로 돌보는 사람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동거 친조부모	17	56.7
동거 외조부모	7	23.3
비동거 친조부모	2	6.7
비동거 외조부모	1	3.3
동거 친인척	1	3.3
비동거 친인척	1	3.3
파출부 등 가사와 육아를 함께 담당하는 도우미	1	3.3
전체	30	100.0

〈부표 III-2-5〉 자녀가 하루 중 어른 없이 혼자(아이들끼리) 보내는 시간

단위: %(명)

구분	거의 없음	1시간 내외	2시간 내외	3시간 내외	4시간 이상	기타	무응답	합계
부부와 자녀	76.7	14.0	5.2	1.8	0.6	0.5	1.2	100.0(3,045)
한부모와 자녀	60.4	11.3	9.4	5.7	5.7	2.8	4.7	100.0(106)
(한)조부모와 자녀	48.3	20.7	6.9	6.9	13.8	0.0	3.4	100.0(29)
(한)조부모와 한부모 및 자녀	77.0	13.4	4.4	1.4	0.8	1.1	1.9	100.0(365)
(한)조부모와 양부모(부부) 및 자녀	69.1	7.4	8.6	6.2	3.7	2.5	2.5	100.0(81)
기타	67.5	15.0	10.0	2.5	5.0	0.0	0.0	100.0(40)
무응답	55.6	25.9	3.7	7.4	0.0	0.0	7.4	100.0(27)
전체	75.6(2,793)	13.9(512)	5.4(198)	2.0(75)	1.0(36)	0.7(25)	1.5(54)	100.0(3,693)

〈부표 III-2-6〉 다문화가정 자녀가 하루 중 어른 없이 혼자(아이들끼리) 보내는 시간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아이들끼리만 지낼 때가 거의 없음	120	60.6
1시간 내외	46	23.2
2시간 내외	15	7.6
3시간 내외	6	3.0
4시간 이상	8	4.0
기타	3	1.5
합계	198	100.0

〈부표 III-2-7〉 자녀의 주당 규칙적 식사 일수

단위: %(명)

구분	내내 규칙적	3일 이상	2일	1일	내내 불규칙적	기타	무응답	합계
부부와 자녀	79.4	17.6	0.9	0.2	1.2	0.2	0.4	100.0 (3,045)
한부모와 자녀	69.8	21.7	0.0	0.9	5.7	0.9	0.9	100.0 (106)
(한)조부모와 자녀	75.9	10.3	0.0	0.0	6.9	0.0	6.9	100.0 (29)
(한)조부모와 한부모 및 자녀	81.6	15.9	0.8	0.0	1.1	0.0	0.5	100.0 (365)
(한)조부모와 양부모(부부) 및 자녀	79.0	13.6	2.5	1.2	2.5	0.0	1.2	100.0 (81)
기타	85.0	15.0	0.0	0.0	0.0	0.0	0.0	100.0 (40)
무응답	74.1	18.5	7.4	0.0	0.0	0.0	0.0	100.0 (27)
전체	79.3 (2,929)	17.4 (643)	0.9 (33)	0.2 (7)	1.4 (51)	0.3 (12)	0.5 (18)	100.0 (3,693)

〈부표 III-2-8〉 다문화가정 자녀의 주당 규칙적 식사 일수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일주일 내내 규칙적으로	153	76.9
일주일에 3일 이상	35	17.6
일주일에 2일	3	1.5
일주일 내내 불규칙적으로	7	3.5
기타	1	0.5
전체	199	100.0

〈부표 III-2-9〉 자녀의 예방접종 지도

단위: %(명)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거의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부부와 자녀	0.1	1.1	8.0	37.1	53.8	100.0(3,040)
한부모와 자녀	0.9	9.4	20.8	37.7	31.1	100.0(106)
(한)조부모와 자녀	0.0	3.4	27.6	34.5	34.5	100.0(29)
(한)조부모와 한부모 및 자녀	0.0	1.4	11.3	36.1	51.2	100.0(363)
(한)조부모와 양부모(부부) 및 자녀	1.3	1.3	20.3	41.8	35.4	100.0(79)
기타	2.5	0.0	20.0	30.0	47.5	100.0(40)
무응답	0.0	0.0	11.5	42.3	46.2	100.0(27)
전체	0.1 (5)	1.4 (50)	9.3 (341)	37.0 (1,364)	52.2 (1,923)	100.0 (3,683)

〈부표 III-2-10〉 자녀의 정기검진 지도

단위: %(명)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거의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부부와 자녀	4.6	9.9	29.6	34.8	24.1	100.0(3,034)
한부모와 자녀	2.8	10.4	35.8	37.7	13.2	100.0(106)
(한)조부모와 자녀	0.0	20.7	31.0	31.0	17.2	100.0(29)
(한)조부모와 한부모 및 자녀	1.4	11.8	30.2	31.9	24.7	100.0(364)
(한)조부모와 양부모(부부) 및 자녀	1.3	11.4	34.2	35.4	17.7	100.0(79)
기타	7.5	12.5	22.5	27.5	30.0	100.0(40)
무응답	0.0	11.5	23.1	46.2	19.2	100.0(26)
전체	1.6(60)	10.3(377)	29.9(1,098)	34.6(1,271)	23.7(872)	100.0(3,678)

〈부표 III-2-11〉 자녀의 신체청결 지도

단위: %(명)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거의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부부와 자녀	0.0	0.4	6.4	41.6	51.6	100.0(3,040)
한부모와 자녀	0.9	3.8	8.5	44.3	42.5	100.0(106)
(한)조부모와 자녀	0.0	13.8	24.1	34.5	27.6	100.0(29)
(한)조부모와 한부모 및 자녀	0.0	1.1	8.5	42.3	48.1	100.0(364)
(한)조부모와 양부모(부부) 및 자녀	0.0	0.0	21.8	41.0	37.2	100.0(78)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거의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기타	0.0	0.0	15.0	40.0	45.0	100.0(40)
무응답	0.0	0.0	14.8	48.1	37.0	100.0(27)
전체	0.0 (1)	0.6 (23)	7.3 (270)	41.7 (1,537)	50.3 (1,853)	100.0 (3,684)

〈부표 III-2-12〉 집안 청결 상태

단위: %(명)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거의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부부와 자녀	0.1	0.5	22.0	47.4	30.1	100.0(3,042)
한부모와 자녀	2.8	0.9	22.6	46.2	27.4	100.0(106)
(한)조부모와 자녀	3.4	13.8	24.1	44.8	13.8	100.0(29)
(한)조부모와 한부모 및 자녀	0.0	1.6	20.1	52.2	26.1	100.0(364)
(한)조부모와 양부모(부부) 및 자녀	0.0	0.0	31.6	49.4	19.0	100.0(79)
기타	0.0	0.0	37.5	35.0	27.5	100.0(40)
무응답	0.0	0.0	29.6	48.1	22.2	100.0(27)
전체	0.2 (6)	0.7 (25)	22.3 (821)	47.7 (1,759)	29.2 (1,076)	100.0 (3,687)

〈부표 III-2-13〉 자녀에게 영양적으로 균형 있는 식사 제공

단위: %(명)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거의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부부와 자녀	0.1	3.0	41.0	41.7	14.2	100.0(3,038)
한부모와 자녀	1.9	4.8	44.8	36.2	12.4	100.0(105)
(한)조부모와 자녀	3.4	17.2	34.5	34.5	10.3	100.0(29)
(한)조부모와 한부모 및 자녀	0.0	3.6	40.1	42.8	13.5	100.0(362)
(한)조부모와 양부모(부부) 및 자녀	0.0	5.1	46.2	35.9	12.8	100.0(78)
기타	0.0	5.0	45.0	37.5	12.5	100.0(40)
무응답	0.0	0.0	55.6	44.4	0.0	100.0(27)
전체	0.2 (6)	3.3 (121)	41.2 (1,516)	41.5 (1,525)	13.9 (511)	100.0 (3,679)

〈부표 III-2-14〉 자녀의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의 제한

단위: %(명)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거의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부부와 자녀	0.9	6.4	32.3	43.2	17.2	100.0(3,033)
한부모와 자녀	1.9	7.6	32.4	41.0	17.1	100.0(105)
(한)조부모와 자녀	0.0	10.3	37.9	31.0	20.7	100.0(29)
(한)조부모와 한부모 및 자녀	0.8	6.3	36.6	37.7	18.5	100.0(363)
(한)조부모와 양부모(부부) 및 자녀	1.3	15.4	44.9	26.9.	11.5	100.0(78)
기타	0.0	15.0	22.5	47.5	15.0	100.0(40)
무응답	0.0	11.5	42.3	23.1	23.1	100.0(27)
전체	0.9 (34)	6.8 (250)	33.0 (1,212)	42.0 (1,544)	17.3 (634)	100.0 (3,674)

〈부표 III-2-15〉 자녀의 기본생활습관 지도

단위: %(명)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거의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부부와 자녀	0.0	1.1	21.1	52.3	25.5	100.0(3,032)
한부모와 자녀	1.0	1.9	26.9	49.0	21.2	100.0(104)
(한)조부모와 자녀	0.0	6.9	41.4	37.9	13.8	100.0(29)
(한)조부모와 한부모 및 자녀	0.3	1.1	24.2	49.5	25.0	100.0(364)
(한)조부모와 양부모(부부) 및 자녀	0.0	6.5	35.1	36.4	22.1	100.0(77)
기타	0.0	2.6	30.8	43.6	23.1	100.0(39)
무응답	0.0	3.7	25.9	51.9	18.5	100.0(27)
전체	0.1 (3)	1.3 (47)	22.2 (814)	51.4 (1,887)	25.1 (921)	100.0 (3,672)

〈부표 III-2-16〉 자녀의 TV 및 비디오 프로그램이나 시청시간 제한

단위: %(명)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거의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부부와 자녀	0.4	4.2	24.2	44.6	26.5	100.0(3,040)
한부모와 자녀	0.0	8.5	33.0	38.7	19.8	100.0(106)
(한)조부모와 자녀	0.0	17.2	55.2	20.7	6.9	100.0(29)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거의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한)조부모와 한부모 및 자녀	0.3	9.1	28.0	42.0	20.6	100.0(364)
(한)조부모와 양부모(부부) 및 자녀	1.3	19.5	33.8	33.8	11.7	100.0(77)
기타	0.0	7.5	27.5	47.5	17.5	100.0(40)
무응답	0.0	14.8	37.0	37.0	11.1	100.0(27)
전체	0.4 (15)	5.3 (197)	25.4 (936)	43.7 (1,611)	25.1 (924)	100.0 (3,683)

〈부표 III-2-17〉 다문화가정 자녀의 건강, 청결/위생, 영양, 생활습관 지도

단위: %(명)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거의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예방접종	0.5	1.5	15.5	39.0	42.5	100.0(198)
정기검진	1.5	14.0	34.0	33.0	17.5	100.0(200)
신체 청결	0.0	2.0	21.2	38.4	38.4	100.0(198)
집안 청결	0.5	1.5	29.3	44.4	24.2	100.0(198)
균형 있는 식사	1.0	3.5	51.8	32.2	11.6	100.0(199)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 제한	3.6	11.7	42.6	32.5	9.6	100.0(197)
기본생활습관 지도	1.0	3.6	37.6	40.6	17.3	100.0(197)
TV 또는 비디오(DVD) 시청시간 제한	1.5	9.5	38.7	39.2	11.1	100.0(199)

〈부표 III-2-18〉 자녀와 놀아주는 시간

단위: %(명)

구분	놀아 주지 않음	30분 내외	1시간 내외	2시간 내외	3시간 이상	기타	무응답	합계
부부와 자녀	2.1	25.5	43.0	20.5	7.1	1.3	0.6	100.0(3,045)
한부모와 자녀	2.8	23.6	41.5	23.6	7.5	0.9	0.0	100.0(106)
(한)조부모와 자녀	6.9	34.5	24.1	17.2	10.3	3.4	3.4	100.0(29)
(한)조부모와 한부모 및 자녀	2.7	22.7	44.9	19.2	7.9	1.4	1.1	100.0(365)
(한)조부모와 양부모(부부) 및 자녀	6.2	22.2	35.8	18.5	8.6	1.2	7.4	100.0(81)

구분	놀아주지 않음	30분 내외	1시간 내외	2시간 내외	3시간 이상	기타	무응답	합계
기타	5.0	17.5	45.0	22.5	10.0	0.0	0.0	100.0(40)
무응답	0.0	33.3	40.7	18.5	3.7	0.0	3.7	100.0(27)
전체	2.4 (87)	25.2 (929)	42.8 (1,582)	20.4 (754)	7.2 (267)	1.3 (45)	0.8 (29)	100.0 (3,693)

〈부표 III-2-19〉 다문화가정에서 자녀와 놀아주는 시간

단위: 명, %

	명	%
놀아주지 않음	8	4.0
30분 내외	55	27.6
1시간 내외	62	31.2
2시간 내외	46	23.1
3시간 이상	27	13.6
기타	1	0.5
전체	199	100.0

〈부표 III-2-20〉 자녀와 함께 책 읽어주는 활동

단위: %(명)

항목	주 1~2회	주 3회 이상	하지 않음	무응답	전체
부부와 자녀	39.0	54.6	5.8	0.5	100.0(3,045)
한부모와 자녀	50.9	33.0	14.2	1.9	100.0(106)
(한)조부모와 자녀	27.6	34.5	27.6	10.3	100.0(29)
(한)조부모와 한부모 및 자녀	42.7	48.5	7.9	0.8	100.0(365)
(한)조부모와 양부모(부부) 및 자녀	43.2	28.4	25.9	2.5	100.0(81)
기타	52.5	35.0	10.0	2.5	100.0(40)
무응답	44.4	44.4	11.1	0.0	100.0(27)
전체	39.9 (1,473)	52.4 (1,935)	7.0 (258)	0.7 (27)	100.0 (3,693)

〈부표 III-2-21〉 자녀와 함께 노래 불러주는 활동

단위: %(명)

항목	주 1~2회	주 3회 이상	하지 않음	무응답	전체
부부와 자녀	51.8	31.7	15.2	1.4	100.0(3,045)
한부모와 자녀	48.1	28.3	23.6	0.0	100.0(106)
(한)조부모와 자녀	13.8	17.2	58.6	10.3	100.0(29)
(한)조부모와 한부모 및 자녀	44.1	34.0	18.4	3.6	100.0(365)
(한)조부모와 양부모(부부) 및 자녀	28.4	27.2	40.7	3.7	100.0(81)
기타	72.5	20.0	7.5	0.0	100.0(40)
무응답	44.4	40.7	11.1	3.7	100.0(27)
전체	50.3(1,857)	31.5(1,164)	16.5(610)	1.7(62)	100.0(3,693)

〈부표 III-2-22〉 자녀와 함께하는 만들기나 그리기 활동

단위: %(명)

항목	주 1~2회	주 3회 이상	하지 않음	무응답	전체
부부와 자녀	59.1	14.5	24.7	1.6	100.0(3,045)
한부모와 자녀	46.2	12.3	37.7	3.8	100.0(106)
(한)조부모와 자녀	20.7	13.8	55.2	10.3	100.0(29)
(한)조부모와 한부모 및 자녀	56.7	14.0	26.8	2.5	100.0(365)
(한)조부모와 양부모(부부) 및 자녀	32.1	13.6	49.4	4.9	100.0(81)
기타	60.0	20.0	17.5	2.5	100.0(40)
무응답	51.9	22.2	25.9	0.0	100.0(27)
전체	57.6(2,126)	14.5(536)	26.0(960)	1.9(71)	100.0(3,693)

〈부표 III-2-23〉 자녀에게 글자, 낱말, 혹은 수를 가르치는 활동

단위: %(명)

항목	주 1~2회	주 3회 이상	하지 않음	무응답	전체
부부와 자녀	43.5	43.3	12.1	1.0	100.0(3,045)
한부모와 자녀	43.4	38.7	17.0	0.9	100.0(106)
(한)조부모와 자녀	34.5	27.6	27.6	10.3	100.0(29)
(한)조부모와 한부모 및 자녀	46.3	40.0	12.1	1.6	100.0(365)
(한)조부모와 양부모(부부) 및 자녀	48.1	27.2	19.8	4.9	100.0(81)
기타	55.0	25.0	17.5	2.5	100.0(40)
무응답	37.0	48.1	14.8	0.0	100.0(27)
전체	43.9(1,622)	42.2(1,559)	12.6(466)	1.2(46)	100.0(3,693)

〈부표 III-2-24〉 자녀와 함께 게임을 하거나 놀잇감을 가지고 함께 노는 활동

단위: %(명)

항목	주 1~2회	주 3회 이상	하지 않음	무응답	전체
부부와 자녀	59.1	21.1	17.8	1.9	100.0(3,045)
한부모와 자녀	44.3	19.8	34.9	0.9	100.0(106)
(한)조부모와 자녀	24.1	24.1	41.4	10.3	100.0(29)
(한)조부모와 한부모 및 자녀	53.4	23.3	21.1	2.2	100.0(365)
(한)조부모와 양부모(부부) 및 자녀	44.4	19.8	32.1	3.7	100.0(81)
기타	70.0	7.5	20.0	2.5	100.0(40)
무응답	51.9	29.6	18.5	0.0	100.0(27)
전체	57.6(2,128)	21.2(783)	19.2(708)	2.0(74)	100.0(3,693)

〈부표 III-2-25〉 자녀와 놀이터에 가거나 함께 하는 신체운동

단위: %(명)

항목	주 1~2회	주 3회 이상	하지 않음	무응답	전체
부부와 자녀	57.3	28.9	12.4	1.4	100.0(3,045)
한부모와 자녀	50.0	23.6	26.4	0.0	100.0(106)
(한)조부모와 자녀	31.0	24.1	34.5	10.3	100.0(29)
(한)조부모와 한부모 및 자녀	58.4	20.3	18.4	3.0	100.0(365)
(한)조부모와 양부모(부부) 및 자녀	38.3	24.7	32.1	4.9	100.0(81)
기타	62.5	20.0	15.0	2.5	100.0(40)
무응답	63.0	14.8	14.8	7.4	100.0(27)
전체	56.6(2,092)	27.6(1,019)	14.1(519)	1.7(63)	100.0(3,693)

〈부표 III-2-26〉 자녀와 함께 우체국, 은행, 상점 등을 가는 활동

단위: %(명)

항목	주 1~2회	주 3회 이상	하지 않음	무응답	전체
부부와 자녀	62.4	27.1	9.0	1.5	100.0(3,045)
한부모와 자녀	58.5	30.2	11.3	0.0	100.0(106)
(한)조부모와 자녀	37.9	34.5	17.2	10.3	100.0(29)
(한)조부모와 한부모 및 자녀	61.1	26.3	10.7	1.9	100.0(365)
(한)조부모와 양부모(부부) 및 자녀	34.6	34.6	25.9	4.9	100.0(81)
기타	45.0	27.5	27.5	0.0	100.0(40)
무응답	55.6	37.0	7.4	0.0	100.0(27)
전체	61.1(2,257)	27.4(1,011)	9.9(365)	1.6(60)	100.0(3,693)

〈부표 III-2-27〉 자녀와 함께 하는 요리, 청소, 식사준비 등 집안일

단위: %(명)

항목	주 1~2회	주 3회 이상	하지 않음	무응답	전체
부부와 자녀	55.3	17.7	25.8	1.1	100.0(3,045)
한부모와 자녀	45.3	20.8	33.0	0.9	100.0(106)
(한)조부모와 자녀	31.0	20.7	34.5	13.8	100.0(29)
(한)조부모와 한부모 및 자녀	56.2	16.2	25.8	1.9	100.0(365)
(한)조부모와 양부모(부부) 및 자녀	37.0	14.8	42.0	6.2	100.0(81)
기타	60.0	17.5.	22.5	0.0	100.0(40)
무응답	40.7	25.9	29.6	3.7	100.0(27)
전체	54.5(2,012)	17.6(651)	26.5(977)	1.4(53)	100.0(3,693)

〈부표 III-2-28〉 다문화가정에서 자녀와 함께하는 활동

단위: %(명)

	책 읽어 주기	노래 부르기	만들기나 그리기	글자, 수 가르치기	게임하거나 놀아주기	놀이터에 가거나 신체 운동	우체국, 은행, 상점 가기	집안일 하기
하지않음	13.6	26.5	28.9	10.7	31.3	25.4	21.6	35.7
주 1~2회	53.5	48.0	55.8	54.6	50.8	57.0	56.2	51.5
주 3회이상	32.8	25.5	15.2	34.7	17.9	17.6	22.2	12.8
전체	100.0(198)	100.0(196)	100.0(197)	100.0(196)	100.0(195)	100.0(193)	100.0(194)	100.0(196)

〈부표 III-2-29〉 최근 6개월간 자녀와 함께 도서관에 간 적이 있는지 유무

단위: %(명)

구분	있음	없음	합계
부부와 자녀	60.0	40.0	100.0(3,045)
한부모와 자녀	49.0	51.0	100.0(106)
(한)조부모와 자녀	30.8	69.2	100.0(29)
(한)조부모와 한부모 및 자녀	50.6	49.4	100.0(365)
(한)조부모와 양부모(부부) 및 자녀	27.3	72.7	100.0(81)
기타	51.3	48.7	100.0(40)
무응답	37.5	62.5	100.0(27)
전체	57.6(2,086)	42.4(1,534)	100.0(3,620)

〈부표 III-2-30〉 최근 6개월간 자녀와 함께 인형극, 뮤지컬, 미술관, 박물관 등에 간 적이 있는지 유무

단위: %(명)

구분	있음	없음	합계
부부와 자녀	65.8	34.2	100.0(3,045)
한부모와 자녀	53.4	46.6	100.0(106)
(한)조부모와 자녀	48.0	52.0	100.0(29)
(한)조부모와 한부모 및 자녀	57.3	42.7	100.0(365)
(한)조부모와 양부모(부부) 및 자녀	41.8	58.2	100.0(81)
기타	59.0	41.0	100.0(40)
무응답	53.8	46.2	100.0(27)
전체	63.8(2,314)	36.2(1,313)	100.0(3,627)

〈부표 III-2-31〉 최근 6개월간 자녀와 함께 놀이공원, 동물원, 수족관 방문 여부

단위: %(명)

구분	있음	없음	합계
부부와 자녀	76.6	23.4	100.0(3,045)
한부모와 자녀	66.7	33.3	100.0(106)
(한)조부모와 자녀	61.5	38.5	100.0(29)
(한)조부모와 한부모 및 자녀	71.5	28.5	100.0(365)
(한)조부모와 양부모(부부) 및 자녀	53.8	46.2	100.0(81)
기타	75.0	25.0	100.0(40)
무응답	52.0	48.0	100.0(27)
전체	75.0(2,740)	25.0(912)	100.0(3,652)

〈부표 III-2-32〉 다문화가정에서 자녀와 함께하는 문화 활동 유무

단위: %(명)

구분	있음	없음	합계
도서관 가기	37.9	62.1	100.0(195)
인형극, 뮤지컬, 미술관, 박물관 가기	45.4	54.6	100.0(196)
놀이공원, 동물원, 수족관 가기	67.9	32.1	100.0(196)

〈부표 III-2-33〉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가장 어려운 점

구분	가중치부여 순위	변수 값
부부+자녀	1	학원 및 학습지 등 자녀 사교육비가 부담스러움
	2	취업으로 인해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 부족함
	3	자녀를 돌보아줄 사람이 없음
한부모+자녀	1	취업으로 인해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 부족함
	2	자녀를 돌보아줄 사람이 없음
	3	학원 및 학습지 등 자녀 사교육비가 부담스러움
(한)조부모+자녀	1	자녀 학습지도 방법을 잘 모르겠음
	2	취업으로 인해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 부족함
	3	자녀를 돌보아줄 사람이 없음
(한)조부모+ 한부모+자녀	1	취업으로 인해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 부족함
	2	자녀를 돌보아줄 사람이 없음
	3	학원 및 학습지 등 자녀 사교육비가 부담스러움
(한)조부모+ 양부모(부부)+자녀	1	학원 및 학습지 등 자녀 사교육비가 부담스러움
	2	취업으로 인해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 부족함
	3	자녀 학습지도 방법을 잘 모르겠음
기타	1	학원 및 학습지 등 자녀 사교육비가 부담스러움
	2	취업으로 인해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 부족함
	3	자녀 학습지도 방법을 잘 모르겠음
무응답	1	취업으로 인해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 부족함
	2	학원 및 학습지 등 자녀 사교육비가 부담스러움
	3	자녀를 돌보아줄 사람이 없음

〈부표 III-2-34〉 다문화가정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가장 어려운 점

순위	내용
1	학원, 학습지 등 자녀 사교육비가 부담스러움
2	자녀 학습지도 방법을 잘 모르겠음
3	유치원 교육비가 부담스러움
4	자녀 양육방법을 잘 모르겠음
5	취업으로 인해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함

〈부표 III-3-1〉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는 가장 큰 이유

구분	가중치부여 순위	변수 값
부부+자녀	1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하여
	2	사회성 발달을 위하여
	3	초등학교 준비를 위하여
한부모+자녀	1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하여
	2	사회성 발달을 위하여
	3	초등학교 준비를 위하여
(한)조부모+자녀	1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하여
	2	취업 등으로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서
	3	초등학교 준비를 위하여
(한)조부모+ 한부모+자녀	1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하여
	2	사회성 발달을 위하여
	3	초등학교 준비를 위하여
(한)조부모+ 양부모(부부)+자녀	1	사회성 발달을 위하여
	2	초등학교 준비를 위하여
	3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하여
기타	1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하여
	2	사회성 발달을 위하여
	3	초등학교 준비를 위하여
무응답	1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하여
	2	초등학교 준비를 위하여
	3	사회성 발달을 위하여

〈부표 III-3-2〉 다문화가정에서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는 가장 큰 이유

순위	변수 값
1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하여
2	사회성 발달을 위하여
3	초등학교 준비를 위하여
4	같이 놀 또래 친구들이 없어서
5	취업 등으로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서

〈부표 III-3-3〉 현재 다니고 있는 유치원을 선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

구분	가중치부여 순위	변수 값
부부+자녀	1	정규 교육내용이 좋아서
	2	비용이 저렴해서
	3	집에서 가까워서
한부모+자녀	1	정규 교육내용이 좋아서
	2	비용이 저렴해서
	3	집에서 가까워서
(한)조부모+자녀	1	정규 교육내용이 좋아서
	2	비용이 저렴해서
	3	운영시간이 적절해서
(한)조부모+ 한부모+자녀	1	정규 교육내용이 좋아서
	2	집에서 가까워서
	3	비용이 저렴해서
(한)조부모+ 양부모(부부)+자녀	1	정규 교육내용이 좋아서
	2	집에서 가까워서
	3	원장 및 교사가 좋아서
기타	1	정규 교육내용이 좋아서
	2	집에서 가까워서
	3	원장 및 교사가 좋아서
무응답	1	정규 교육내용이 좋아서
	2	비용이 저렴해서
	3	집에서 가까워서

〈부표 III-3-4〉 다문화가정 부모가 현재 다니고 있는 유치원을 선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

순위	변수 값
1	정규 교육내용이 좋아서
2	집에서 가까워서
3	비용이 저렴해서
4	형제자매가 같이 다니고 있어서
5	원장, 교사가 좋아서

〈부표 III-3-5〉 유치원에서 더욱 강화되기를 희망하는 교육내용

단위: %(명)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합계
부부와 자녀	31.0	8.3	10.2	15.8	7.9	15.6	6.6	2.2	0.6	0.4	1.4	100.0 (3,045)
한부모와 자녀	31.1	8.5	17.0	13.2	5.7	14.2	7.5	0.0	0.9	0.9	0.9	100.0 (106)
(한)조부모와 자녀	20.7	27.6	13.8	17.2	6.9	0.0	10.3	0.0	0.0	0.0	3.4	100.0 (29)
(한)조부모와 한부모 및 자녀	32.3	11.0	8.5	14.8	7.9	17.3	5.2	1.4	0.5	0.3	0.8	100.0 (365)
(한)조부모와 양부모(부부) 및 자녀	27.2	19.8	18.5	11.1	6.2	7.4	7.4	1.2	0.0	0.0	1.2	100.0 (81)
기타	35.0	7.5	15.0	7.5	2.5	12.5	10.0	5.0	0.0	0.0	5.0	100.0 (40)
무응답	33.3	7.4	14.8	11.1	3.7	18.5	0.0	7.4	0.0	3.7	0.0	100.0 (27)
전체	31.0 (1,146)	8.9 (330)	10.5 (389)	15.4 (568)	7.7 (284)	15.4 (570)	6.6 (242)	2.1 (76)	0.6 (22)	0.4 (16)	1.4 (50)	100.0 (3,693)

1. 정서/사회성 발달 지원, 2. 인지/언어 발달 지원, 3. 초등학교 학습 준비, 4. 예체능 특기교육, 5. 외국어 교육, 6. 문화체험, 7. 기본 생활습관 지도, 8. 부모교육 및 참여활동, 9. 기타, 10. 없음, 11. 무응답

〈부표 III-3-6〉 다문화가정 부모가 유치원에서 더욱 강화되기를 희망하는 교육내용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정서・사회성 발달 지원	63	32.0
인지・언어 발달 지원	42	21.3
초등학교 학습 준비	38	19.3
예체능 특기교육	13	6.6
외국어 교육	12	6.1
문화체험	10	5.1
기본생활습관 지도	16	8.1
부모교육 및 참여활동	1	0.5
없음	2	1.0
전체	200	100.0

〈부표 III-3-7〉 가정에서 실제 납부하는 자녀의 월 평균 유치원 교육비

단위: 원

구분	수업료 *M(SD)*	교재 교구비 *M(SD)*	급·간식비 *M(SD)*	차량 운영비 *M(SD)*	특기 적성비 *M(SD)*	현장 학습비 *M(SD)*	종일반비 *M(SD)*	기타 *M(SD)*
부부와 자녀	63849.2 (7682.58)	10084.3 (2580.09)	26957.9 (2375.76)	2010.6 (1022.35)	9443.5 (2413.23)	5765.4 (1752.60)	11567.0 (3146.08)	97.5 (6.35)
한부모와 자녀	54426.2 (7585.39)	18200.0 (4753.29)	24100.0 (2446.15)	2196.7 (654.81)	12803.3 (2524.02)	7360.7 (1454.22)	17983.6 (2658.42)	98.0 (0.00)
(한)조부모와 자녀	58312.5 (8482.09)	3437.5 (870.25)	19812.5 (2164.31)	0.0 (0.00)	7500.0 (2439.41)	1750.0 (356.38)	8875.0 (1776.67)	95.2 (14.86)
(한)조부모와 한부모 및 자녀	56461.9 (7755.34)	8403.2 (1894.73)	26899.2 (2102.27)	1580.7 (719.04)	9572.6 (2495.21)	5161.3 (1047.17)	9626.5 (2563.85)	97.6 (6.14)
(한)조부모와 양부모(부부) 및 자녀	31446.8 (5464.44)	9468.1 (1885.72)	22000.0 (2119.65)	319.2 (218.98)	3851.1 (987.26)	5723.4 (1644.51)	10148.9 (2206.90)	97.0 (9.56)
기타	53700.0 (6416.74)	9724.1 (2896.60)	24137.9 (2085.27)	1241.4 (471.59)	9933.3 (2563.32)	7333.3 (1330.89)	18166.7 (2590.77)	98.1 (0.22)
무응답	38176.5 (4829.66)	11058.8 (2101.30)	25529.4 (1865.31)	0.0 (0.00)	7058.8 (1392.61)	2941.2 (468.36)	7352.9 (1659.21)	98.0 (0.00)
전체	62079.8 (7638.28)	10062.2 (2578.47)	26718.7 (2345.95)	1912.4 (971.51)	9412.6 (2404.84)	5720.7 (1671.67)	11539.1 (3061.02)	97.5 (6.38)

〈부표 III-3-8〉 다문화가정에서 실제 납부하는 자녀의 월 평균 유치원 교육비

단위: 원

구분	*M*	*SD*
수업료	44946.6	69320.81
교재 및 교구비	7584.6	18359.37
급·간식비	23938.5	23360.59
차량운영비	1175.6	5514.29
특기적성비	5269.2	15643.70
현장학습비	6476.9	15244.88
종일반비	10407.7	23641.61
기타	435.0	3708.71

〈부표 III-3-9〉 다문화가정 유아가 유치원 외에 이용하는 기관 교육프로그램 개수

단위: 개

구분	*M*	*SD*
음악	0.1	0.33
미술	0.2	0.36
체육	0.1	0.58
수ㆍ과학	0.1	0.33
한글	0.1	0.35
영어	0.1	0.23
교구놀이 프로그램	0.0	0.15
기타	0.0	0.23

〈부표 III-3-10〉 유치원 교육 외에 이용하는 기관 교육프로그램 비용

단위: 원

구분	음악 *M(SD)*	미술 *M(SD)*	체육 *M(SD)*	수·과학 *M(SD)*	한글 *M(SD)*	영어 *M(SD)*	교구놀이 *M(SD)*	기타 *M(SD)*
부부와 자녀	81989.9 (43658.68)	72073.5 (48649.93)	65826.1 (34960.57)	53450.9 (57905.14)	0.1 (0.32)	85013.8 (66559.59)	58382.8 (34942.50)	41086.7 (36372.08)
한부모와 자녀	68461.5 (31582.21)	62666.7 (31462.34)	- (-)	42000.0 (15253.42)	0.1 (0.32)	90000.0 (42426.41)	70000.0 (40926.76)	44111.1 (30929.13)
(한)조부모와 자녀	- (-)	- (-)	- (-)	30000.0 (-)	0.5 (0.58)	- (-)	- (-)	- (-)
(한)조부모와 한부모 및 자녀	75372.1 (22706.22)	64340.9 (28050.57)	66666.7 (40414.52)	41304.4 (22592.10)	0.1 (0.32)	99090.9 (74506.57)	88777.8 (119670.15)	37045.5 (37935.38)
(한)조부모와 양부모(부부) 및 자녀	85000.0 (7071.1)	84250.0 (12606.22)	- (-)	35750.0 (17095.32)	0.2 (0.36)	92000.0 (44384.68)	48000.0 (27073.97)	25000.0 (-)
기타	75000.0 (31091.26)	73333.3 (31251.67)	30000.0 (-)	265000.0 (332340.19)	0.1 (-)	125000.0 (-)	- (-)	37000.0 (-)
무응답	80000.0 (-)	82500.0 (45961.94)	- (-)	- (-)	0.0 (0.00)	100000.0 (70710.68)	- (-)	- (-)
전체	80937.0 (41626.81)	71283.6 (46333.00)	75848.1 (37233.06)	53468.6 (62130.37)	46498.1 (40917.71)	86712.0 (66422.81)	60342.7 (44633.26)	69046.4 (87906.49)

〈부표 III-3-11〉 다문화가정 부모가 유치원 교육 외에 이용하는 기관 교육프로그램 비용

단위: 원

구분	M	SD
음악	81538.5	27942.25
미술	75062.5	35091.25
체육	64666.7	30899.03
수 · 과학	133800.0	220738.06
한글	88833.3	145741.26
영어	41333.3	22992.75
교구놀이 프로그램	35000.0	
기타	79857.1	65422.80

부록 2. 질문지

시·도번호		일련번호			

《 유아의 교육 및 생활 실태조사 》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개발센터(www.kicce.re.kr)는 육아정책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센터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 연구용역으로 수행 중인 취학전 유아를 위한 지원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유아의 교육 및 생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는 유아의 부모님을 대상으로 육아실태와 육아지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를 파악하여 보다 나은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 이외 다른 용도로는 활용되지 않을 것이며, 설문지를 작성해주시는 분들께는 유치원을 통해 문화상품권(5,000원)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바쁘시더라도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9년 7월

육아정책개발센터 소장 조 복 희

<연락처>

□ 연 구 진 : 장명림, 이정림, 김은영, 박수연
□ 전 화 : 02-398-7718, 7712
□ 팩 스 : 02-730-3317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7층 육아정책개발센터

응답일	2009년 7월 일			
응답자 정보	응답자 성명		전화번호	
	아동과의 관계	□① 모 □② 부 □③ (외)조모 □④ (외)조부 □⑤ 기타 친인척 □⑥ 비혈연		

Ⅰ. 가구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거주지역	(　　) 시·도　(　　) 구·군　(　　) 읍·면·동		
	□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	□③ 읍·면 지역
2. 가족구성	□① 부부+자녀 □③ 친인척+자녀 □⑤ (한)조부모+한부모+자녀 □⑦ 기타(　　)	□② 한부모+자녀 □④ (한)조부모+자녀 □⑥ (한)조부모+양부모(부부)+자녀	
3. 가구원수	(　　) 명	4. 취학전 자녀수	(　　) 명
5. 가구 소득수준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층 □④ 4층 □⑦ 모름	□② 차상위층 □⑤ 5층	□③ 3층 □⑥ 6층 이상
6. 월평균 소득	월 (　　) 원　※ 가구원 전체 소득의 합산 금액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7. 월평균 지출	월 (　　) 원		
8. 가장 부담되는 지출 항목	□① 식비 □④ 주거비(전세금, 월세 등) □⑦ 기타(　　)	□② 의료비 □⑤ 각종 빚(채무)의 원리금 상환	□③ 자녀교육비 □⑥ 각종 공과금 (전기세, 수도세, 전화세, 관리비 등)
9. 취학전 자녀교육비 금액 및 비율	금액: 월평균 (　　) 원 총소득 대비 비율: (　　) %	※ 취학전 자녀 모두에게 들어가는 비용의 금액과 비율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유치원교육비, 보육료, 학원비, 학습지 비용 등 포함)	
10. 주택형태	□① 자가 □④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⑦ 가족 및 친척의 소유(유상)	□② 전세 □⑤ 영구 임대 아파트 □⑧ 기타(　　)	□③ 보증금 있는 월세 □⑥ 가족 및 친척의 소유(무상)
11. 다문화가정 여부	□① 다문화가정	□② 다문화가정 아님	

Ⅱ. 부모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 부와 모에 각각에 대하여 해당하는 번호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항목	부	모	보기
1. 연령	만 (　　) 세	만 (　　) 세	
2. 자녀와의 동거			① 동거　② 비동거
3. 비동거 이유			① 이혼 및 별거　② 사망 ③ 직장 때문에　④ 건강상의 이유로 ⑤ 입대(병역의무)　⑥ 가출 ⑦ 기타(　　)　⑧⑧ 비해당
4. 취업 여부			① 취업　② 미취업　⑧⑧ 비해당
5. 종사상 지위			① 정규직/상용직(2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이지만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경우) ② 비정규직 중 임시직(1년 미만의 근로 계약 기간) ③ 비정규직 중 일용직(1개월 미만의 근로 계약 기간 또는 일당제 급여) ④ 기타(　　)　⑧⑧ 비해당
6. 근무형태			① 규칙적으로 출퇴근　② 불규칙하게 출퇴근 ③ 재택근무　④ 휴직 중 ⑤ 무직(전업주부 포함)　⑥ 모름 ⑦ 기타(　　)　⑧⑧ 비해당
7. 건강상태			① 장애가 있음　② 질병이 있음 ③ 장애와 질병이 모두 있음　④ 건강 양호함 ⑤ 모르겠음　⑧⑧ 비해당
8. 음주횟수			① 전혀 마시지 않음　② 월1회 이하　③ 주1회 정도 ④ 주2-3회 정도　⑤ 주4회 정도　⑥ 거의 매일 ⑧⑧ 비해당
9. 하루 흡연량			① 전혀 피우지 않음　② 10개피 이하　③ 11-20개피(한갑) ④ 한갑 초과　⑧⑧ 비해당

III. 대상 자녀의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 유치원에서 설문지를 받아 온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녀의 성별	□① 남 □② 여	**2. 자녀의 연령**	만 ( ) 세
3. 출생순위	( ) 명의 자녀 중 ( ) 번째 자녀		
4. 자녀의 건강상태	□① 장애가 있음 □② 질병이 있음 □③ 장애와 질병이 모두 있음 □④ 건강 양호함 □⑤ 모르겠음		

문항	매우 좋지 않음	좋지 않은 편임	보통임	좋은 편임	매우 좋음
5. 대상 자녀의 신체발달(키, 몸무게, 운동능력 등)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6. 대상 자녀의 인지 발달(예: 지능 등)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7. 대상 자녀의 언어발달(예: 읽기, 말하기 등)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8. 대상 자녀의 사회성 발달(예: 친구 사귀기 등)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9. 대상 자녀의 정서발달(예: 감정표현, 감정조절 등)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10. 대상 자녀의 발달에 있어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 ① 신체발달 □② 언어발달 □③ 인지발달
□ ④ 사회성 발달 □⑤ 정서발달 □⑥ 기타( )
□ ⑦ 없음

IV. 대상 자녀의 양육 및 생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1. 대상 자녀가 유치원에서 돌아온 후 주로 돌보아주는 사람(곳)은 누구입니까?

□① 부 (☞10번) □② 모 (☞10번)
□③ 친인척 (☞2번) □④ 비혈연인 (☞2번)
□⑤ 보육시설, 학원, 복지관 등 기관 (☞10번) □⑥ 기타( ) (☞10번)

※ 유치원에서 돌아온 후 부모 이외에 다른 사람이 주로 돌보는 경우, 그 돌보는 사람에 관한 질문입니다.

2. 돌보는 사람	□① 동거 친조부모 □② 동거 외조부모 □③ 비동거 친조부모 □④ 비동거 외조부모 □⑤ 동거 친인척 □⑥ 비동거 친인척 □⑦ 베이비시터, 이웃탁아모 등 아동을 전담해서 보는 도우미 □⑧ 파출부 등 가사와 육아를 함께 담당하는 도우미 □⑨ 기타( )
3. 연령	만 ( ) 세
4. 학력	□① 고등학교 졸업(이하) □② 전문대학(2, 3년제) 졸업 □③ 대학교 졸업 □④ 대학원 졸업 □⑤ 기타( )
5. 건강상태	□① 장애가 있음 □② 질병이 있음 □③ 장애와 질병 모두 있음 □④ 건강 양호함 □⑤ 모르겠음
6. 비용지불여부	□① 현금 지불 (☞7번) □② 현물 지불 (☞8번) □③ 지불 안함 (☞9번)
7. 현금지불금액	월 평균 ( ) 원
8. 비용지불이 부담되는 정도	□① 전혀 부담되지 않음 □② 별로 부담되지 않음 □③ 보통임 □④ 약간 부담됨 □⑤ 매우 부담됨 □⑧ 비해당
9. 아이를 돌보아 주는 총 시간	( ) 시간 ( ) 분 ※ 1일 기준

※ 다음은 대상 자녀가 유치원에서 돌아온 이후의 생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10. 대상 자녀는 유치원에서 언제 돌아옵니까? (　　) 시 (　　) 분

11. 대상 자녀가 유치원에서 돌아온 후 주로 생활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① 집　□② 친척집　□③ 이웃집 또는 자녀 친구의 집
□④ 동네골목·놀이터　□⑤ 복지관, 공부방 등 사회복지기관　□⑥ 학원 등 사교육기관
□⑦ 잘 모르겠음　□⑧ 기타(　　)

12. 대상 자녀가 하루생활 중 어른 없이 혼자(아이들끼리) 보내는 시간은 보통 얼마나 됩니까?

□① 아이들끼리만 지낼 때가 거의 없음　□② 1시간 내외　□③ 2시간 내외
□④ 3시간 내외　□⑤ 4시간 이상　□⑥ 기타(　　)

13. 대상 자녀가 유치원에서 돌아온 후 다음의 활동을 보통 얼마동안 하는지 평일 하루를 기준 기록하여 주십시오.

활동 내용	활동 시간	
1) 혼자 놀기	시간	분
2) 친구와 놀기	시간	분
3) 어른과 놀기	시간	분
4) 책 읽기	시간	분
5) 학원, 복지관 등 기관에서의 교육	시간	분
6) 학습지 등 방문교육	시간	분
7) TV, 비디오(DVD) 시청	시간	분
8) 오락, 컴퓨터 게임하기	시간	분
9) 어른과의 외출	시간	분
10) 혼자 밖에서 돌아다니기	시간	분
11) 휴식 및 낮잠자기	시간	분
12) 특별히 하는 것 없이 그냥 집에 있기	시간	분
13) 기타(　　)	시간	분

※ 다음은 대상 자녀에 대한 관리 및 지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14. 대상 자녀가 일주일 동안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날은 며칠입니까?

□① 일주일 내내 규칙적으로　□② 일주일에 3일 이상
□③ 일주일에 2일　□④ 일주일에 1일
□⑤ 일주일 내내 불규칙하게　□⑥ 기타(　　)

15~22. 다음을 읽고, 해당하는 칸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거의 그렇다	매우 그렇다
15. 나는 대상 자녀에게 제때에 예방접종을 시키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대상 자녀가 정기검진(치과, 안과 등)을 잘 받도록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대상 자녀를 깨끗하게 씻기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집안 청결을 유지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대상 자녀에게 영양적으로 균형있는 식사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대상 자녀에게 라면, 인스턴트 등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제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대상 자녀에게 기본생활습관(식습관, 수면습관, 청결)을 잘 지도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대상 자녀가 볼 수 있는 TV 또는 비디오(DVD) 프로그램이나 시청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대상 자녀와 함께하는 활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23. 귀하는 하루에 얼마 동안 대상 자녀와 함께 놀아줍니까?

□① 놀아주지 않음 □② 30분 내외 □③ 1시간 내외
□④ 2시간 내외 □⑤ 3시간 이상 □⑥ 기타( )

24. 대상 자녀와 다음의 활동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표시하여 주십시오.

문항	주 1-2회	주 3회 이상	하지 않음
1) 대상 자녀에게 책을 읽어준다	①	②	③
2) 대상 자녀와 함께 노래를 부른다	①	②	③
3) 대상 자녀와 만들기나 그리기 활동을 함께 한다	①	②	③
4) 대상 자녀에게 글자, 낱말, 혹은 수를 가르친다	①	②	③
5) 대상 자녀와 게임을 하거나 놀잇감을 가지고 함께 논다	①	②	③
6) 대상 자녀와 놀이터에 가거나 신체운동을 함께 한다	①	②	③
7) 대상 자녀와 우체국, 은행 또는 상점 등을 함께 간다	①	②	③
8) 대상 자녀와 요리, 청소, 식사준비 등 집안일을 함께 한다	①	②	③

25. 최근 6개월간 대상 자녀와 다음의 활동을 한 적이 있는지 표시하여 주십시오.

문항	있음	없음
1) 도서관에 간 적이 있다	①	②
2) 인형극, 뮤지컬, 미술관, 박물관 등에 간 적이 있다.	①	②
3) 놀이공원, 동물원, 수족관 등에 간 적이 있다.	①	②

※ 다음은 대상 자녀의 양육의 어려움 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26. 대상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 **1순위:** ( ) • **2순위:** ( )

① 자녀를 돌보아줄 사람이 없음 ② 유치원 등 육아지원기관이 부족함
③ 유치원 교육비가 부담스러움 ④ 학원, 학습지 등 자녀 사교육비가 부담스러움
⑤ 자녀 양육방법을 잘 모르겠음 ⑥ 자녀 학습지도 방법을 잘 모르겠음
⑦ 자녀 건강관리가 어려움 ⑧ 취업으로 인해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함
⑨ 기타( ) ⑩ 어려움 없음

27~28. **다문화가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응답하여 주십시오.

항목		전혀 어려움 없음	별로 어려움 없음	보통임	약간 어려움	매우 어려움
27. 자녀양육에 대한 어려움	1) 언어 의사소통	①	②	③	④	⑤
	2). 양육비 등 경제적 상황	①	②	③	④	⑤
	3) 양육방식을 둘러싼 배우자 또는 가족과의 갈등	①	②	③	④	⑤
	4) 외국인 부모라는 선입견	①	②	③	④	⑤
	5) 아이의 외모 차이로 인한 사회적 적응	①	②	③	④	⑤
	6) 아이를 돌보아주는 사람이나 시설이 없음	①	②	③	④	⑤
	7) 학습지도	①	②	③	④	⑤
28. 양육관련 정부 요구사항	• **1순위:** ( ) • **2순위:** ( )					
	① 양육비 지원 ② 한글 및 언어교육 ③ 유아교사 파견					
	④ 가사도우미 파견 ⑤ 육아 상담 및 정보제공 ⑥ 본국어 양육 자료 제공					
	⑦ 통역서비스 ⑧ 유치원 등 무상 이용 ⑨ 또래 자조 모임 기회 마련					
	⑩ 기타( )					

Ⅴ. 대상 자녀의 유치원 교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1. 대상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① 공립 □ ② 사립

2.. 대상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는 가장 큰 이유 2가지는 무엇입니까?

•1순위: ( ) •2순위: ( )

□①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하여 □② 초등학교 준비를 위하여
□③ 특기교육을 위하여 □④ 취업 등으로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서
□⑤ 사회성 발달을 위하여 □⑥ 같이 놀 또래 친구들이 없어서
□⑦ 기타( )

3. 현재 다니고 있는 유치원을 선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 2가지는 무엇입니까?

•1순위: ( ) •2순위: ( )

① 비용이 저렴해서 ② 집에서 가까워서
③ 정규 교육내용이 좋아서 ④ 형제자매가 같이 다니고 있어서
⑤ 기관을 바꾸고 싶지 않아서(자녀의 적응 때문) ⑥ 운영시간이 적절해서
⑦ 원장, 교사가 좋아서 ⑧ 원하는 특기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⑨ 유치원 차량 이용이 편해서 ⑩ 시설환경이 좋아서
⑪ 주변 평판이 좋아서 ⑫ 종교적인 이유로
⑬ 종일반을 운영해서 ⑭ 기타( )

4. 유치원에서 제공하는 교육내용 중 더욱 강화되기를 희망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① 정서·사회성 발달 지원 □② 인지·언어 발달 지원 □③ 초등학교 학습 준비
□④ 예체능 특기교육 □⑤ 외국어 교육 □⑥ 문화체험
□⑦ 기본생활습관 지도 □⑧ 부모교육 및 참여활동 □⑨ 기타( )

5. 유치원에서 제공하는 가정통신문이나 부모교육 자료 등이 자녀를 교육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① 전혀 도움 되지 않음 □② 별로 도움 되지 않음 □③ 보통임
□④ 도움 되는 편임 □⑤ 매우 도움 됨

6. 유치원에서 제공하는 부모교육·부모참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① 참여함(☞7번) □② 참여하지 않음(☞6-1번)

6-1. 참여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② 시간이 맞지 않아서
□③ 시간을 내기 어려워서 □④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⑤ 돌보아야 하는 다른 자녀가 있어서 □⑥ 기관을 방문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⑦ 참여하는 것이 번거로워서 □⑧ 기타( )
□⑧⑧ 비해당

7. 가정에서 실제 납부하는 대상 자녀의 월 평균 **유치원 교육비**는 얼마입니까?

납부 내용	납부 금액
1) 수업료	원
2) 교재·교구비	원
3) 급간식비	원
4) 차량운영비	원
5) 특기적성비	원
6) 현장학습비	원
7) 종일반비	원
8) 기타( )	원
9) 총 합계	총 원

8. 대상 자녀는 종일반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① 이용함 (☞9번) □② 이용하지 않음 (☞8-1번) □③ 종일반 없음 (☞9번)

8-1. 종일반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특별활동 위주로 진행되어서 □② 특별한 교육활동이 없어서
□ ③ 비용이 부담되어서 □④ 긴 시간동안 자녀가 유치원에 있는 것이 싫어서
□ ⑤ 이용시간이 짧아서 □⑥ 오후에 학원, 복지관 등 다른 기관에 다니기 위해서
□ ⑦ 기타 ( )

9. 현재 다니는 유치원을 그만두고, 다른 기관으로 옮길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예 (☞ 9-1번) □② 아니오 (☞ Ⅵ-1번)

9-1. 옮길 의향이 있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교육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② 시설·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③ 원장, 교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④ 원 운영 철학 및 방침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⑤ 비용이 부담되어서 □⑥ 운영시간 때문에
□⑦ 급·간식이 부실해서 □⑧ 집과의 거리가 멀어서
□⑨ 낮잠시간 운영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⑩ 기타 ( )
□⑧⑧ 비해당

9-2. 옮길 의향이 있는 경우, 다음 중 기관으로 옮기기를 희망하십니까?

□① 다른 유치원 □② 보육시설 □③ 영어학원(영어유치원)
□④ 예체능 및 보습학원 □⑤ 놀이학원(놀이학교) □⑥ 기타 ( )
□⑦ 아무데도 다니지 않음 □⑧⑧ 비해당

Ⅵ. 대상 자녀가 유치원 이외의 이용하는 학원, 복지관, 학습지 등의 기타 교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1. 대상 자녀가 유치원 외에 **이용하는 교육프로그램의 개수**와 **가정에서 지불하는 비용을** 기입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 이용하는 프로그램에 V표시** 하여 주십시오. (가정에서 지불하는 비용이 없는 경우 '0'으로 기입)

내용	기관교육 (학원, 복지관 등)			정부지원 여부 표시	방문교육 (학습지 등)			정부지원 여부 표시
1) 음악	개	월	원		개	월	원	
2) 미술	개	월	원		개	월	원	
3) 체육	개	월	원		개	월	원	
4) 수, 과학	개	월	원		개	월	원	
5) 한글	개	월	원		개	월	원	
6) 영어	개	월	원		개	월	원	
7) 교구놀이프로그램	개	월	원		개	월	원	
8) 기타 ( )	개	월	원		개	월	원	

Ⅶ. 육아지원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정부로부터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받고 계십니까? 지원받고 있다면, 가정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지원 금액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 표시하여 주십시오.

항목	수혜 여부		도움 정도					지원 금액에 대한 만족도				
	받음	받지 않음	전혀 도움 안됨	별로 도움 안됨	보통	약간 도움됨	매우 도움됨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1) 3-4세아 차등교육비 지원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두자녀 이상 유아교육비 지원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장애아 무상교육비 지원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종일반비 지원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귀하는 정부의 유아교육비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필요 없음 □② 별로 필요 없음 □③ 보통 □④ 약간 필요함 □⑤ 매우 필요함 □⑥ 잘 모름

3. 대상 자녀에게 매월 지출되는 교육비(유치원비, 학원비 등 포함)가 가정에 얼마나 부담됩니까?

□① 전혀 부담되지 않음 □② 별로 부담되지 않음 □③ 보통임
□④ 약간 부담됨 □⑤ 매우 부담됨

4. 귀하께서 정부에 가장 바라는 육아지원정책은 무엇입니까?

□① 국공립유치원 확충 □② 유아교육비 지원 확대
□③ 유치원의 서비스 질 향상 □④ 종일제 프로그램의 내실화
□⑤ 교사의 전문성 향상 □⑥ 부모교육 프로그램 강화
□⑦ 아동발달계좌(미래 자녀교육을 대비하여 국가와 가정이 함께 적금을 불입하는 정책) □⑧ 유아교육지원사업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희망유아교육사사업 등)
□⑨ 문화체험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제공 □⑩ 기타 ( )

5. 현재 정부·지자체 또는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아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습니까?

□① 예 (☞5-1번) □② 아니오 (☞5-4번)

5-1. 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 ①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② 희망유아교육사 사업 □③ 드림스타트
□ ④ 우리아이희망네트워크 □⑤ 위스타트 □⑥ SB-7 시소와 그네
□ ⑦ 기타 ( ) □⑧⑧ 비해당

5-2. 받고 있는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불만족 (☞5-3번) □② 약간 불만족 (☞5-3번) □③ 보통 (☞6번)
□④ 약간 만족 (☞6번) □⑤ 매우 만족 (☞6번) □⑧⑧ 비해당

5-3. 서비스에 불만족한 경우, 어떤 부분에 불만족하십니까?

□ ① 프로그램 내용 □② 수업방식 □③ 프로그램 시간
□ ④ 교사와의 관계 □⑤ 교육환경 □⑥ 기타 ( )
□ ⑧⑧ 비해당

5-4. 아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이용시간이 맞지 않아서 □② 이용하기에 거리가 멀어서
□ ③ 가정방문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④ 서비스 제공자와의 관계가 불편해서
□ ⑤ 자녀가 원하지 않아서 □⑥ 서비스 관련된 정보를 잘 몰라서
□ ⑦ 주위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⑧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 ⑨ 서비스 대상자가 아니어서 □⑩ 기타 ( )
□ ⑧⑧ 비해당(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6. 아래에 제시된 서비스 중, 유치원 정규 교육 이외에 추가로 받기를 희망하는 서비스 3가지를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하여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보기>

① 언어, 인지 발달지원 프로그램	② 사회, 정서 발달지원 프로그램
③ 학습지원 프로그램	④ 특기적성 프로그램(미술, 피아노, 태권도 등
⑤ 한국어 프로그램(한글익히기, 구연동화 등)	⑥ 영어 교육 프로그램
⑦ 부모교육 프로그램(자녀양육 관련)	⑧ 부모참여 프로그램(엄마와 독서, 아버지와 함께 등)
⑨ 부모 개별상담 프로그램	⑩ 가족 문화체험 프로그램 및 견학(공연관람, 문화유적답사, 소풍 등)
⑪ 가족관계 증진 서비스	⑫ 아동 및 가족 대상의 건강 · 의료 서비스
⑬ 생필품 후원 프로그램	⑭ 그림책 등 교육자료 후원 프로그램
⑮ 심리 검사, 언어 및 놀이치료 지원 등	⑯ 맞춤형 육아서비스 (야간보육, 주말보육, 일시보육 등)
⑰ 기타 ( )	

◈ 질문에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